

발 간 등 록 번 호

11-1300000-000143-10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복무요원

뜻한 나눔 천사



향기로 피어나다

2015 사회복무요원 체험수기집



더 밝은 병역
더 밝은 나라

병 무 청

발간사 *

Congratulations



올해로 사회복지무원 체험수기집 발간이 10회째를 맞이하였습니다.

그 동안 수록된 많은 작품들을 통해 사회복지무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 그들이 스스로가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성실하게 복무하며 선행을 이어가고 있음에 병무청장으로서 고마움과 대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보행용 보조기구를 이용하는 할머니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현장을 발견한 사회복지요원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목숨을 구하고서는 “누구나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겸손함을 보였거나, 퇴근 후 가정 형편이 어려워 야학을 찾는 학생들을 가르치며 희망을 북돋아 주는 따뜻한 마음을 소개한 신문기사를 접하면서 본인의 재능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청년들의 마음 씀씀이에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사회복지요원은 보충역의 병역처분을 받아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대신에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들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에서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간혹 일부 사회복지요원들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있을 때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통해 성실히 복무하도록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에 발간되는 「젊음, 향기로 피어나다」 수기집의 모범사례들이 우리 사회에 널리 알려져 사회복지요원들에게 더욱 따뜻한 관심과 격려가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9월

병무청장 박 창 명

박 창 명

심사평 *

Congratulations



심사 대상 작품은 총 78편이었다. 주최 측이 제시한 심사기준은 진실성, 문학성, 내용의 충실성, 감동 및 교훈성, 홍보성 등, 모두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한 평가와 함께 최우수 1편, 우수작 2편, 장려 3편, 입선 24편을 선정해 달라는 것이었다.

심사는 우선 1차로 각자 78편을 모두 읽고 평가한 뒤, 두 심사위원의 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최종 30편의 입선작을 정하기로 했다. 그런데 최종 점수를 취합해본 결과, 김진혁의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와 이창훈의 ‘어느 아파트의 도시락 배달부’가 동점으로 최고점수를 얻었다. 그래서 이 두 편에 대해 다시 심의한 결과 주제가 명료하고 글의 전체적인 짜임새가 상대적으로 무난해 보이는 ‘어느 아파트의 도시락 배달부’를 최우수작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우수작으로 뽑힌 세 편과 장려상 3편은 다음과 같다.

최우수작(1편)

이창훈의 ‘어느 아파트의 도시락 배달부’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층과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동안 ‘가까이서 봐야만 보이는 것들’에 대해 조금씩 깨달으면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열린 마음으로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담담한 필치로 꾸밈없이 잘 그려낸 수작이다.

우수작(2편)

김진혁의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도움이 된다니 즐겁습니다.’

방역업무, 특히 모기 퇴치 작업을 통해 봉사의 즐거움을 깨달아가는 과정을 유연한 문체로 잘 그려낸 작품이다. 군복무를 대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의무적인 봉사가 아니라, 사회학을 공부하는 젊은이답게 내면의 갈등을 거친 자각에서 나오는 행동이기에 그의 글은 더욱 진솔하고 설득력이 있다.

김동욱의 ‘다시없을 수학여행’

근위축증 병을 앓는 초등학생을 도와 2박3일 수학여행을 가서 두 번 다시 경험할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을 학생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 봉사자의 진솔한 마음을 통해 잔잔한 감동으로 전해진다.

장려상(3편)

유상욱의 ‘이상한 나라에 빠진 주인공’

요양원에서 치매환자들을 상대로 봉사하는 동안 스스로 이상한 사람이 되어 가는 자신을 발견하고도 혐오스럽기보다 그들과의 소통에서 새로운 보람을 느끼는 봉사자의 아름다운 마음이 잘 드러난 작품이다.

이진성의 ‘뭐하다 왔니?’

불우한 환경에서 부모의 정을 모르고 자란 탓에 심한 자괴심에 빠져 대인 기피증으로 세월을 보내다 사회복무요원이 된 뒤, 자신보다 더 어려운 약자들을 대하면서 자신도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삶의 새로운 희망을 갖는 용기가 가상하다.

조건희의 ‘사회복무는 배움의 기회’

지하철역에서 승객을 도와주는 사소한 일들에서 큰 의미를 깨닫는 과정을 세밀한 문장으로 잘 표현한 작품이다. 도움에 대한 두 시각장애인의 상이한 반응은 우리가 평소 몰랐던 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준다.

심사위원 심정으로서는 응모작 78편 모두 상을 주고 싶었다. 글쓰기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 자신이 속한 곳에서 남을 위해 성실히 봉사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의 진정에서 우러나는 성실함은 너나없이 똑 같았기 때문이다. 체험수기를 쓰는 순간의 그 각오와 봉사정신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끝까지 변치 않기를 바란다. 누가 인생의 최우수상을 받을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니까. 사회복무요원 모든 분들에게 격려와 박수를 보낸다.

한국문인협회 이 영 철, 김 현 진

Contents *

최우수상

010 어느 아파트의 도시락 배달부 • 울산남구지역자활센터_이창훈

우수상

016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도움이 된다니 즐겁습니다. • 여주시청_김진혁

025 다시 없을 수학여행 • 순천교육지원청_김동욱

장려상

031 이상한 나라에 빠진 주인공 • 속초시 늘푸른요양원_유상욱

036 “뭐하다가 왔니?” • 금산소방서_이진성

043 사회복무는 배움의 기회 • 서울도시철도공사_조건희

입선

048 I love you • 강서교육지원청_홍현기

054 작은개울이 모여 큰바다로 향해 나아가듯 나의 작은 행동이 모여 이룬 큰 결과 • 한국철도공사_이민권

059 내 인생의 특이점 • 의정부시 예사랑지역아동센터_김기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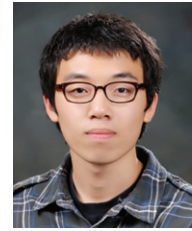
065 사회복무요원으로 인해 바뀐 나의 인생 • 영통2동 주민센터_유광선

070 “안녕하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주시사_김재원

- 076 오늘도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려합니다 • 서울주택관리공단 일산문촌7 _ 박성재
- 081 사랑의 나눔장터, 푸드마켓에 어서오세요 • 부산시 당감종합사회복지관 _ 이상배
- 086 그 사람의 나비효과 • 천안미라초등학교 _ 엄예찬
- 092 천사들의 비밀 • 수원시청 _ 김제원
- 097 도서관 복무일지 • 경기도립성남도서관 _ 한민구
- 102 정(停) 때문이 아니고, 정(情) 때문이에요 • 제주보육원 _ 고윤석
- 110 “찬스” • 충주시 금가양로원 _ 권준우
- 117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 주의를 기울임 • 주택관리공단인천삼산관리소 _ 정동윤
- 122 천사가 타고 있습니다 • 대전해광학교 _ 오석진
- 127 복지관을 부탁해 • 춘천남부노인복지관 _ 함정무
- 132 머무는 곳에서 주인이 되라 • 창원시 마산회원구청 _ 이석락
- 138 나와는 다른 향로 하지만 곧 나의 향로 • 천안지역아동센터 _ 유병선
- 144 사회복무요원, 그 무게를 견뎌라! • 홍천소방서 _ 김광래
- 150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 준 장애학생과 나 •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_ 이준형
- 155 완생 • 인천시 참조은아이아동센터 _ 김진모
- 161 상구작질(爽口作疾) • 서울평화만들기지역아동센터 _ 정윤철
- 166 형을 형이라고 부를 수 없던 나.. • 경주푸른마을 _ 주영호
- 172 같이 걸어가는 가치 • 대법원 전산정보관리국 _ 문종혁
- 178 꿈키움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삶! • 순천상사지역아동센터 _ 이동재

어느 아파트의 도시락 배달부

감사와 사랑을 배우며 성장해가는
어떤 사회복지무요원의 소박한 경험담



이 창 훈 (울산남구지역자활센터)

이방인이 된 나

제가 울산남구지역자활센터에 배치되어 사회복지무요원으로서 복무를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수행했던 업무가 '사랑의 도시락 배달'입니다. 저와 제 후임, 이 곳에서 근무하는 두 명의 사회복지무요원이 저소득층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신 임대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60여 가구에 매일 점심 도시락을 배달합니다. 집집마다 오늘 만든 따뜻한 도시락을 가져다주면서 어제의 빈 도시락 통을 수거해 오는 방식입니다.

보통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11시 30분쯤에 마무리되는, 이 간단해 보이는 일은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제가 질색하던 것이었습니다. 임대 아파트는 제가 경험했던 어떤 주거 공간보다도 불결하게 느껴졌고, 어깨에 맨 채 배달하던 도시락 주머니는 종종 넘쳐흐른 국물에 폭 젖어 있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꺼렸던 것은 노인 분들과의 마주침이었습니다. 낮 시간에도 할 일이 없어서 단지 내에 모여서 시간을 보내는 할머니들은 배달하러 돌아다니는 제가 지나가면 하시던 말을 멈추고 뺨히 쳐다보고는 했습니다. 저는 그 시선에



웬지 기분이 짹짹했습니다. 제가 지금 어울리지 않는, 낯선 공간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멀리서 볼 때 몰랐던 것들

하루는 어떤 할머니께서 혼자 계시는 집에 도시락을 갖다 드리려는데 불쑥 짜증이 솟구쳤습니다. 보통 도시락을 받는 집에서는 빈 도시락을 밖의 문고리에 내걸거나 가까운 현관에 두는데, 이 집에서는 어두운 거실 안쪽까지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도시락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누워 계시던 할머니께 살짝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빈 도시락을 현관 쪽에 놓아주실래요?”

그 말을 듣고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셔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리가 불편해서 멀리 움직이기 힘들다. 미안하다 총각.”

저는 그제야 일어나 앉아계신 할머니를 살펴봤는데,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할머니는 다리가 불편한 게 아니라 왼쪽 다리가 없으셨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바로는 공장에서 기계 가까이에서 일하다가 큰일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멀리서 누워계신 모습만 볼 때에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너무 부끄러워져서 작은 목소리로 “네...” 라고 대답하고 도망치듯 집을 나왔습니다.

그 날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멀쩡하신 분들이라도 노인 분들보다는 젊고 빠른 제가 훨씬 쉽게 움직일 수 있는데, 그 뻘한 사실은 뒤로 젖혀둔 채 생각 없이 제 편함만 쫓은 것입니다. 배달을 일른 끝내서 제가 싫어하는 이 아파트 단지를 빨리 떠나기 위해 할머니께 부탁을 드렸는데, 그 분은 이 아파트 단지에서 불편한 몸으로 외롭게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계속 그 장면을 곱씹어 보니, 저 자신이 정말로 철없고 마음이 좁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날은 제게 있어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곳에 계시는 노인 분들에게 웬지 모를 거리감을 느낄 때마다 저는 스스로를 질책했고, 누구에게나 열린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조금 전환하니, 그 전에는 볼 수 없었고 보고 싶지 않았던 것들이 보였습니다. 항상 쉼 목소리로 희미하게 말씀 하셔서 제가 심각한 흡연자로만 여겼던 어떤 할아버지는 사실 만성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 분과 짧게 대화를 나누면서 당신은 담배를 전혀 피우시지 않지만 예전에 십년 넘게 열악한 작업장에서 매캐한 연기를 마시며 용접 일을 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집에는 한쪽 팔이 없어서 의수를 착용하신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앞의 할머니와 마찬가지로 공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하셨습니다. 이 분은 가끔씩 제게 요구르트나 사탕 같은 먹을거리들을 주시는데, 그럴 때면 저와 짧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 같은 젊은 층각이 항상 수고해줘서 당신이 맛있는 밥을 드신다고 몇 번이나 고맙다고 말씀하십니다.

기계적으로 빈 도시락을 새 도시락으로 바꾸어 가기만 하던 제게는 보이지 않았던 것. 그것은 이 곳에 사는 가난한 노인 분들이 제 선입견처럼 마냥 어둡거나 피해의식에 차 있는 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분들은 당신의 삶에서 조금의 불운이 있었을 뿐, 조금의 관심에도 힘을 얻고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할 줄 아는 따뜻한 분들이셨습니다. 언제나 약간 이기적이고 성격이 급한 저는 그 분들을 보면서 지금 제가 혹시 자신의 삶에만 너무 빠져있는 것이 아닌지, 주변의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서 고마워할 줄 모르는 게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날마다 저는 도시락을 가져다 드리면서 더 가치 있는 반성을 얻어 가고 있습니다.



반전의 문제 가구

보통은 하루의 도시락 배달이 아무 탈 없이 끝나지만, 도시락을 받는 분들과의 만남에서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하루는 새로 도시락이 들어가는 집에 처음 배달을 갔습니다. 아파트에는 귀가 어두운 노인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큰 소리로 배달을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날도 별 생각 없이 도시락을 닫힌 문고리에 걸고 크게 외쳤습니다. “식사 배달 왔습니다!” 한동안



대답이 없어서 돌아서려는데, 문이 벌럭 열리면서 덩치가 큰 남자가 나왔습니다. 그 남자는 제게 ‘할머니가 주무시고 계신데 왜 시끄럽게 하나’면서 화를 냈습니다. 저는 어안이 빙빙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욕을 들어야 할 상황은 아니었고, 그 남자도 큰 소리로 화를 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인상이 제법 우락부락했고 저도 굳이 말썽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일단은 죄송하다며 물러났습니다. 그 날 도시락 사회적 기업(배달 신청을 받고 저희에게 배달을 지시하는)에서 살짝 알려주기를, 그 집은 저 이전에 배달하던 분들과도 마찰이 생겨서 몇 번이나 도시락 배달을 취소했다가 다시 신청한 소위 ‘문제 가구’라는 겁니다.

그 후로 그 집에는 절대 배달 왔다고 알리지 않고 도시락도 문고리에 살짝 걸어놓고만 다녔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다니다가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그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이미 한번 호되게 당한 터라 살짝 긴장해 있는데, 그 분이 도시락 가방을 들고 있는 저를 보고는 갑자기 웃으며 악수를 청하며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구, 수고하십니다. 도시락 잘 먹고 있습니다. 저번에 화낸 거는 죄송합니다. 놀라셨죠?”

저는 긴장이 풀리고 허탈해서 맥없이 대답하고 말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생각할수록 기분이 좋고 웃음이 자꾸 나왔습니다. 제가 도시락 배달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줄로 오해했던 그 사람은 사실 화냈던 사실을 기억했을 뿐 아니라, 제게 미안해하고 고마워했습니다.

비록 첫 만남은 그리 유쾌하지 않았지만, 엘리베이터에서의 화해(?) 이후로 그 분과는 도시락을 배달 받는 분들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꽤 자주 마주치면서 인사를 주고받고 있으며, 가끔씩은 가방이 무거워 보이니 들어 주겠다고도 하십니다. 한번은 그 분이 모시고 있는 할머니에게 잠시 시간을 내어 인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사람 간의 막연한 오해와 불편함은 그저 그 사람을 피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먼저 용기를 내어 화해를 시도하고 손을 내밀어준 그 분에게 감사한 마음입니다.

내가 바로 젊은 산타클로스

작년 12월은 제가 사회복지무요원이 되고 처음 맞이한 겨울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도시락 배달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 날 오후 다시 한 번 배달을 나가야 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겨울나기에 필요한 김치를 배달한다는데, 양 손으로 받쳐야 들어 올릴 수 있을 만큼 크고 무거운 김치통을 보고 서는 전의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냥 도시락 가방을 들어도 배달을 마치고 나면 살짝 땀이 나고 피곤한데, 그것보다 몇 배는 무거운 김치통을 들고 넓은 단지를 돌아다녀야 한다는 생각에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오후에 장갑을 끼고 김치통을 트럭에 한가득 싣고, 김치통을 운반하는 데 쓰일 카트도 챙기고는 익숙한 그 아파트 단지로 출발했습니다. 매일 도시락을 받던 분들에게 김치 한 통씩을 나누어 드렸는데, 모두들 정말 좋아하셔서 놀랐습니다. 평소에 도시락을 가져다 드려도 반응이 시큰둥하던 분들도 커다란 김치통을 드리니 박수를 치며 기뻐하셨습니다.



“진짜로 고맙네. 두고두고 잘 먹을게.”

“올해 김장할 때를 놓쳐서 김치 없이 밥 먹어야 하나 싶었는데 잘됐다!”

“우리 아들들보다 낫네.”

확실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었지만, 매일 도시락을 배달할 때보다 훨씬 뿌듯한 마음이 컸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날은 12월 22일, 성탄절이 낀 주의 월요일이었습니다. TV나 길거리에서 크리스마스 특유의 발랄하고 달달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분위기에 휩싸여 들떠 있을 때, 저는 세상의 관심에서 벗어난



이 곳에서 잠시나마 산타클로스가 되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아닌, 외롭고 가난하신 어르신들에게 김치를 나눠주는 젊은 산타클로스였습니다. 제가 김치를 가져다 드렸던 모든 분들은 문을 열고 세상의 어떤 아이들보다 환하고 밝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서로 모르던 사람끼리 어떠한 계산도 없이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어르신들은 제게 도시락이나 김치보다 큰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그 날 이후로, 도시락을 배달할 때에도 종종 고맙다는 말씀을 듣게 되면 딱 하루 산타클로스가 되었던 그 겨울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제 마음이 따뜻해 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리 대단치 않은 일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이 일이 귀찮고 힘들게 느껴지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시락을 갖다드릴 때마다 그 보답으로 미소를 지어주시고, 고마워하시는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언제라도 힘이 나면서 걸음이 빨라집니다.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도움이 된다니 즐겁습니다.



김 진 혁 (여수시청)

나답지 못한 시작

어릴 때부터 ‘사회’라는 단어를 참 좋아했다. 중, 고등학교 때 가장 좋아하는 교과과목은 단연 사회였고, 지금 대학교에선 사회학을 전공하고 있다. 사회라는 단어만 들으면 왠지 모르게 머리 속은 궁금증으로 가득 차고 가슴 속은 뜨거운 감정으로 뒤섞인다. 그 이유는 ‘사회’라는 단어 안에 있는 ‘우리 모두’라는 따뜻하면서도 역동적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리라. 누군가가 나에게 꿈이 무엇이나고 물으면 나는 항상 ‘많은 사람들을 위해 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답해왔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가장 멋진 일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인지 사회복지요원이란 단어는 이상적으로 흥미롭게 다가왔다. 말 그대로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닌가 싶었다. 그래서 사회복지요원으로 복무를 함에 있어 기대감이 있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뒤틀린 가슴이 무더지고 기대를 저버리는 나를 발견하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거나 많은 매체를 보다 보면 사회복지요원들은 그저 ‘시간 많고 사무일 보조하는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었다. 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의 심부름꾼이며, 군 복무를 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자율적인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이 되어 버린 것에 너무나도 아쉬웠다. 더더욱 아쉬웠던 것은, ‘사회복무요원이면 그 복무를 할 때 가장 빛나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진 내가, 사회복무요원의 이상적인 모습과 사회가 주는 선입견과의 차이를 받아들여 사회복무를 그저 거쳐야 하는 관행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그래도 감사하려고 했다. 군에서 열심히 복무하는 사람들과는 조금은 육체적으로 덜 힘든 일을 감당하고 자율적인 시간이 더 많다는 것은 큰 감사이다. 그러나 이것은 상대적인 감사였을 뿐 어디서든 사회복무요원 자체의 특별함을 찾을 수 가 없었다. 이게 나의 첫 시작 이였다. 2014년 7월 군사 훈련을 끝내고 첫날, 지정된 곳을 배정 받기 위해서 시청으로 갔다. 많은 복무요원들이 있는 가운데 나를 가장 먼저 부르시더니 ‘너는 보건소로 가서 일하면 돼’ 라고 하셨다. 조금은 놀랐다. 내 선입견에 의하면 어디 면사무소나 동사무소로 발령 받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보건소로 발걸음을 옮기며 생각했다 “2년 동안 이거 공부하고 저거 공부하면 되겠다”라고 말이다. 정말 딱 그 생각밖에 하지 않았다. 나의 초점은 퇴근 이후로만 치중 되어 있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배울 많은 것들을 퇴근 이후로만 기대하는 내 모습이. 그러나 보건소를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몰랐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몰랐으리라. 우리가 사회복무요원임을.



더 미션 “여수시의 모기들을 제거 하시오”

보건소 건강증진과 실에 들어가 과장님 그리고 과 주무관님들께 인사 드리고 담당 주무관님이 따라오라 하셔서 보건소를 돌며 각과 직원들께 인사 드리고 난 다음 아무 말 없이 지하 창고로 나를 데리고 가셨다. 창고 문을 열고 불을 켜는 순간 웬 약품들이 짝 진열 되어 있었다. 그리고는 한마디 하셨다. “너의 주 임무는 방역이다”. 나는 되물었다 “방역이 정확히 뭘니까?”.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모기 잡는일. 너 어릴 적에 방구차 안 따라 다녀봤니? 그 일이야.”

순간 멎었다. 방구차는 낫 설지 않았지만 그것의 또 다른 이름 ‘방역’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어색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전개로 흘러가고 있어서 당황했다. ‘나는 지금 사무실에 앉아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무색할 정도로 말이다. 그날부터 나에게 미션이 주어진 것이다. 앞으로 2년 동안 나의 미션은 여수시의 모든 모기와 유충들을 제거하는 일임을. 이미 첫날부터 난 여수시 방역의 최전선에 뛰어 들어야 했다. 이 특별한 미션을 소개하겠다.

“시동! 조준! 발사!, 열어! 투척! 달아!”

방역 업무는 단순히 모기잡이가 아니다. 생각보다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다. 방역업무는 여름과 겨울로 나뉜다. 여름에는 분무방역을 실시한다. 보건소가 소지하고 있는 ‘초록색 긴급방역차’를 타고 여수 전 지역을 돌며



분무방역, 말 그대로 살충제를 물과 섞어서 발포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여기서 내가 타고 다니는 이 초록색 자동차가 기가 막히다. 여수시에 단 한대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다. 소방차를 연상시키는 외형에 뒤에는 큰 대포가 장착되어 있다. 이 대포에서 물을 쏘는 것이다. 더욱더 기가 막히는 것은, 그 대포를 조종하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이다. 미션은 오전과 오후로 나뉜다. 미션이 시작되면 물로 희석한 약을 채운 차를 끌고 전쟁터(주로 공공장소)로 나아간다. 그곳에서 대포를 상하좌우 각도를 맞추어 분사기능 또는 소방호스 기능으로 약을 살포하는 것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아주 정교한 곳에서 미션을 수행할 때에는 분사 총으로 방역을 한다. 대포 밑에 위치한 기계 트렁크를 열면 소방호스처럼 호스가 돌돌 말아져 있다. 이것을 빼서 살포 총으로 연결하면은 총으로 분사되어 더 정교하게 약을 살포할 수 있다. 이 글을 쓰다 보니 정말 신기한 자동차라는 타고 다녔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총으로 한다고 생각 하면 언뜻 재미있는 일일 것 같지만 여름방역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총으로 해야겠다’라는 말이 떨어지게 무섭게 전신을 덮는 전투복(하얀 위생복)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풀 돌려 쓴 다음 일을 해야 한다. 더위를 잘 타는 나에겐 정말 이 시간이 힘들다. 겨울이 되면 미션 전략이 달라



진다. 그것도 아주 많이. 겨울방역은 정화조 유충 구제이다. 여름에는 모기나 유충들이 깨어나는 계절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전쟁터로 가서 때려잡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겨울이 시작되면은 이 불청객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 따뜻하고 물이 고인 음지로 찾아간다. 그래야 자기네들의 군대를 양성하고 재정비 할 수 있으니까. 그 곳이 바로 정화조다. 정화조는 쉽게 말하면 ‘똥물 있는 곳’이다. 집이나 아파트들에 있는 화장실의 폐수나 거름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마지막 안식처이다. 그곳은 물이 고이기 때문에 유충들이 잠복해 알을 낳기 쉽다. 그래서 내 미션은 그 곳에 잠입해 문을 열고 폭탄을 투척하여 사살하는 일이다. 물에 가루 또는 액체 약을 넣는다는 말이다. 그래야 군대형성을 막을 수 있으니 말이다. 겨울이 시작되자마자 담당 주무관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헉아~ 1000가구다’. 1000가구? 무슨 말인지 파악도 하기전에 1000개나 되는 주소가 적힌 종이를 책상 앞에 놓아주었다. 언뜻 보니 상가며 주택이며 여러 주소가 적혀 있었다. 그렇다. 이미 전수조사가 되어있는 1000가구를 돌며 각 가구에 있는 정화조에 유충을 없애는 약을 넣는 것이다. 일일이 주소를 찾아서 말이다. 포털사이트 지도 어플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고마운 줄 처음 알았다. 각 상가, 가게, 집 또는 아파트를 일일이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설명하고, 정화조를 찾고, 도구로 정화조 뚜껑을 열고, 물을 떠서 유충들이 한 컵당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고, 약을 투여하고, 뚜껑을 닫고, 정보를 상세히 기록한 다음, 인사드리고 나온다. 이것이 겨울 방역 미션이다.

무엇이 부족한 것일까?

그렇다. 처음에는 너무나 새로웠다. 내가 예상했던 일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음에 신기하였다. 방역을 언제 해보겠냐는 심정으로 ‘이것도 경험이다’라고 생각하며 일하기 시작했다. 확연히 사회복무요원이 하기에는 조금은 특별한 일인 것 같았다. 그 영역의 특별함에 겨워 일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영역에서 오는 기술적인 특별함은 머지않아 나에게 공허함을 주기 시작했다. 내가 하는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을 아무도 모른다. 방역을 할 때는 사람과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전적인 육체적 업무이다. 그러나

아무리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해도, 그 힘들음을 아는 것은 일을 하는 나 밖에 없다. “이 일이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될 때면 힘이 빠졌다. “왜 내가 이곳으로 보내졌는지”라고 생각하며 지내고 있는 어느 날, 한 사회복무요원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그는 복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복지의 최전선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지혜를 배우고 있었다. 너무 부러웠다. 너무 멋있어서 가슴이 먹먹했다. 언뜻 보면 그냥 봉사활동 하는 것 같다고 할 수 있는 그의 말에서 난 왜 그렇게 그를 부러워 했는지 그때는 잘 몰랐다. 나는 내 미션을 이행함에 있어 여수에 온지 1년도 안 되었지만 열심히 예수 지리를 익히고 더 나아가 배경지식이 전혀 없는 방역이라는 업무를 위해 내가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지 못하지만 어떤 약품은 물을 타도 되는지, 연기로 사용해도 되는지, 얼마를 넣어야 하는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파악하며 열심히 일 해보아도. 이런 노력은 보이지 않는 방역이란 일을 하기 때문에 전혀 드러나지가 못한다. 이 이유 때문이었을까? 그렇게 공허한 나날들은 지나가고 있었다. 아주 특별한 날이 오기전 까지 말이다.

Special Day

여름방역의 거의 막바지 시즌 이였다. 그날은 시작부터 좋지 않았다. 여름방역은 공공지역이나 모기가 많이 발생 할 수 있는 특수한 지역들을 나열해 반복 주기적으로 실시하는데, 우리가 주기적으로 방역을 하는 지역에 사는 분이 연락이 와서 ‘자기가 방역하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식의 전화를 받았기 때문이다. 썩 좋은 기분이 아니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구나 라는 익숙해진 씁쓸한 생각을 하며 오전 방역을 위해 출격했다. 장소는 돌산지역 이였다. 기분이 좋지 않아서 인지 ‘그래 한번 제대로 해주자’라는 마음을 먹고 방역차를 타고 기사님과 돌고 돌았다.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다. 넓은 들판 지역을 방역하고 있었다. 약을 더 멀리 확실히 뿌리기 위해 대포에 달린 소방호스를 사용해 약을 멀리 날렸다. 막 가려고 하던 차에 저 멀리서 50대로 추정되는 아저씨가



아주 격하게 손을 흔들어 댔다. 순간 기분이 좋았다. 나는 '여기도 해주세요' 라고 알아들었다. 그런데 손을 더 격하게 흔들며 우리가 있는 쪽으로 아주 급하게 뛰어오셨다. 우리를 향해 모자를 던지는 모습을 보고 무언가가 잘못 났다고 느꼈다. 그리고는 생전 처음으로 초면인 사람에게서 육두문자를 들었다. '내려봐 이 개○○들아'. 굉장히 무서웠다. 싸움에 휘말릴 수 있겠다 라는 상황을 처음 맞닥뜨렸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한대 맞을 각오로 아저씨를 타일렀다 그리고 대화했다. 그제서야 아저씨 목소리 속에서 화가 아닌 슬픔을 들었다. 목소리가 겁먹은 아이처럼 떨렸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양봉을 하시는 분 이였다. 그리고 방역약은 별한테 아주 치명적이다. 자기의 생계수단의 위협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였다. 그 뿐만이 아니였다. 작년 양봉사업을 화재로 잃어버린 아저씨에겐 그 상황이 긴박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였다. 다행이 양봉에는 문제가 없었다. 약이 그 곳까지 단지 않았다. 아저씨와의 일을 마무리 하고 사무실에 돌아오니 복잡미묘한 감정이 솟구쳤다. 상황은 잘 마무리 되었지만 사회복무요원인 내가 지금 하는 이 일들이 정말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특별한 일을 맡고 있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특별한지 알수가 없었다.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사무실에 들어와 생각 없이 컴퓨터에 앉아서 자료를 검색하던 도중에 세계보건기구(WHO) 홈페이지에서 단순하지만 재미있는 통계를 보게 되었다. 매년 인간을 가장 많이 죽이는 종(Specie)이 바로 모기라는 것이다. 순간 깜짝 놀랐다. 알고 보니 나는 인간 생명의 가장 치명적인 천적인 모기를 퇴치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는 놀라운 의학연구를 접하였다. 그 연구에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사람의 수명을 급속도로 증가시킬 수 있었던 가장 주된 원인을 의학(Medical) 기술의 발전이 아닌, 사망의 주된 원인이 되었던 감염성 질병을 잘 대처할 수 있는 위생적 기술의 발전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주된 발전의 원인을 감염성 질병 확산의 매개체인 오물과 폐수들을 관리하는 화장실 시스템과, 모기와 같은 유충들을 제거하는 기술들 덕분이라고 서술했다. 즉, 내 미션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순간 가슴이 뛰었다. 누군가에게 '내가 하는 일이 참 많은 도움이 된다' 라고 말을 들어서도 아닌 '감사합니다' 라고 들어서도 아닌, 그저 '내가 하는 일이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 가슴 뛰게 할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 이 날은

무슨 날이었긴 했는가 보다. 그날 오후 방역을 하는 도중 가게 아저씨가 차 문을 두드리며 “아이고 더운데 고생 하시네!”라고 말하시며 창문넘어 음료수를 주셨다. 격한 감사함에 잠시 쉬어 갈까 해서 운전 주무관님과 내려 잠시 내렸다. 아저씨께서 말씀하셨다. “혹시 몇급 공무원인가? 8급? 7급? 굉장히 젊네!” 내가 말했다. “저는 사회복지무원입니다.” 그리곤 그가 말했다. 와~ 멋지네 멋져! 복무원이 이런일도 하고! 여수시를 위해 일하는데 공무원도 맞는 말이지. 안 그래?”. 가슴이 벅찼다. 그 말이 잊혀지지 않는다. 그날 힘든 방역을 다 마치고 보건소로 복귀할 때까지 벅참에 조용히 하고 있는 내 눈을 보며 운전 주무관님이 이야기 하셨다. “누구도 보지 않는 곳에서 누구를 위해 일한다는 것이 가장 외롭지만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외롭게 만들지 아니면 아름답게 만들지는 그저 그 일에 깃들어진 큰 사명감을 인지하고, 얼마나 즐겁게 일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아름답게 만들 수 만 있다면 언젠간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를 사람들이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금 네가 그러하듯이 말이다.”

Mosquito Philosophy : 모기 잡는 “사회복무원”

그 순간 깨달아 버렸다. 내가 왜 그렇게 그 사회복지무원을 부러워했는지 말이다. 그때는 그가 하는 일이 나보다 더 사람들에게 도드라져 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그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꽃이라면 내가 그들에게 거름이 되어 주는 것 만으로도 감사하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내가 미칠듯이 부러워한 이유는, 그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보다 더 보여지기 때문도, 더 영역적으로 특별하기 때문도,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기 때문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그가 사회복지무원으로서 맡은 일 속에 깃든 아름다운 가치를 찾아내어 언제나 남을 위해서 일하며 스스로를 빛내는 진정한 사회복지무원이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싶었던 나는, 사회가 주는 편견과 기대에 휘둘려 사회복지무원의 진정한 또 다른 이름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그는 그 참된 이름을 스스로 찾아내고 기억해내며 나아가는 모습에 무뎠던 나의 마음이 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으리라. 지금은



나도 정말 특별한 일을 하고 있다고 느낀다. 그러나 나의 일이 특별한 이유는 특별한 영역이라서가 아니라 그저 내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찾아내고 인지 했기 때문에 그 특별함을 맛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은, 나만 특별한 것이 아닌 사회복지요원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특별한 것이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복무'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다. 단지 우리가 일하고 있는 영역이 잘 보이지 않을 뿐이다. 그러나 그렇기에 더더욱 특별해 진다. 모든 일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다. 일을 행함에 있어서 확연히 보여지고 들어나는 일들이 있다. 그러나 사람들과 많이 접하고 일의 결과가 확연하게 들어나는 일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일들도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만 아주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영역도 있다. 나 또한 아주 특별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요원이다. 보이지 않아서 사람들은 잘 모른다. 보이지 않아서 때로는 인정 받지도 못한다. 그렇다. 그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잘 안다. 나도 그래왔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사회를 지탱해 주는 한 기둥임을 인지하기에, 내가 방역을 하고 있다는 영역적인 특별함 때문이 아닌 사회복지요원 그 자체가 주는 특별함에 감사하며 일하고 있다. 사회복지요원의 참된 의미를 다시 얻을 수 있음에 기쁘다.

들리십니까? 나도 여기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메르스가 한국을 덮은 이 시간에도 나는 여전히 방역의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다. 사람들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즐거운 일이다. 그러나 분명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평가할 것이다. 내가 미션을 수행을 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만 평가할 것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 너무나도 힘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더라도 그 일에 깃든 '남을 위한 봉사'의 가치를 찾아내어, 그 가치를 가지고 묵묵히 즐겁게 일하는 것이, 그 가치가 주는 짜릿함에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을 위해 일 하는 사람'의 이상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다. 내가 지금까지 적은 이 글은, 나의 보이지 않은 영역을 알아달라는 탄원서도, 시간이 남아서 생각 없이 나열

해 보는 경험담 에세이도 아니다. 그저 보이지 않는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사람들과,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일을 함에 있어서 얻는 즐거움과 감사함에 겨운 나의 소리침이다. 지금도 여러 곳에서 남을 위해 보이든 보이지 않든 자기만의 특별함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을 너무나도 멋진 사회복지요원들의 어깨를 잠시나마 두드려 “나도 함께하고 있다”라고 얘기 해 주고픈 마음이 담긴 작은 격려이다. 그리고 복무 기간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한 힘찬 발걸음이다. 나의 소리침이 특별함을 찾지 못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들어 할 많은 이들에게 잠시나마 위로가 되고 그들이 힘찬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작은 힘이 되어 줄 수 있기를 조심스럽게 바래본다.



다시 없을 수학여행

‘그 아이’와 함께한
내 생애 다시 없을 2박 3일간의 추억



김 동 욱 (순천교육지원청)

내 복무기관을 학교로 하길 잘했을까?

약 8개월간의 고민을 했었고 이 글은 그것에 대한 답변이다.

나와 그 아이

나에게 학생들과 가는 수학여행은 이번이 처음이다. 물론 나는 사회복지요원이며 내 업무는 장애학생활동지원이다. 현재 순천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휠체어를 타는 한 6학년 남자아이의 학교생활을 도와주고 있다. 난 전직 초등교사였다. 작년에 6학년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을 데리고 수학여행을 가려했지만 4월 세월호참사가 일어나 취소되었다. 1학기를 보내면서 재검신청 후 5월에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았다. 그 후 교육청으로 복무기관이 결정되었을 때 좋았지만 한편으론 아쉬웠다. 앞으로 학교에 평생 근무할텐데 다른 직종도 경험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근무지인 ○○초등학교에 온 뒤에도 그 생각이 의식 한 켠에 남아있었다. 그런 내가 학교에서 도와주는 그 아이는 점점 몸이 굳어가며 힘이 빠지는 근위축증을 가지고 있다. 무서운 병이다. 운동량은 없고



식탐이 있어서 몸이 좀 비대하고 몸무게도 늘고있다. 현재 몸무게는 54kg. 내 주요업무중 하나는 등교시 차에 아이를 들어서 내려 휠체어로 옮겨주고, 하교시에는 들어서 태워준다. 학교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다. 그래서 그 아이가 2층에서 수업이 있거나 강당에 갈 땐 애를 들어서 계단을 올라야한다. 휠체어를 들어주는 것을 같은 반 친구들이 도와주긴 한다. 그래도 많이 힘들다. 하지만 그 아이가 수업에 참여하면서 웃거나 좋아할 땐, 힘들었던것도 어느 정도 보상이 된다. 쉬는시간 화장실 갈 땐 일명 '쉬통' 으로 받아준다. 큰 일을 보고 싶어할 때는... 일단 들어 올려서 앉혀주고 벗겨주고 그 아이의 팔에 힘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내가 뒤처리까지 해준 뒤 다시 입혀주고 휠체어에 앉혀준다. 그 과정은 정말 힘들다. 이외에 아이가 수업을 들을때 옆에 앉아서 힘이 필요한 부분을 도와주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다.

준비 - 마음이 시키는 대로

아이를 도와주며 일상적인 생활을 보내고 있을 때 4월쯤에 도움반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다. 그 아이가 6학년인데 수학여행에 관한 가정통신문을 집에 보낼 예정인데 만약 아이가 간다면 따라갈 수 있겠냐고 물어보셨다. 수학여행은 서울, 경기권으로 가는 5월 27일부터 29일까지의 2박 3일간 일정이라 하셨다. 고민이 됐다. 허리가 안 좋아서 4급 판정을 받았는데, 일상적인 학교일을 수행하는데도 힘들어하는데... 잘해낼 수 있을까 걱정되었다. 사실 나에겐 선택권은 없었다. 그래서 그 아이의 부모님께서 수학여행에 보낸다고 하면 따라가겠다고 말했다. 다음날 아침 아이를 휠체어에 옮겨 앉힐 때 그 아이의 어머니께선 수학여행에 안 보내겠다고 말씀하셨다. 이유는 수학여행에 가면 내가 너무 힘들 것 같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자리에서 나는 일단 알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난 도움반 선생님께 그 대화를 전해드리고 약간의 첨언을 했다. 그 아이 어머니께서는 보내고 싶긴하신데 미안해서 그러시는 것 같다고 내 느낌을 말씀드렸다. 그리고 도움반 선생님과 난 대화를 나누었다.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많은 장소에서 버스에 태우고 내리는 것, 걷기도 복잡한 관광지에서 휠체어를 안전하게 미는 것, 2박3일의 일정이니 화장실 문제, 세면의 문제 등등 부담이 되고



힘들 것 같다고 말씀드렸다. 도움반 선생님은 듣고 공감해주셨고 걱정을 같이 해주셨다. 그 뒤에 그 아이한테 물어봤다. 그 아이는 “수학여행 안가요.”라고 대답했다. 웬지 집에서 교육받은 것 같은 대답이었다. 머리가 고민으로 가득했다. 내가 무엇을 해야할진 이미 결정이 나있었다. 하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하교시간 어머니 차에 아이를 태운 후 말씀드렸다. “제가 데리고 수학여행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은 복합적인 감정을 보여주셨다. 좋아하시기도, 걱정하시기도 하는 것 같았다. 마음속에 있던 말을 마저 꺼냈다.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수학여행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행복한 추억을 쌓을 수 있게 해주고 싶습니다.” ‘결정은 났다. 무를 수도 없다. 가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마음을 다잡았다. 어느새 수학여행 전날이다. 짐도 챙기고 마음의 준비도 하고 일기예보도 확인했다. 비는 안 온다. 그러나 매우 덥다고 한다. 거의 여름이라 한다. 날씨가 걱정이지만 다음날 8시 출발이기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첫째날 - 여정의 시작

수학여행 당일 5월 27일, 아침 7시 30분에 학교에 도착했다. 복무관리포탈에 들어가서 개인복무상황, 출장 등 오류 사항이 없나 확인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이제 아이가 오면 버스에 태우고 출발하면 된다. 어머니와 그 아이가 도착했다. 먼저 아이를 버스에 태운 뒤 어머니께서는 그 아이의 짐을 설명해주시고 힘드실텐데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걱정마세요.”라고 한 뒤 버스에 올랐다. 길고도 멀고도 험할 것 같은 수학여행 출발이다. 첫 일정은 11시 30분쯤의 점심식사이다. 오수휴게소에서 준비한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었다. 점심을 먹으니 학교밖이라는 것이 실감났고 긴장이 되기 시작했다. 버스는 달리고 달려 첫 목적지 남산타워에 도착했다. 그 때 시간은 13시 30분이었다. 해는 중천에 떠있었고 날씨는 무더웠다. 휠체어를 밀고 가니 벽같이 생긴 경사로가 있었다. 경사로에는 관광객으로 가득했다. 전망대에 가기 위해서 그 경사로를 올라야만 했다. 혹시 있을 사고를 대비해 일행의 뒤를 따라



갔다. 피약별 아래 올라가던 15분 남짓의 시간은 아직 뇌리에 남아있다. 올라 갈수록 경사가 심해지는 신기한길이었다. 특히 마지막 10m정도의 거리는 손이 아파 놓칠세라 더욱 긴장했다. 무사히 팔각정과 마주했다. 전망대에서 그 아이와 서울 전경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같이 남산 바람을 맞았다. 반쯤 끼운 첫단추에 만족해하며 친구들과 추억을 만드는 그 아이를 보았다. 이제 단추의 나머지를 끼울 차례이다. 급경사를 위에서 보니 이견 가히 절벽이다. 그 대로 내려가면 100% 사고 난다. 휠체어를 뒤로 돌리고 나도 뒤로 해서 천천히 내려갔다. 긴장의 연속이었다. 안전하게 절벽에서 내려왔고 첫 단추를 마저 채웠다. 다음 목적지를 향해 출발했다. 다음 목적지는 경복궁이었다. 내 기억속 경복궁은 아름답고 배울 것이 많은 역사의 산실이었다. 유화문을 지나 근정전의 앞에 섰다. 품계석 등을 설명해주고 박석으로 들어서는 찰나 멈췄다. 휠체어가 앞으로 가지 못하는 것이었다. 아름다웠던 박석은 휠체어에겐 앞바퀴가 계속 걸리는 장애물에 불과했다. 경복궁은 휠체어가 다니기에 부적합한곳이었다. 그들도 없었다. 경내의 문들을 지날 때 있는 수많은 경사로와 관광객 또한 장애물이었다. 힘겹게 이동하며 내가 설명해주는 내용을 들으며 좋아하고 신기해하는 그 아이와 친구들을 보니 교사였던 시절의 감각이 깨어나는 느낌이었다. 시간이 짧게 배정 되어있었기 때문에 속성코스로 애들에게 경복궁을 설명해주고 모이는 장소로 갔다. 근정전을 배경으로 단체사진을 찍고 오늘의 마지막 목적지 국회의사당을 향해 출발했다. 국회의사당은 실내였고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많았던 장소였다. 나와 그 아이는 엘리베이터를 탄 뒤 나와서 친구들과 같이 관람했다. 그 후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들었다. 국회의사당에서 나와 첫째날 숙소를 향해 출발했다. 숙소에 도착해서 그 아이와 숙소로 가려고 했는데 세상에... 리조트 인데 경사로가 없었다. 이곳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곳이었다. 친구들과 힘을 합쳐 겨우 리조트 안으로 들어갔다. 저녁을 먹고 씻기기 위해 방의 화장실로 가려 했으나 너무 비좁았다. 그래서 방 앞에 있는 공용 화장실에서 물을 받아서 씻겼다. 그 후 방 안의 친구들이 깔아놓은 이불위에 그 아이를 앉혀주고 옷을 갈아 입혀주었다. 그 아이는 아이들과 한참을 놀았다. 밤이 깊어 잠이 온다는 아이를 눕혀주고 물었다. “오늘 어땠니?” “재미있어요.” 그 아이는 외롭지 않은 긴긴 밤을 보냈을 것이다.



둘째날 - 잊지 못 할 경험

아침이 밝았다. 오늘 일정은 간단하다. 오전에는 키자니아, 오후에는 ○○월드이다. 숙소에서 아침을 먹고 가볍게 씻고 출발했다. 키자니아는 직업체험을 하는 장소이다. 전에 근무할 때 아이들과 왔던 경험이 있어 익숙했다. 그 아이의 장래희망은 소방관이다. 여기까지 왔으니 꼭 소방관체험 및 소방차를 태워주고 싶었다. 같은 조원들에게 말한 후 바로 3층 소방서로 갔다. 그 아이가 방화복을 입고 소방차를 타는 모습을 보니 몽클했다. 언제 이 아이가 소방차를 타보겠냐 하고 속으로 생각해서 그랬던 것 같다. 그때부터였다. ‘그래 일단 왔으니 내 몸이 좀 힘들어도 이 아이가 평생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자!’ 라고 다짐했다. 그래서 국세청, 마트 직원, 햄버거 만들기 체험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왔다. 그 아이는 친구들과 함께 웃고 즐거워했다.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 ○○월드로 이동했다. 그 아이도 나도 놀이기구를 타는것엔 취미가 없었다. 어느새 놀이기구를 잘 못타는 친구들만 주변에 남았다.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놀이기구 한개만?’ 마침 그 친구들이 천천히 떠가는 가족형 놀이기구인 ‘신밧드의 모험’을 탄다고 하길래 ‘그래 이거다’ 라고 생각했다. 그 아이도 같이 태워주고자 직원에게 이야기했다. 직원분은 출구 쪽으로 인도해주셨다. 출구쪽에서 보트의 좌석을 지정해주시길래 이왕이면 같이 있는 일행과 태워주시면 안되는지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줄에 서있던 일행을 데려와 주셨다. 그 아이는 아마 처음으로 친구들과 같이 놀이기구를 타는 ‘잊지 못 할 경험’을 했을 것이다. 저녁을 먹고 트릭아트 사진전에서 사진을 찍어주었다. 찍은 사진을 보여주자 신기해하고 좋아했다. 8시쯤 두 번째 밤을 보내기 위한 아산에 있는 숙소로 이동했다. 이곳에서는 방 앞에 따로 화장실이 없었다. 그래서 1층 로비에 가서 씻기고 다시 올라왔다. 방에서 잘 준비를 마치자 그 아이는 친구들과 즐겁게 놀기 시작했다. 그렇게 수학여행의 둘째날이자 마지막 밤이 지나갔다.

마지막날 - 토닥토닥



마지막날이다. 오늘의 여정은 무령왕릉과 현충원, 그리고 귀향이다. 그 아이와 아침을 먹고 물어보았다. “혹시 응가하고 싶니?” 하고 싶다고 했다. 아, 올 것이 왔다. 차라리 숙소에서 소식이 왔으니 다행이라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도움 및 뒤처리를 했다. 어차피 터질 일이라 생각해서 그랬는지 난 답답했고 능숙하게 해냈다. 아침에 버스는 무령왕릉을 향해 출발했다. 무령왕릉 주차장에서 입구까지는 꽤 멀었다. 어느새 나와 그 아이는 뒤쳐졌고 나와 둘이서 구경을 했다. 무령왕릉 바깥에서 사진을 찍고 안에서 유물을 보고 나와서 쉬었다. 날이 덥고 경사가 심해 도저히 움직일 엄두가 나지 않았다. 기다림의 끝에 친구들은 더위에 지쳐 돌아왔다. 버스를 타고 마지막 목적지 현충원에 도착했다. 그곳에서는 참배를 하고 친구들은 비석들이 있는 묘지를 한 바퀴 돌기로 했다. 나와 그 아이는 그늘에서 쉬기로 했다. 쉬면서 물어보았다. “수학여행 재밌었니?” “네”라고 했다. 뿌듯했다. 그간 고생이 싹 사라지는 것 같았다. 이제 여정의 마지막인 귀향이다. 순천에 가까워질수록 그동안의 여정이 스치듯 지나갔다. 그 여정이 누군가에겐 잊지 못 할, 다신 못 할 추억으로, 누군가에겐 앞으로 인생의 밑거름이 될 보람찬 추억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눈을 감았다. 일어나니 어느새 학교 앞이다. 그 아이는 아직 자고 있었다. 웃고 있었다. 아마 추억속에서 헤엄치고 있는 듯 했다. 헤엄치는 아이를 깨워 어머니 차에 태우고 배웅했다. 집에서 씻고 그 아이가 담겨있는 사진을 정리한 뒤 그 아이 어머니 메일로 발송했다. 월요일 어머니께서는 “사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라고 하셨다. 뿌듯했다. 나 말고도 많은 사회복무요원들이 일선 현장에서 많이 고생하고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런 체험 학습을 가면 더욱 힘들 것이다. 나도 역시 힘들었고 길고 길었던 2박3일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도와주는 아이의, 어른의, 보호자의 행복해하는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로 뿌듯함을 느끼고 보람찰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내가 도와주는 아이의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가지 않도록 하고 싶다. ‘여기로 오길 잘했어 토닥토닥.’

이상한 나라에 빠진 주인공



유 상 욱 (속초시 늘푸른요양원)

나의 복무 생활의 시작은 강원도 속초에서 2014년 2월에

무릎까지 쌓여 있는 눈속을 헤치며 겨우 도착한 시청...

아홉시가 훨씬 지난 시간이었지만.. 기다림만 계속 될 뿐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때 어떤 분이 폭설 때문에 인솔자가 늦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복무기관은 여기서 가까우니 걸어가라고 이야기 하셨다.

배정 받은 첫날부터...이게 무슨꼴인지.. 신세한탄을 하면서.. 요양원은 무슨일들을 하게 될지 설렘과 걱정근심이 마음 한가득 차지 한 채, 다시 눈속을 헤치며 겨우 겨우 요양원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렇게 12시가 넘어서 요양원에 도착을 했고 간단한 인사를 마친 후 부라 부라 어르신들이 식사하시는 장소로 향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배정 되었던 선임 형이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떠드려야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나는 형이 가르쳐 준대로 손가락에 반찬을 올려 이름도 모르는 할아버지 입속에 넣어 드렸다. 너무 건강하신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와는 달리

입을 벌리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다. 아무 생각없이 계속 밥을 입에 넣어 드리는 데.. 갑자기 할아버님은 밝게 웃으시더니.. “우리손자 오느라 수고했어” 나는 이밥이 너무 많은데 니가 반절 떠먹어.. 여기서 노인네들 밥주느라 고생하니까 너도 좀 먹으면서 해 “다 늙은 이 할애비 때문에 우리 손자가 고생하네~”라고 말씀하셨다.. “아.. 뭐라고 해야하나..?” “나 손자 아닌데..?” 대답을 못하고 있을 때 선임형이 “할아버님 다 먹으면 ~ 우리도 먹으러 가야죠 ~ 걱정말고 드세요” 라고 손자인척 태연히 대답하곤 다시 다른 어르신들 수발을 했다 나도 다시 식사하시도록 돕고 있는데.. 방금 말 걸었던 할아버지가 똑같은 말을 다시 하셨다.. 역시 선임형은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할아버님께 말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선임형을 쳐다 봤다.

형은 별일 아니라는 듯 식사수발을 계속 도와 드렸다.

눈치를 보니.. 조금 이상한 할아버지인 게 분명했다.

식사시간이 다 끝날 때 까지 그 할아버지는 똑같은 말을 계속 하였고..

선임형은 계속 똑같은 대답을 했다.

“아..” 요양원은.. 이런 곳이구나...

분명 날 모르는 분인데.. 나를 손자라고 하였고.. 분명 저할아버지는 치매인가?

분명 이상한 할아버지였는데 그런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손자인척 행동하는 선임형.. 마치 이곳은 이상한 나라 같았다.

나는 요양원에 오기 전까진 이곳에 와서 무엇을 해야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그렇게 그날부터 내가 몰랐던 이상한 세상에서 이상한 할머니, 이상한 할아버지와 생활이 시작되었다 이상한 세상에서 내가 맡은 역할 종류는 무척이나 많았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나에게 많은 역할을 맡기신다.

첫번째 역할, “도둑놈” 물건이 없어진다!!

치매 심각한 어르신들은 눈에 보이는 물건을 자기 주머니 또는 보파리에 넣으신 뒤 본인것이라고 생각하신다. 나중에 어디서 났냐고 여쭙보면.. 집에서



가져왔다고들 하신다. 그리고 젊은 총각만 왔다가면 내 물건들이 없어 졌다고 하신다.

[처음엔 무척 기분이 상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 내가... 내물건, 선생님물건, 다른어르신들이 가져간 물건들을 제자리에 가져다 댔다. 어르신들 입장에서 봤을 때.. 난 도둑놈이 맞는 것이었다. 계속 도둑역할을 충실히 해내기위해 가끔 이불속에 숨어도 드린다.]



두번째 역할, “손자” 밥챙겨 줘야 한다.

손자들을 키워본 경험이 있으셨던 어르신들은 나를 손자로 생각하시며, 숨겨뒀던 사탕과 카라멜을 몰래 먹으라며 손에 쥐어 주고 점심시간엔 밥을 드시다 말고 내밥을 가지고 오라고 시키신다. 밥을 반드시 먹으라고 하신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넉죽넉죽 사탕을 받아뒀다가 잠시 후 다시 드시라고 드리면 굉장히 좋아 하신다.]

세번째 역할, “의사선생님” 다리가 아프니까 파스를 달라고 하신다.

의사도 간호사도 아닌 나에게 “의사선생님” 나 어제 다리가 아파서 한숨도 못 잤어 파스 한 장만 줘 라고 부탁 하신다. [나는 의사 역할을 훌륭히 해내기 위해 오늘도 간호실에서 파스를 받은 뒤 “어르신~ 파스 너무 많이 붙이시는거 아니예요~”라며 의사 흉내를 낸다. 집에 와선 의학전문용어도 공부해봤다..]

네번째 역할, “기사양반”해 지기 전에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신다.

하루종일 배회하고 돌아다니시는 어르신들.. 젊은시절 밭에서 논에서 일만하시던 분들이라 해질녘이 되시면 빨리 집어가야한다고 차로 데려다 달라고 하소연 하신다. [난 할머니, 할아버님들에게 5시에 모셔다 드린다고 태연하게 말 한다.]

다섯번째 역할, “월급 안주는 사장님” 며칠씩이나 일시키고 임금을 안준다고 하신다. “사장님” 내가 여기 지금 며칠째 여기나와서 일하고 있는데 왜 일당도 하나도 안줘?“ 라고 하시면서 일당을 달라고 계속 따라 다니신다.

[난 며칠 더 일하셔야 임금이 나온다며 일 열심히 하시라고 한다.]

여섯 번째 역할, “자랑스러운 손녀사위”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신다.

이봐 “저기 저청년있지? 저거 우리 손녀사위야” 우리손녀가 글썄 이번에 엄청 큰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만난 사위야 글썄 너무 잘생겼지? 키도 크고? 할머니가 여기 있다고 일 좀 거들어 준다고 왔지 뭐야?

[나는 멋있는 손녀사위 역할을 훌륭히 해내기 위해 번쩍 번쩍 물건을 들어 옮긴다.]

일곱 번째 역할, “머슴” 우리집 일 거들어 주는 사람이야

할머니 1 : “어휴 저 총각 누구야?”

할머니 2 : “응~ 우리집 일 거들어 주는 사람이야~” 뭐 시킬거 있음 좀 시켜~

할머니 3 : “어이구 그래? 이봐 여기 물좀 가지고와 ~”

[예~ 어르신~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요양원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 밖에도 많은 역할을 하게 만드신다.

게임 이외엔 컴퓨터 사용할 일이 없던 내가 문서 작성도 거뜰히 해낸다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을 하실 때 필요한 악보나 그림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다.

이렇게 노력하다 보니..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인기가 많은 주인공이 되어 있었다.

복무생활을 하기 이전 나의 역할은 고등학교를 다니는 평범한 아이였지만..

지금 나는 매일매일 할머니, 할아버지들 세상에서 새로운 역할에 주인공이 된다.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바뀌는 역할들을 해보면서 22년간 겪어 본적 없었던.... 소중한 경험들을 체험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체험을 통해 그동안 별 관심없었던 나의 적성 나의 근성 나의 미래가 천천히 고개를 내미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나에게 무엇이 잘 어울리는지, 내가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게 되었다.



이상한 나라에서 1년 5개월이 지난 지금..

나는 이 이상한 나라에 빠져 버렸다.

나와는 절대 어울리지 않을 줄 알았던 이상하기만 했던 나라에

나는 진짜 주인공이 되고 싶다.

체험수기를 작성하기 전 과장님은 체험수기 공모전에 참가 해보라는 권유 하셨다.

처음엔 글재주도 없는 내가 수기를 작성 할 수 있을 거라곤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복무생활을 시작하기 전 사회복지무원으로 지내야하는 것이 아무 의미없을거라 생각했다. 만약 사회복지무원이라서 편하고 시간만 때우다가 재대할 것이라 생각하는 많은 친구들이 나의 체험수기를 읽게 된다면 조금은 생각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며칠동안 수기를 작성하면서 난 어느새 작가가 되어 있었다.

혹시 이상한 나라에 가 본적 있나요?

이상한 나라에 빠진 주인공의 앞날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무엇을 상상하든 난 그 상상 이상이 될거랍니다!!



“뭘하다가 왔니?”

소방서에서 군 생활을 하며
본인의 인생전환 경험들



이진성 (금산소방서)

1. 소방서 내의 특별한 작업들.
2. 겨울기간 동안의 소방서 생활.
 - 2-1. 제설 작업
 - 2-2. 타이어체인 작업
3. 여름기간 동안의 소방서 생활.
 - 3-1. 환경 정리 작업
 - 3-2. 소방교육
4. 소방서의 화재 출동.
5. 연말에 드리는 소화기 전달 행사.
6.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군 생활 경험에 의한 인생전환점.

소방서에 처음 온 날, 직원 분들께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었다.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다면 쉽게 대답할 수 있었을 텐데, 뭐 하나 이룬 것 없었기에 쉽게 대답할 수 없었다. 어릴 적 아버지께서 눈을 다치시는 사고를 목격한 후, 모서리 또는 날카로운 물건이 주위에 있으면 도망치고 싶고 집중을 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책상 모서리, 교과서, 샤프를 든 손, 칠판을 가리키는 막대기처럼 다른 학생들에게는 일상적인 일이 나에게는 버겁게 느껴졌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학업과는 멀어지게 되었다.

소방서에 오기 전, 하루하루가 홀로 사금파리가 박힌 길을 걷는 것 같았다. 부모님께서는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셨고, 가끔씩 집으로 들어오는 아버지는 집에 있는 어느 무엇이든 부수거나 어머니를 때리셨다. 결국 부모님은 이혼을 선택하셨고 동생과 나는 할머니께 맡겨지게 되었다. 하지만 할머니 덕으로 와서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할머니와 함께 살고 계신 작은 아버지 역시 술과 정신과 약을 달고 사셨기에 항상 할머니, 할아버지와 싸우셨다. 주어진 삶이 저주스러웠고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가 원망스러웠고 어머니의 품이 그리웠다.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곳이니 뭘 해도 나아질 거라 믿었지만, 계속해서 닥쳐오는 불행한 일들은 마치 나를 놀리는 것 같았다. 이런 송곳 같은 삶 속에서 집중하지 못하고 흔들리며 살아온 나에게 “뭘하다가 왔니?” 이 말이 너무나 날카롭게 다가왔다. 이런 가정환경에 의해 생긴 마음의 병을 가지고 공익근무요원으로 소방서에 첫 출근을 했을 때가 잊히지 않는다. 지금은 사회복지요원이지만 내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공익근무요원이었고 한 달 뒤인 2014년부터 사회복지요원이라는 이름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첫 출근은 소심하고 자기주장과 속마음을 남에게 잘 안보여주는 성격이라 걱정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소방서에 가기 싫은 것이 아니라 사람 목숨 살리는 곳에서 실수 안하고 잘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컸다. 이러한 두려움으로 인해 계속적으로 인터넷을 검색하며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소방서에서 하는 일을 찾아보기도 했었다. 이런 떨림으로 소방서에 출근하게 되었고 서장님과 직원 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화재진압을 담당하는 119안전센터라는 곳에 배정 받았다.

그렇게 배정을 받고 많은 일들을 차근차근 배우기 시작했다. 소방차 종류와 용도, 소방호스 정리하는 법, 청소 구역, 민원안내, 소방서 대원들 성함과 부서

등을 외우다보니 한 달이 숨 가쁘게 지나갔다. 한 달이 지나가니, 직원 분들의 얼굴이 눈에 익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점점 익숙해져갔다. 소방서의 생활도 점차 적응이 되어 처음에 우려한 근심과 걱정이 사라져 갔다.



금산의 겨울은 눈이 많이 내린다. 소방서에 처음 왔을 때도 겨울이었다. 소방서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차가운 밤공기와 손을 갖다 대면 스르륵 녹는 눈을 좋아했다. 하지만 근무 이후 눈의 의미가 달라졌다. 눈이 적게 오는 날은 출근하기 전, 의무소방원들이 새벽에 제설 작업을 하지만 눈이 많이 내리는 날은 출근 하고 또 제설 작업을 해야 한다. 처음 제설 작업은 생각 했던 것처럼 쉽지 않았다. 소방대원분들이랑 제설 작업 전용 삽으로 한곳에 다 모여서 구호를 외치고 동시에 삽을 다 같이 모아서 움직여 눈을 치우는 작업을 하는데 처음해보는 나로서는 눈을 치우는 속도를 같이 맞출 수 가 없었다. 그러나 직원 분들과 의무소방들은 경험이 많다보니 눈을 빠르게 치울 수 있었고 그 모습을 보며 제설 작업에 대해 많이 배웠다. 그렇게 눈을 다 치우고 나면 겨울인데도 등에는 땀이 흠뻑 젖는다. 제설 작업은 소방서에서 매우 중요하다. 안하게 되면 소방차 출동이 늦어지게 되고 위급한 환자, 화재 등 피해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몇 초라도 더 빠르게 출동 할 수 있도록 눈을 치워 길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소방차의 눈길 안전운전을 위해 바퀴에 체인을 장착하는 작업까지 한다. 이렇게 힘을 합쳐 제설 작업이 끝나고 타이어에 체인을 장착하고 나면, 추운 날씨에 함께 고생한 소방대원 분들과 의무소방원들이랑 따뜻한 곳으로 가 믹스커피 한 잔으로 몸을 녹이곤 한다. 제설 작업에서 힘들었던 얘기, 구급 나갔더니 눈 때문에 차가 언덕에 못 올라가서 사고 날 뻔 했던 얘기 등 많은 얘기를 나눈다. 잡담은 그 사람들과 더 친해 질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서먹서먹했던 기온도 조금 풀어지고 사람들과 편해진다는 느낌이 받을 수 있었다.

여름에는 무더운 더위 때문에 움직이기도 싫고 안에만 있고 싶지만 내가 맡은 청소 구역들을 청소를 마쳐야 하루가 끝난다. 청소는 소방서 안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들을 분리 수거해야 끝이 난다.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별로 유리병은 유리병대로 분리수거하고 분리수거 할 필요 없는 쓰레기들은 100리터 봉투에 담아 버린다. 음식물 쓰레기는 더운 여름에는 냄새 뿐 만 아니라 치우다가 손이라도 묻으면 기분도 짹짹하고 손을 씻어도 냄새가 가시질 않을 정도로 독한 냄새가 풍긴다. 혼자 불평도 부러보고 바쁜 날에는 하루 종일 앉아 있을 시간도 없을 때도 있다. 그러다 언젠가 직원 분이 너스레, “네가 없으면 소방서가 돌아가질 않아”라는 말을 하신 적이 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별것도 아닌데,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때 까지 쌓였던 불만이 한순간에 없어지고 장난 식으로 하신 얘기지만 말 한마디가 지친 몸과 마음에 힘이 되어 더 열심히 청소와 일을 찾아서 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유치원 애들이 심폐소생술 교육과 물소화기 교육을 받으러 오는 날이 많다. 심폐소생술 연습용 ‘애니’를 꺼내 놓고 물소화기 등을 준비를 해놓는 과정이 귀찮다가도 막상 아이들을 보게 되면 그러한 마음이 싹 가신다. 그들을 보자면 익숙하지 않은 곳에 와서 울보처럼 훌쩍 훌쩍 우는 아이도 있고 처음 접하는 모든 게 신기 하듯이 말도 안 듣고 뛰어 다니면서 구경하는 애들도 있다.

말도 안 듣고 말썽꾸러기지만 교육 받을 때만큼은 어른스럽게 질문도 잘한다. 어린이들의 푹푹푹한 눈동자들이 한곳에 모여 나를 쳐다보면 부담스럽고 긴장된다. 처음 교육 한날은 기대 이상으로 많은 애들이 모여 있는걸 보고 입술이 떨어지지 않고 머리가 멍해졌다. 긴장한 나머지 말도 더듬거렸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게 교육을 해버렸다. 그것을 눈치 챈 소방반장님이 도와주어 무사히 끝냈지만 난생 처음 했던 교육을 망쳐버린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의기소침해져 있자 반장님은 처음이라 그럴 수 있다고 다음부터 교육하기 전에 한번 연습과 말하기 전 생각을 하고 말하라고 조언을 주셨지만, 나에게 교육을 받은 애들한테 너무 미안했다. 방화복을 입히는 도중에 애들한테 “애들아 미안해 다음에 오면 실수 안하고 교육 잘 시켜줄게.”라는 말을 하자 아이들은 웃으면서 재미있었다고 했고 그런 아이들의 마음에 고마움을 느꼈다.

그 이후 다음에 교육 받으러 오는 아이들에게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잘 알려

주자는 마음을 가지고 부단히 연습했다. 단단히 마음먹고 ‘잘 해보자’라는 굳은 결의를 갖고 행동하니 물 흐르듯 편하게 알려 줄 수 있게 되었다. 교육을 무사히 마쳐서 아이들에게도 좋은 경험을 주고, 아이들이 안 다치고 무사히 유치원으로 돌아 갈 수 있어서 뿌듯했다. 그리고 스스로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평소에는 출동을 나가지 않지만,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딱 한번 화재 현장에 나간 적이 있다. 처음 나가보는 화재현장은 긴장과 숨이 멎을 정도로 다들 빠르고 신속하게 움직였다. 한 할머니가 소방대원들이 오기 전 화재를 직접 끄시려하셨는지 할머니의 머리카락이 대부분 타있었고 재로 옷은 검게 염색되어있었다. 그러다가 긴장과 무서움으로 다리에 힘이 풀리셔서 그 자리에 주저앉으시더니, 걱정 해주는 소방대원들한테 “잘못했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하셨다. 집으로 화재는 번지지 않고 다행히 피해는 없었지만, 할머니께서는 몸과 마음이 엉망진창으로 보였다. 할머니는 소방대원들에 보살핌 끝에 구급차를 타려고 하자 병원 안가도 된다고 잘못했다는 말만 또 반복 하셨다, 소방대원들이 머리에 화상이 입으셔서 병원 가야된다고 설득 하는 모습이 자기 어머니 처럼 대하는 것 같이 인상 깊었다. 설득 끝에 할머니는 구급차를 타고 가시고 직원 분들은 뒷정리를 시작 했다. 현장에서 쓰던 소방호스는 검게 변했고 소방대원들의 얼굴과 옷은 검은 재 투성이었다. 그런 소방관들의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느꼈다. 하루하루 긴장 속에서 사는 소방관들은 모든 사람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노력과 자기 얼굴이 검게 변해도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다. 모든 사람들을 자기 가족처럼 귀중하게 생각하시고 출동을 나가게 되면 불평, 불만을 절대 하지도 않으시고 밥도 거르시고 항상 모든 사람을 위해 애쓰고 노력 하시는 분이다. 그런 소방대원들의 모습을 보며 스스로 얼마나 부족했는지 반성할 수 있었다.

그리고, 소방서에서는 연말이 되면 혼자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께 소화기를 나눠 드리러 나간다. 한번은 나도 따라 나가게 되었다. 길이 좁아 소방차를 멀리 주차하고 집을 찾는데 골목이 많아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집은 허름



하고 아무도 안사는 것 같았다. 그러나 어느 한 구석에서 백발이신 허리가 굽은 할머니 한분이 나오셨다. 할머니는 소방서에서 나온 우리를 보고 자신이 뭘 잘못했냐고 물어 보셨다. 나는 그게 아니라 소화기를 나눠 드리려 왔다고 말씀 드렸고 할머니는 그게야 긴장이 풀리셨는지 얼굴이 편해지셨다. 할머니께 소화기를 나눠드리고 소화기 사용법을 알려 드렸지만 할머니께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셨다. 그렇지만 할머니는 멀리서 와줘서 고맙다고 살갑게 해주셨다. 그렇게 첫 소화기를 나누어드리고 다른 할아버지, 할머니 댁으로 이동하였다. 대부분 혼자 사시는 독거 노인들이었다. 처음에는 대부분 소화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모르셨다. 어떤 분은 집을 찾았지만 허름하고 나무로 된 문에는 자물쇠가 잠겨 있었다. 아무런 응답이 없어 주위의 노인 분들께 안부를 여쭙봤더니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다. 한순간 멎혀졌다.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 않았다. 여기 사시는 분들 대부분은 자식들 없이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신다고 한다. 낡고 더러운 집을 보며 사람 손이 오랫동안 닿지 않은 집에서 혼자 살고 계셨던 할머니의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아팠다.

모든 집에 소화기를 갖다 드리고 소방차를 타고 소방서로 돌아오는 동안 많은 생각이 들었다. 대부분 혼자 사시며, 대부분 옛날 집이고, 건강도 좋지 않으셨다. 또한 낯선 사람을 상당히 경계를 하셨다. 그러나 소화기 사용법을 알려 드릴수록 말도 많아지셨고 사람을 그리워하는 눈을 볼 수 있었다. 그 분들께 소화기를 갖다 주는 것이 단순히 화재 예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을 주는 일임을 느낄 수 있었다.

어느덧 24개월 중 6개월도 안 남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느린 듯 빠르게 지나간 시간이었다. 소방서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경험을 통해, 노력 한다면 노력한 걸 인정 해주고 믿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 처음에는 서툴지만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느리더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지금 내 옆에는 아픈 사람을 위해 달려 나가는 구급대, 화재가 나면 소방차를 타고 내 집인 듯 걱정에 가득 찬 얼굴로 출동에 임하는 화재진압대. 그리고 위험한 동물과 사고를 당한 사람 위해 몸을 아끼지 않는 구조대 분들이 있다.

현신적으로 매순간 최선을 다하는 대원들의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출동하는 뒷모습을 보면 119라는 숫자가 적혀 있다. 그 숫자를 보며 소방대원의 자부심을 느낀다.

소방서에 오고 난 후, 많은 것이 달라졌다. 아버지께서는 늦게 철이 드셨는지 노력 하는 모습이 보인다. 작은 아버지도 정신과 약을 안 먹어도 괜찮을 정도로 좋아지셨고 술도 많이 줄이셨다. 마음이 편하니 여유가 생긴다. 그 동안 나는 마음에 가시를 품고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날을 세웠다. 그러나 소방서 생활을 하며 남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면서 사람들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과거에는 하루하루에 얽매이고 버티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미래를 생각 할 수 있게 되었다.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하며 가장 크게 느낀 건 결국 ‘본인이 행동하기 나름’ 이라는 거다. 성실하게 생활하다보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자기 업무를 대충하면 몸은 편할지 모르지만 사람의 미움을 받게 된다. 또 한 가지 느낀 것은 노력하면 느리더라도 언젠가는 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은 6개월 동안 무엇을 할지, 소집해제를 하고 취업 준비는 어디로 할 것 인지 고민이 든다. 최근에는 영어공부를 시작하고 있다. 어렵지만 노력하면 느리더라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무요원으로 소방서에 들어와 많은 사람들과 지내면서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했다. 사람을 믿을 수 있게 해주고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갖게 해준 소방서는 참 고마운 곳이다. 앞으로도 소방서에서 배웠던 교훈을 잊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이다. 우리 사회복무요원들 다치지 말고 자기가 할 일을 성실하게 하고 사람의 마음과 웃음을 얻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

사회복무는 배움의 기회

경험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조 건 희 (서울도시철도공사)

지하철은 버스와 함께 가장 보편적인 대중교통 중 하나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 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매일 지하철을 찾는다. 모두 지하철역이라는 한 장소에 있지만, 각각 다른 목적과 감정으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지하철의 매력이 아닐까? 가기 싫은 재수학원을 억지로 가야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꿈꾸던 대학생활을 맞이하는 패기에 찬 신입생도 있을 것이고, 사귀지 얼마 안 된 애인을 만나러 가는 설레는 발걸음이나 오래된 연인과의 헤어짐을 직감한 무거운 발걸음도 공존하고 있을 것이다. 실타래처럼 수 없이 많은 감정들이 엉켜있는 것을 보면 지하철은 어떤 감정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다중 인격자 같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이런 수많은 감정들 중 하나였다. 부모님과 싸워서 얼굴이 굳은 채로 지하철을 기다리기도 했고, 시험을 잘 봐 지하철이 5정거장 전에 있어도 기분 좋게 기다리던 적도 있었다. 나는 승객들 중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내 감정에만 충실하면 됐다. 어차피 주변사람들은 지하철만 같이 기다릴 뿐이지 현재 나와 다른 감정을 가졌다고 해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시철도공사에서 사회복지무원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내 입장은 180도 달라졌다. 지하철의 직원과 사회복지무원은 그 감정 하나하나를 상대해야 하는 것이 가장 주된 업무이다. 승객일 때는 무심코 스쳐 지나쳤을 그 복잡한 감정들을 사회복지무원이 되자 유심히 살펴야했다. 똑같은 부탁을 해도 승객분의 감정이나 성격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 예를 들면 화장실이 어디냐는 간단한 질문에도 그날 기분이 좋으신 분은 방향만 가르쳐드려도 웃으시며 감사하다고 하는 반면, 기분이 안 좋은 분은 자세하게 가르쳐드려도 모르겠다며 데려다 달라고 짜증을 낸다.



하지만 나는 자신이 있었다. 나름 인간관계 형성을 잘해왔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눈치가 좀 있는 편이라 적어도 사람들에게 미움 받지 않는다는 자부심이 내 마음 한 곳에 존재했다. 실제로 지하철에 복무하면서 많은 사람을 대하는 것이 크게 힘들다고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내 이런 자부심은 2번의 시각장애인 안내를 하면서 산산조각이 나게 된다.

역지사지

어느 날 무전이 왔다. 자주 있는 시각장애인 안내였다. 열차번호와 칸 위치를 듣고 가벼운 마음으로 시각장애인분을 기다리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별 탈 없이 안내를 해왔기 때문에 부담은 없었다. 열차를 기다리는 승객들의 잡담 소리를 들으며 퇴근하면 뭐 할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쯤, 시각장애인이 타신 열차가 도착했다. 이 분은 매우 유쾌하셨다. 친근하게 말을 이어 나가시는 게 흔히 말하는 옆집 아저씨 느낌이였다. 그러나 환승열차를 기다리는 7분 동안 아저씨가 해주신 얘기는 아저씨의 유쾌함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였다. 결혼하신지 1년 만에 시각을 잃으셨다는 것, 시각을 잃으신지 10년 정도인 것, 교회에 다니며 신앙심으로 버티고 계시다는 것, 주변의 시각장애인분들 중 자살하시는 사람들도 많이 계시다는 것 등.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아무 생각 없이 곧 오는 열차의 번호와 위치를 말하는 나에게 던진 “그걸 어떻게 다 알아요?”라는 질문이었다. 아저씨는 시각을 잃으시기 전, 즉 10년 전의 지하철 모습만을 기억하고 있었다. 요즘에는 당연히 있어야하고,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스크린 도어나 열차의 번호, 위치, 도착 예상시간을 알려주는 모니터를 아저씨는 본적이 없던 것이다. 순간 나는 매우 부끄러웠다. 내 머릿속은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아시겠지 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던 것이다. 나에게 익숙한 것이라고 너무 막 애기한 것이 아닐까? 그 전 대화에서도 이러한 잘못을 몇 번 했다는 것도 알게 됐다. 투정부리듯이 말한 “천호역은 다른 역에 비해 사람이 너무 많고 복잡해요.”같은 말은 시각장애인 분들이 이해하기 힘든 말이었다. 그 분들은 바뀐 역의 구조나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쉽게 알아채기 어렵기 때문이다. 심지어 다른 역과 비교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아저씨를 만나고 난 후 사람을 잘 대하고 있다는 나의 자신감은 박살이 났다. 사람들의 처한 진짜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해야한다는 것, 그렇게 하려면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배웠다.

오지랖

아저씨와의 충격적인 만남 이후에 나는 특히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더 많은 친절과 배려를 베풀려고 노력했다. 하나하나 더 생각해보고 말하고 행동하며 불편하신 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자 애썼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나는 아저씨와는 또 다른 충격을 선사해 주실 시각장애인을 만나게 된다. 무전기에서 2명의 시각장애인이 같은 칸에 타고 계신다고, 안내를 부탁한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2명을 동시에 안내하는 것은 처음인지라 당황했지만, 그 분들은 익숙하신 것처럼 보였다. 서로 손을 잡으시더니 한분의 팔이 어느새 내 팔 위에 올라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치 하교하는 학생들처럼 일렬로 서게 되었고, 나는 쉽게 안내를 시작할 수 있었다.

이분들은 시각장애인 부부였다. 남편 분은 과묵하셨지만, 아내 분은 활발한 성격을 소유하신 분이셨다. 2명을 같이 안내해야 했기에 나는 계단 하나하나를 더욱 조심하며 안내를 시작했다. 하지만 안내 중에 아내 분이 갑자기 안내를 받지 않고 직접 안내를 하시기 시작했다. 마치 눈이 보이시는 듯이 나와 남편 분을 이끌고 환승 승강장까지 가신 것이다. 당황해 어찌 할 줄 모르는 나에게 아내 분이 “너무 친절하실 필요는 없어요. 도와달라는 것만 도와줘요. 하나 하나 너무 신경써주시면 오히려 기분나빠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라는 말을 해주셨다.

나는 순간 시각장애인을 깊이 이해한답시고 되지도 않는 오지랖을 떨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시각장애인 분들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계단 있어요.”, “조심하세요.”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쁠 것이다. 너무 자신을 약자로 무시한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을뿐더러, 개인이 소지한 안내 지팡이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의 시각장애인 아저씨를 너무 의식해 실수를 한 것 같다. 시각장애인 부부를 만나기 전까지 분명 내 안내에 기분이 나쁘셨을 분이 있을 것 같아 죄송스러웠다. 장애인들을 대한 적이 없던 나는 그 분들을 너무 특별하게 생각했던 것이다. 장애인 분이라고 특별히 생각한 것 자체가 그분들에게 실례이며, 어리석은 짓이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뭘 더 해드려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처럼 그 분들의 기분에 맞춰드리고 그 분들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것들만 찾아서 하면 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깨달았다. 물론 장애인 분들의 안전은 일반인들보다 더 신경 써야 하겠지만, 다른 부분에서까지 장애인 분들을 너무 특별한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

경험은 정말 중요한 것 같다. 천호역에서 사회복무를 하며 가장 좋았던 점은 내가 여태 해보지 못한 경험들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119를 직접 불러보고, 112에 직접 신고도 해보고, 이동 상인들을 규제하고 응급환자를 돌보는 것 등. 장애인 분들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고, 얘기를 나눈 것도 나에겐 처음이었다. 일상에서 이런 경험들을 해보기란 쉽지 않다. 특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을 제외하면 평생 살면서 1, 2번 경험하기 힘든 것들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처럼 이런 경험들은 내게 큰 힘이 되고 배울 기회를 준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일상에서 119나 112에 신고할 때 더욱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환자들을 더욱 신속하게 응급처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복무만이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질 것이다. 남은 복무기간이 아직 많은 만큼, 그 만큼의 새로운 경험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배우는 마음으로 복무를 해야겠다고 다짐을 해 본다.



I LOVE YOU



홍 현 기 (강서교육지원청)

시작

2014년 7월 11일, 한 달여간의 훈련소생활을 마치고 교육지원청으로 출근하는 날이다. 사실 낮은 확률의 행정보조를 노리고 교육지원청을 본인선택으로 지원했지만 결과는 장애학생활동보조였다. 지금까지 살면서 장애인과 말을 섞어 본 적도 없고 몇 시간을 함께 보내 본 적도 없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지도 몰라서 너무나 걱정되었다. 불안함을 가지고 배정받은 학교의 도움반에 들어가니 두, 세 명의 아이들이 있었다. 학교에 장애학생들이 많아 두 반으로 나누다 보니 선생님 두 분, 보조 선생님 한 분으로 총 세 분이 계셨다. 정말 다행이었던 것은 선생님들 모두가 좋아 보이셨다는 것이다.

다운증후군이던 아이가 첫날부터 낯가림 없이 팔짱도 끼고 말도 많이 걸어줬지만 평생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었기에 어안이 병병한 채로 기계적으로 대답만 해줬다. 새로운 환경과 사람들을 보다보니 정말 하루 종일 정신없이 앉아 있기만 했다.

그렇게 나의 긴 2년짜리 복무가 시작되었다.



느리지만 시작된 변화

다행인지 불행인지 학교에 한 달 조금 안되게 출근하니 금세 방학이 시작되었다. 아이들과 학교에 적응할 새도 없이 방학이 시작되다 보니 개학이 지나고도 적응하는데 애를 먹었다. 워낙에 내가 낮을 많이 가리고 내성적이다 보니 거의 몇 달이 지나도 완전히 적응하지 못하고 걸도는 느낌이었다. 물론 선생님들이 좋으셔서 잘 챙겨주시고 했지만 사회생활 경험이 없는 나로서는 선생님들을 어찌 대해야 되고 내 친구들과는 대화주제가 많이 다르기에 무슨 말들을 섞어야 되는지도 몰랐다. 담당선생님이 이런 나의 생각을 아셨는지 나와 한 반으로 지내면서 생활 속에서 작지만 필요한 것들을 많이 알려주셨다. 사실 알려주신 것들 대부분이 알고 있는 것들이었지만 부끄럼이 많아 쉽사리 행동으로 옮기진 못했다.

우리 도움반 아이들과 선생님들이랑 생활하며 선생님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많이 배우며 조금씩 적응해가다 '내가 변하고 있구나' 라고 강하게 느끼는 계기가 생기게 되었다. 2014년 11월 13일 정확히 수능날 아침, 평소 편찮으시던 외할머니가 입원해 계시는 병원에 병문안을 가던 중 외할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모든 외가 가족들이 원래 외할머니가 계시던 곳에 장례식장을 잡고 모두들 그곳으로 내려갔다. 장례식장에 3~4살짜리 여조카 2명이 오게 되었는데 원래 아이들을 좋아하던 여동생은 금방 잘 놀아주고 나는 예전처럼 그저 눈으로만 반가운 얼굴을 볼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평소 도움반 아이들은 대하는 것처럼 전혀 어색하지도 않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과 표정, 하이톤으로 조카들을 반기고 놀아주고 안아주는 나를 발견했을 때는 너무나 놀랐고 말로는 뭐라 하지 못할 오묘한 기분과 웬지 모를 뿌듯함이 느껴졌다. 복무생활로 도움반 아이들과 부대끼며 지내온 몇 달이 나를 이리도 크게 바꿔 놓을 줄은 몰랐다. 이 일이 있던 후부터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내 자신이 변하고 아이들과 놀며 선생님들과 생활하고자 다짐했던 것 같다. 학교로 돌아와 장례식에서 느끼고 생각한 것들을 선생님들에게 말씀드리니 "너 처음 왔을 때보다 많이 달라졌어, 달라졌다는 게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변했어, 항상 웃고."라는 대답을 들었다. 이미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일 정도로 변하고 있었지만 정작 나만 몰랐던 것 같았다. 그 해 겨울 방학에도 행정실 선생님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같은 말을 들었다.

다짐대로 느리지만 조금씩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던 것이다.

미안함과 발전

각 반을 맡고 계시던 담당선생님들이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시게 되었다. 전근은 선생님들의 선택이었지만 아직 배울 것도 많고 잘 생활하였기에 너무 아쉬웠다. 지금도 가끔 연락하며 종종 보지만 같이 생활하던 그때가 그리기만 하다. 그렇게 남은 공석을 채우기 위해 남자 선생님과 여자 선생님이 한 분씩 오시게 되었다. 나는 남자 선생님과 같은 반으로 생활하게 되었는데 같은 남자이고 나이도 크게 차이나지 않아 금방 친해지게 되었다. 사실 시간적으로 금방은 아니지만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내 입장에서는 빠르다고 말할 수 있다.



선생님들과 함께 새로이 1학년들이 입학하게 되었는데 작년 졸업한 아이들에 비해 장애정도가 굉장히 경한 아이들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언뜻 보면 일반학생으로 알 정도로 경했다. 아이들과의 의사소통이 쉽사리 가능해서 장난도 많이 치고 놀기도 많이 놀고 혼내기도 많이 혼냈다. 아이들과 항상 재밌게 놀다보니 다른 사람들에게 “장애학생활동지원으로

복무중이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항상 “힘들지 않아?”라고 묻는다. 그럼 난 “아니, 난 그냥 아이들이랑 노는데”라고 항상 똑같은 대답을 한다. 남자 선생님도 특수교사로 일한지 1, 2년밖에 되지 않아 항상 나에게 “어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일까?”라고 묻는데, 그럼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를 강요하지 않고 그냥 같이 놀면서 재밌게 학교생활 하게끔 도와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이렇듯이 난 우리 아이들을 항상 좋아하고 호의적이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보지 않는 세상도 존재하고 앞으로 아이들이 마주할 차가운 현실이 있는 것 같다. 6월초에 각 학년 수련회와 수학여행이 계획되어 있었다. 우리들은 학년 구분 없이 다같이 3학년 수학여행을 따라가기로



했지만 대다수의 아이들이 어려운 경제상황인데 아무런 지원 없이 적지 않은 경비를 요구하다보니 1학년은 남자 두 명을 제외하곤 전부 가기를 거부했고 애초 계획과는 달리 모두들 본인 학년에 맞는 곳으로 따라 가기로 결정되었다. 가장 힘든 아이가 포함된 3학년은 남자 선생님이, 여자아이들이 포함된 2학년은 여자 선생님과 외부 일용직 선생님이 맡고 장애정도가 1학년 중 가장 경한 남자아이 한 명과 뇌병변으로 한쪽 팔과 다리가 불편한 남자아이 한 명. 총 두 명을 내가 맡아 지원을 가게 되었다. 장애정도가 경한 아이는 충분히 수련회 프로그램을 따라 갈 수 있기에 걱정 없었지만 뇌병변으로 불편한 아이가 걱정이었다. 하지만 걱정과 달리 수련원 선생님들이 아이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같은 반 아이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협조해주었다. 어찌 보면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는 배려지만 나는 너무나 고맙게 느껴졌다. 이런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있는 반면 오히려 장애정도가 가장 경해 아무런 걱정 없을 것 같던 아이가 문제였다. 충분히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데 단지 도움만 아이라는 이유로 학생들 모두가 같은 조별로 묶이는 것을 꺼려했고 그것을 대놓고 표정이나 행동으로 표현하는 학생도 있었다. 그것을 보고 나는 아예 그 아이를 빼서 나와 함께 조를 이뤄 활동할지 아니면 수련회의 목적에 맞게 같은 반 친구들과 협동하며 활동 하게 두어야 굉장히 고민했었다. 결국 후자를 선택하였고 작게나마 옆에서 응원하고 도움만 주었다. 나에겐 너무나 예쁜 아이들이지만 뇌병변이 있는 학생은 고집이 있어 무엇인가를 시키면 행동이 매우 느리다. 그리고 장애정도가 경한 아이는 아침에 약을 먹이지만 저녁쯤 지나면 약효가 떨어져 과잉행동이 심해져 산만해지고 말도 많아지며 과격해진다. 밤이 될 때마다 한 아이는 과잉행동이 심해지고 다른 아이는 말을 듣질 않거나 스스로가 짜증이 많아져 그 짜증이 직접적으로 아이들에게 향했다. 큰소리로 혼내고 욕박지르기도 했다.

그렇게 수련회 마지막 밤, 레크레이션과 장기자랑을 끝내고 반마다 담임선생님과 과자파티가 있었다. 뇌병변이 있는 아이의 담임선생님이 나에게 찾아와 “과자파티가 있는데 이 아이는 힘들겠죠?” 라고 물었다. 물론 아이가 굉장히 피곤해하고 반 파티에 내가 끼어 직접적으로 보조를 할 수 없어 그냥 재울 생각이었지만 선생님의 말에서 살짝 기분이 나빠졌다. 선생님은 절대로 나쁘게

말할 의도가 없었겠지만 “과자파티가 있는데 아이도 같이 데려갈게요”라는 등의 긍정적으로 말해줬다면 좋았을 것을. 결국 두 아이를 씻기고 재우기 위해 불을 끄고 잠자리에 누웠다. 장애도가 경한 아이가 수련회 마지막 밤이 아쉬웠는지 잠을 안자고 나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다. 솔직히 나도 하루 종일 아이들을 보느라 피곤하여 대화조차 귀찮아했다. 그러더니 아이가 일어나 베란다 쪽에 앉았다. 윗 층에서 아이들과 선생님이 과자파티를 하며 재밌게 떠드는 소리가 우리 베란다 안으로 흘러들어왔다. 아이는 한동안 그 소리가 시끄럽다 말하며 가만히 앉아있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갑자기 “재밌겠다...”라고 말하는 것 이었다.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래서 물었다. “재밌을 것 같아?” 아이는 “네”라고 대답했다. 대답을 하고 베개를 들더니 내 옆으로 와서 눕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한 말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 “선생님, 쓸쓸해요. 선생님, 사랑해요”라고... 지금까지 아이에게 짜증냈던 것, 그 아이가 받아야 했던 시선이나 대우들, 앞으로도 있을 그런 세상들을 생각하니 그 아이에게 잘해주지 못하고 짜증냈던 것들이 너무나, 너무나 미안해서 눈물이 났다. 혼자 감당하기엔 힘들어 밖으로 나와 남자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런 저런 상황이 있었고, 아이가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모두 알려들었다. 미안함과 안쓰러운 마음에 통화하는 내내 울었던 것 같다.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선생님도 나와 똑같은 감정들을 느끼셨다고 했다. 특수교사는 아이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끝인데 아이들이 불쌍하다는 말과 함께 아마 다 같이 왔다면 이런 생각이나 감정을 못 느꼈을 것 같다는 말을 하셨다. 정말 공감했다. 마지막에 나에게 “아이들에게 미안해하지만, 네가 같이 가준 것 만 으로는 다 해 준거야”라고 말씀해주셨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화장실에서 몇 분을 울었던 것 같다.

긴 일정을 끝내고 돌아와 다음 날에 남자 선생님이랑 이런 저런 이야기도 하고 하소연도 하며 이야기를 하다가 “저는 지금까지 아이들에게 하는 행동, 생각, 마음들이 지금이 최고이자 최선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발전을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서 그게 아니라고 느꼈어요. 이걸 깨고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행동, 생각, 마음들이 더욱 길게 뻗어있을 수 있고 이번을 계기로 발전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는다. “특수교사 생활을 10, 20년 하신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항상 아이들 때문에

발전한다고 하더라”. 이 이야기를 듣고 1년을 복무했지만 10, 20년 하신 선생님들과 같은 수순을 밟고 있다는 생각에 내가 정말로 아이들을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진심으로 느꼈다.

앞으로 1년

앞으로 1년이 더 남았다. 지금까지 한 것을 보면 절대로 긴 시간이 아니다. 남은 1년 동안 아이들과 어떻게 더욱 재밌게 생활할지 또 어떠한 계기로 또 다시 발전할지, 나 스스로가 변화하고 무엇을 느끼고, 생각을 할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가 아이들을 진심으로 너무 좋아한다는 것이다. 어쩔 때는 그냥 아이들 얼굴만 봐도 저절로 아빠미소가 지어진다. 그리고 앞으로 6개월 뒤 먼 3학년들은 졸업이다. 3학년들은 나랑 중학교시절을 반 이상 같이 보낸 아이들이다. 그래서 더 애착이 가고 문제행동이 심해 주요인물인 아이한테 뽀뽀 많이 맞았지만 하는 짓을 보면 절대로 미워할 수 없는 아이이고 내가 가장 예뻐하는 아이 중 한명이다. 이 아이들이 졸업하면 정말 보고 싶을 것 같다. 그래서 요즘 남는 게 사진뿐이라고, 사진이라도 많이 찍어 아이들이 졸업해도, 나의 복무가 다 끝나고 10년이 지나도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고 끝까지 간직하고 싶은 마음뿐이다. 앞으로 1년 남았다. 마지막까지 좋은 마음으로 끝내고 싶다.



작은개울이 모여 큰 바다를 향해 나아가듯 나의 작은 행동이 모여 이룬 큰 결과



이 민 권 (한국철도공사)

바쁜 대학생활 후 나는 어느덧 국방의 의무를 할 때가 오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1달간의 훈련소 훈련을 수료하고 다음날
한국철도공사 수도권 동부분부에 가서
내가 근무하게 될 역을 배정 받게 되었다.
그리고 담당자분이 나의 이름과 함께 불렀던 역은 “광운대~”
그렇게 나의 20대의 새로운 황금기는 시작되었다.

순탄하지 않았던 첫 시작

첫날 혹여나 지각할까봐 7시에 일어나 빠르게 씻고 아침을 먹고 첫 근무를 하러갔다. 전날 봐둔 교통편을 통해 30분 먼저 도착하였다. 모든 것이 어색했던 순간이었다.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 ‘내가 이곳에서 적응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만 앞섰다. 다른 동기들도 속속 도착하고 팀장님께 교육을 받고 선임들에게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게 되었다. 얼마 후 갑자기 선임께서 무전을 받으시더니 “야 노숙자 정리하러 갈사람?”이라고 물어보셨다. 주사도



먼저 맞아본 사람이 낫다고 “저요!”와 함께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객정리라는 것을 해보았다. 열차 안으로 들어간 순간 의자에 당당히 혼자 누워있는 허름한 차림의 한 남자 누가 봐도 노숙자라는 것을 알았고 처음이라 옆에서 선임이 하는 것을 따라하여 여객 정리에 대해 알게 되었다. 생각보다 쉬웠다. 그러나 그 생각은 얼마 가지 못하였다. 2주도 안되어서 우리역의 사회복지무요원이 부족하여 처음으로 혼자 근무하게 되었다. 그날 나는 최악의 난관에 부딪치게 되었다. 열차 한칸을 가득채운 구역질이 나올만한 냄새 그리고 그 칸 구석에는 노숙자 한명이 있었다. 난생처음으로 헛구역질을 했으며 열차 밖으로 나왔다 다시 들어갔다 수 십 번 반복한 끝에 그를 내보낼 수 있었다. ‘나는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 사회복지무요원으로 오면 다들 매일 앉아만 있고 일도 안한다는데..’ 라는 생각만 하였다. 그렇게 첫 한 두 달은 왜인지 하루에도 많은 유실물전화와 민원전화로 인해 바쁘기 일 수였다.

사람은 적응하기 마련이다

사람은 어떤 환경이든 적응하기 마련인가보다. 첫 한 두 달은 정말 힘들었다. 열차는 고장 나 기교체(고장 난 열차 두고 정상적인 열차로 운행을 재개하는 작업)가 일상이었고 수많은 유실물 전화 노숙자, 취객 등 너무나 많은 일이 나를 괴롭혔다.

그러나 그것도 거기까지였다. 어느덧 후임이 한두 명 생기고 선임들도 속속 떠나가니 점점 내가 선임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한 날 속에서 나는 이제 어떠한 일도 막힘없이 해나갔다. 노숙자?, 취객? 하나도 더 이상은 힘들어하지 않았다. 바뀌지 않은게 있다면 처음 들어왔을 때 처림의 마음가짐이다. 일하면서 불평한 적이 없다. 왜냐고 묻는다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니깐 항상 30분전에 출근하였고 직원분이 시키시는 일은 그냥 아무 말 없이 꾸준히 해왔다. 휴가(연가)는 한 번도 쓰지 않았다. 그냥 하다 보니 일하는 것이 재미있어졌고 꾸준히 하는 나의 모습에 보람을 느낄 수 있어 좋았다. 그렇게 바쁘지만 그렇게 일상이 되어버린 근무 속에서 생각하지 못한 선물이 왔다.

일상 속 내가 몰랐던 작은 변화

어느 날 팀장님께서 “본부장표창을 받을 사람을 뽑아야하는데 누구 뽑을까 생각중인데 난 너에게 한 표를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몇일 후 중학교 이후 처음으로 상을 받아보았다. 그리고 그날 ‘내가 과연 이 상을 받을 때 까지 내가 한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보았다. 생각한 결과는 놀라웠다 나도 모르게 그저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근무했던 일상 속에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변화하고 발전해나가고 있었다. 항상 자동적으로 7시정도에 일어나게 되었고 혹시나 모를 취객이나 노숙자의 돌발행동에 대비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시작한 운동으로 살이 빠지고 몸이 과거에 비해 탄탄해졌다. 또한 수많은 민원처리로 인해 성격 또한 대담해지고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다. 외국인들을 안내하면서 나의 영어 회화에도 자신감이 생겼으며 그 덕 인지 학원을 다녀도 오르지 않던 토익시험성적이 조금씩 오르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묵묵하게 꾸준하게 근무를 하는 모습에 있어 직원 분들이 알아주셨고 나를 많이 믿어주시게 된 점이 가장 큰 변화라 생각한다. 그래서 나에게 그런 큰상을 주신 거라 생각된다. 그저 평소에는 일하고 퇴근 하겠지 라고 생각했던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생활이 나에게 있어 큰 영향을 준 셈이다. 이날 난 철도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점에 있어 뿌듯함과 자긍심을 느꼈다.

나비효과

표창을 받고 어느 때와 다름없이 야간 역사 순찰을 돌던 와중에 승강장에 놓여있는 한 봉투를 발견했다. ‘어휴 누가 또 이런 걸 놓고 갔을까’ 라고 생각하며 봉투를 들고 역무실로가 직원 분께 인계하였고 팀장님이 내용물 확인을 위해 봉투 속을 보았을 때 놀란 표정으로 봉투 속에 돈다발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액수는 무려 1,900만원상당의 돈이었다. 즉시 팀장님께서 전 역사에 돈이든 봉투주인을 찾고 있으니 찾으러 오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역으로 안내해달라고 알리셨다. 그 후 주인이 와서 찾아갔다. 그는 빗을 갠을 마당에 오히려 큰 빗을 졌다는 말과 함께 가셨다.





놀랍게도 그 돈은 빚을 갚으려고 인출한 돈이었고 직원 분들은 다들 만약 그것을 못 찾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셨다. 혹여 누군가 그 봉투를 발견하고 가져갔다면 봉투는 찾기 힘들었을 것이었다. 직원들은 나에게 수고했다며 큰일을 했다고 하셨고 몇일 뒤 지역신문사에 이러한 일이 기재되었다. 그저 무심코 평소처럼 하는 나의 작은 이런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점에서 놀라웠다. 내가 근무하는 일이 또 중요하다고 느낀 것은 두 명의 시각장애 소녀 두 명을 안내 해줄 때였다.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시험이 역사 근처 학교에서 열리곤 하는데 그 시험당일 두 명의 소녀가 한손에는 시각장애 안내견의 목줄을 꼭 잡고 내렸다. 시험시간은 다가오고 있었고 나와 동기는 두 명의 아이들의 손을 잡고 시험장문까지 가 기다리고 있던 지인에게 안내해주었다.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그 시험장까지 가는 일은 누워서 떡먹기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 그 시험장은 마치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등산가처럼 어려운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바로 그런 이들을 위한 우리에게는 작고, 쉬운 행동이 그들에게 큰 도움이었을 것이다. 나에게 사회복지요원은 그저 유실물을 찾아주고 노약자나 장애인 분들을 돕는 것은 그저 수많은 일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지만 나에게 있어 이런 나비의 날갯짓 같은 작은 행동들이 누군가에게는 큰 태풍 같은 영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책임감이란 것을 사회복지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배울 수 있었다.

훌륭한 리더가 세상을 바꾸는 것처럼

어느덧 6개월이 남은 선임이 되었고 그 사이에 많은 후임들이 왔다. 워낙 중요하고 일이 많은 역이라 후임들이 제법 많아졌다. 선임들이 소집 해제한 이후로 나는 후임들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었고 그리고 단체생활에 있어서의 역할분담도 알려주고 실행하였다. 전 선임들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던 숙소도 선임들이 소집 해제한 이후로 후임들과 철저한 역할 분담을 시켜 숙소를 관리하였다. 그리고 항상 내가 먼저 나섰다. 더러웠던 화장실청소도 먼저 나서 락스 냄새를 맡으며 새하얗게 바뀌었고 창틀 바닥신발장등 모든 곳을 후임들과 함께 청소를 하였다. 그 외에도 근무를 하면 먼저 나서 빠르게 빠르게 행동

하였다. 이러다보니 항상 후임들이 “형은 너무 열심히 일하세요.”라곤 한다. 선임이 되었으니 그에 따른 모범을 보여야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오히려 후임이 들어오고 더 노력했으며 나정도 까진 아니더라도 그저 열심히만 해주길 바라였고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다들 열심히 근무 중에 있다. 어느덧 6개월 정도 남아 하나둘 후임들에게 맡기는 것이 늘어나 내가 나태해져 보이는 것으로 보일 수 있겠으나 나는 이렇게 해야 내가 소집해제 한 이후에도 후임들이 스스로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훌륭한 리더는 아니지만 선임으로써 리더십을 알게 되고 이를 최선을 다해 실행했다는 점에서 뿌듯함을 느낀다.

책으로는 배울 수 없는 것들.

이곳에서 근무하면서 나는 책으로는 배울 수 없는 다양한 경험을 하였다. 건강, 꾸준함, 노력, 책임감, 리더십, 자신감등 책으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얻었고 또한 이런 것들을 이행해야만 얻는 상도 받았다. 이런 다양하고 작은 것들이 모여 지금의 나로 변화시켜주었고 앞으로 6개월 뒤에 소집해제 후에도 나의 사회생활에 있어 보탬이 되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제 어디 가서 말할 수 있다. “책을 통해 배울 수 없는 것을 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배웠다”라고 작은개울이 모여 큰 바다를 향해 가듯 나는 사회복무요원으로써 근무하며 얻은 다양한 경험 속에서 얻은 것들을 모아 지금 바다로 가려한다. 이 글을 읽는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도 물어보고 싶다. 당신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근무하며 얻거나 배운 것은 무엇인가?



내 인생의 특이점



김 기 태 (의정부시 예사랑지역아동센터)

프롤로그 : 나는 남자선생님이다

‘남자선생님’... 내 근무지인 ‘예사랑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은 나를 그렇게 부른다. 이유는 단지 내가 남자여서 이다. 시설장님, 사회복지사 선생님, 아동 복지교사 선생님 그리고 대부분의 자원봉사자나 강사 선생님들이 여자인 탓에, 저렇게 불러도 딱히 알아듣는데 문제는 없다. 아이들을 대하는 곳 이다 보니 아이들은 모든 어른들에게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데, 나는 나를 이렇게 부르는 데에 신경 쓰지 않아 호칭정리를 따로 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내 면서 내가 느낀 점은 아이들이 나를 남자선생님이라 부르는 것에 보이지 않는 모호한 구분 경계가 있다는 것이었다. 나 혼자만의 생각이지만, 다른 선생님 들을 대할 때와 나를 대할 때가 다르다는 걸 종종 느꼈기 때문이다. 가령 학습 지도 외적인 부분, 이룰테면 안전이나 위생과 관련된 생활태도에 대한 지적을 했을 때 내 말이 자신이 느끼기에 고깝다 느끼는 아이들은 다른 선생님에게 뛰어가곤 했다. 이런 행동에서 약간의 위화감을 느낄 때가 있었는데, 이러한 위화감에 따른 구분 경계를 느끼는 데는 꽤 오래 걸렸고 대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병역의무에 대한 대체복무로 이 일을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복지 분야에서 부족한 재화를 보충해주는 공공재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 했기 때문이다. 즉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는 사명감 때문인 것이다.

‘남자선생님’이라는 호칭은 얼핏 보기에는 서먹서먹한 나와 아이들의 관계를 뜻하는 것 같지만, 사실 돌아보면 내가 느낀 위화감은 아이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나는 어떤지 그리고 그에 따라 내가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주는 것이 좋은가를 생각해볼 수 있게 해준 고마운 이름이다.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기 까지 많은 경험과 성찰을 할 수 있었고 이는 소집해제 이후 살아갈 내 개인적인 삶, 가령 나의 진로에 대한 결심이나 자녀교육에 대한 가치관 등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말 그대로 인생의 급격한 변화를 준 ‘특이점’ 인 것이다.

예사랑 아이들 1

예사랑지역아동센터는 집에서 걸어서 15분 정도 걸리는 곳으로 비교적 가까운 편이다. 복무기관 본인선택일 때 이곳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도 가까운 거리 때문이다. 가까운 만큼 지리적으로도 익숙하고 여러 번 가 본 적이 있는 동네였으나, 횡단보도 두 개에 직선거리 약 300미터 정도 떨어진 이곳에 사는 아이들이나 실제 환경은 내가 생각한 것과는 좀 달랐다. 그 것을 깨닫는 데는 복무 시작 이후 6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다.

아직까지도 생생히 떠오르는 첫 출근. 훈련소를 갓 수료했을 때라 머리도 짧고 군대식 말투가 남아있는 때였다. 지금에서야 아이들 이름을 친숙하게 부르고 대하는 데도 거리낌이 없지만 돌아보면 그 때는 굉장히 서툴렀다. 아이들의 눈에는 그게 보였던 것 같다. 복무 시작 2주 차 때 한 여자아이가 나에게 했던 말이 기억난다.

“선생님은 왜 우리한테 화 안내요?”

“응? 내가 왜 너희한테 화를 내?”

“다른 선생님들은 저희 맨 날 혼내는데요?”



처음에 저 말을 듣고 내 귀를 의심했다. 내 짧은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선생님들은 그러실 분이 아니었고 나는 그냥 그 아이가 나에게 실없는 소리를 하는 줄로만 생각했다. 그 말의 뜻을 깨달았을 시점은 대략 복무 시작 후 약 한 달 후였다. 센터 아이들이 나에게 익숙해지는 시간에 비해 나는 이 친구들에 대해 아는 게 없었던 것이다.

나에게 익숙해진 이 아이들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내가 생각한 보편적인 초등학생에게서 예측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행동들을 마주할 때 나는 능숙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이다. 가령, 엄마 없이 자란 한 부모 가정 아이 둘이 자기들보다 어린 한 부모가정 친구에게 엄마가 없다고 놀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을 마주할 때가 종종 있는데 그때까지 나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고 알맞은 대처 방법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앞에서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이려니 힘들고 당황스러웠다. 내 나름대로 그러한 행동이 부당하다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득도 해보고 혼내듯 다그쳐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초등학생들에게, 그 것도 아동센터 아이들에게 옳고 그른 행동의 당위성을 내 눈높이에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 자체가 내가 미성숙했다는 증거였고 그게 왜 불가능한지를 모르고 내 입장에서만 혼냈던 행동은 미숙함의 극치였다. 결국 아이들에게 나는 단지 힘세고 무서운 어른이 되었고 나에게 아이들이란 애물단지 같은 존재가 되었다.



예사랑 아이들 2

갈등을 극복하고 행복한 결말을 맺는 교훈적인 이야기들의 장르적 관습이나 고전적 '클리셰'의 과정처럼, 내가 느끼기에 납득이 안 가던 아이들의 행동들을, 이 아이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가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 어느 정도 경험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다.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어 정서적으로 힘든 아이, 이혼 혹은 재혼 가정에서 방치된 아이 그리고 가정

형편이 안 좋은 아이 등등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것들이 부족했던 경우가 많았고 내가 문제시했던 아이들은 하나같이 이러한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아이들이 처한 환경을 알게 되고, 경험적으로 아이들의 행동을 예측하고 나이에 맞게 내가 눈높이를 맞춰줄 수 있게 되자 아이들의 장점이나 사랑스러운 모습들이 보이고 이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덕분에 나도 이 일을 하는 보람을 느끼고 더 성숙해 질 수 있었다.

기억에 남는 경험들이 많은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아이가 둘 있다. 한 명은 초등학교 4학년 된 남자아이였는데 센터 내 수업시간에 제대로 오지도 않고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했었다. 학업 부분에서 굉장히 부진하고 공부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아이였는데,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 대학에 다니던 나로서는 그게 눈에 굉장히 거슬렸다. 그 아이는 열심히 하는 다른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었고 일주일의 절반 이상은 결석하였으며, 오더라도 뒤늦게 와서 밥만 먹고 후다닥 도망가 버리니 정말 밉상이었다. 그레놓고 센터에서 특별 프로그램으로 외부에 놀러 갈 일이 생기면 귀신같이 1등으로 나타나니 화룡점정이라 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잔소리 하듯, 나중에는 왜 센터에 제 때 와야 하는지 그리고 열심히 해야 하는지를 붙잡아 설득하고 나중에는 굶은 소리로 욕박질러도 보았다. 그러다가 우연히 종종 늦은 저녁시간에 밖에서 혼자 배회하는 이 친구를 보았는데 부모님이 재혼을 하고 이복형제와 살고 있는 아이라는 것을 듣고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 들었다. 어린 나이에 가정불화를 겪고 친아버지의 공백 속에 10살 위의 이복형이 있는 집은 이 아이에게 마음의 안식처가 아니었던 것이다. 이후 나는 이 아이에게 왜 센터에 제 때 와야 하고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이야기하지 않았다. 단지 왔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다른 아이들과의 관계를 중재해주거나, 오랜만에 왔을 때 반갑게 맞아주고 밖에서 배회하고 있을 때 빵이나 과자라도 하나 챙겨주면서

“A야 이거 가져가라, 오늘 간식인데 너 안 와서 내가 챙겨놨어. 다음에는 제 때 와서 직접 받아가라.”



하고 이야기하곤 했다. 이런 나의 행동으로 이 아이가 모범생이 되었다면 거짓말이다. 그러나 센터에 오면 짧게나마 책을 펴고 연필을 잡게 되었고 공부 양이 점차 늘어갔다. 한참 후에 이 아이가 나에게 먼저 말을 걸면서 “예전에 간식 챙겨주셨을 때 정말 고마웠어요.”라는 말을 했을 때 내 방법이 옳았다는 확신을 얻어 기분이 좋았고 이때의 경험은 앞으로 내 인생에 있어서도 자양분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또 다른 아이는 1학년 2학기 때 들어와서 지금 2학년이 된 남자아이다. 이 아이는 첫 인상이 굉장히 강렬했다. 또래에 비해 작은 키에 의기소침한 성격, 존댓말도 할 줄을 모르는, 또래에 비해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떨어지는 앓된 아이였다. 나이는 8살이었지만 정신적으로는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그러한 특별히 지능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 그런 아이였다. 눈에 띄게 부진한 학업성취도나 언어적 소통능력은 이 아이의 비쩍 마른 몸매와 까무잡잡한 피부와 더불어 마치 정글북의 ‘모글리’ 같았다. 센터에 등록할 때부터 이 아이가 사고로 어머니를 잃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 여동생과 함께 할아버지 밑에서 자란다는 것을 퇴근시간이 늦어 아이를 좀 더 돌봐주기를 원하는 아이 아버지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때문에 나는 내 퇴근시간을 1시간씩 반납하는 일이 부지기수였다. 어린 나이에 힘든 일을 겪고 충격을 받은 아이는 나에게 측은지심을 불러일으켰고 나는 내 시간을 할애해가면서 아이에게 산수나 읽고 쓰기를 가르치고 기본적인 사회규범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며 혼자 자기 집 주소를 외우고 찾아갈 수 있을 때 까지 집에도 직접 데려다 주었다. 약 1년이 지난 지금 이 아이는 그때의 어두운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꼬박꼬박 인사도 잘하고 친구들과 사이에서 불임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며 공부에 대한 거부감도 많이 없어졌다. 요새는 나에게도 같은 모습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나도 친구나 큰 형 같은 친근한 모습으로 이 아이를 대하기 시작했다. 특별히 애착이 많이 가는 아이이고 소집해제 이후 어떤 모습으로 자랄지도 굉장히 궁금하다.

에필로그

첫 소재목인 '남자선생님'이라는 호칭은 위에서는 언급하지 않은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 센터 내에서 남자어른의 역할을 해 줄 사람이 나 밖에 없다는 뜻이다. 즉 올라운더(all rounder)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건을 고치거나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 남자 아이들을 대하는 일이나 안전을 신경 쓰는 일, 심지어 요리와 설거지까지 다양한 일을 해야 한다. 아직 부족하지만 나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했고 발전하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이다.

나처럼 소중한 경험과 배움을 얻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요원들이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사회복지요원이란 '군인이 되지 못한 자'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런 부정적인 선입견을 없애고 싶다. 사람들에게 사회복지요원이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자'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마음을 다잡고 출근한다.

아동센터에서 복무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정신적으로 성숙해졌다고 생각하는 데 또 다른 큰 변화는 사회복지계열 전공자가 되고 싶다는 결심을 한 것이다. 기존의 전공과목에 별 흥미를 느끼지 못했었는데 아이들과 보낸 시간이 내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나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했는데 오히려 그 아이들이 내 삶에 방향을 제시해주었다. 그래서 요새는 사회복지학과로의 편입을 위해 공부를 하고 있다. 아동센터에서의 일은 나에게 정말 고마운 경험이다.



이렇듯 많은 것을 배운 지금까지의 내 복무기간 1년은 인생 중 가장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자부할 수 있고 그야말로 내 인생에 가장 큰 변화를 준 '특이점'이다.

사회복무요원으로 인해 바뀐 나의 인생

나의 소심한 성격을 고쳐준 매개체



유 광 선 (영통2동 주민센터)

이글은 제가 군대에서 적응을 못하고 나온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저의 성격과 가치관을 바꿔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군이라는 닫힌 사회생활을 적응하지 못하고 나왔지만 그 군에서의 실패한 경험을 계기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극복하고 발전하는 이 이야기를 글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꿈과 목표가 없었던 저를 다시금 꿈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사회복무요원이란 제2의 군인인생을 담은 제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군에서의 소심했던 나

군대 가기전의 저는 정말 철없는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남들 다하는 아르바이트도 안하고 무의미하게 시간만 보내다가 부모님께 제대로 효도도 못하고 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처음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 것도 쉽지 않았고, 아르바이트 같은 사회생활도 접하지 않다보니 군대에서의 생활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훈련소에서도 소대장, 조교들의 도움을 받고, 자대에 가서도

대대장님, 중대장님, 정비관님의 수많은 상담과 위로휴가, 상담사님하고도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군대에서만 하더라도 자신감상실로 인한 소심한 성격에 자그마한 사회생활 이었던 군대는 적응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 다양한 성격을 가진 군대동기들, 선·후임들과 어울리기는 쉽지 않았고, 결국 전우들 간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보니 힘들 때 같이 기대줄 수 있는 전우가 없었고, 그럴 때 마다 간부님들에게만 기대다보니 간부님들도 부담되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군대에서 나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설날 때 군대에서는 윗놀이 나 알까기 등의 민속놀이로 우승분대에게는 포상외박이 주어졌었는데 그 행사에서 윗놀이 게임에서 우승해서 분대원들끼리 외박도 나가서 분대원들끼리 게임도 하고 모텔에서 군대에 관한 깊은 얘기도 하면서 분대원들과 정말 많이 친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다시 군으로 들어오면서 저는 적응을 못했고, 결국 상담관님과 대대장님께 힘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대대장님도 저를 군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병사로 판단하고, 군에서 내보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느꼈습니다. 사회생활은 나를 생각하기 보다는 남을 배려하고 나보다 남을 우선시해야 남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보인다는 것을. 그리고 제 생각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실천하고 저의 성격을 180도 변하게 해줬습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새롭게 바뀐 나

2014년 9월 29일, 저의 첫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군에서 중간에 나오다보니 동사무소 공무원분들께서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대해 주실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 그 생각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훗날 제 주요업무인 FAX민원부터 시작해서 은행 업무 같은 사소한 업무까지 담당 주사님과 저보다 먼저 온 사회복무요원 선임들이 친절하게 가르쳐주셨습



니다. 그러다보니 저도 차츰차츰 마음을 열고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성격도 많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성격이 바뀐 가장 큰 계기는 FAX 민원 담당과 사회복지요원 교육과정인 소양교육과 직무교육이었습니다.

FAX민원은 아무래도 여러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니 그로인해 제 소심한 성격, 낮가림 같은 행동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주민센터 공무원 분들과도 더욱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가끔은 저에게 짜증도 내고 불친절한 민원 분들도 계시지만 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분들도 여기 주민센터를 방문해주시는 민원분이니까요. 제가 친절하게 다가가면 민원 분들도 친절하게 답해주셔서 저는 그럴 때마다 사회복지요원으로 복무하면서 보람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한 민원인 분께 FAX민원을 봐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인 분께서 FAX민원을 다 보신 후에 잠시 후 저에게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FAX민원 처리를 잘못 해드렸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머님께서 친절하게 민원 봐줘서 감사하다고 피로회복제 한 상자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는 이런 거 안 받는다고, 당연히 민원인 분께 해드리는 친절이라고 했는데도 어머님은 요즘 이렇게 친절하게 민원 봐주는 사람 없다고 그냥 놓고 가셨습니다. 그 때 저는 문득 민원인 분께 감사하면서도 참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민원인분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건 사회복지요원과 공무원의 기본자세인데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느끼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전 그 일을 계기로 더욱 열심히 하고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요원의 교육과정인 소양교육과 직무교육은 저를 변화시키는 또 다른 매개체였습니다. 소양교육을 처음 받으러 갔을 때, 그 느낌은 마치 군대와 같았습니다. 여러 성격의 사회복지요원이 한곳에 모여 교육을 받고 팀별 활동을 하는 게 마치 분대원들과의 협동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저지른 실수를 두 번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성격의 사회복지요원과 같이 어울리고 소통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같은 분임 사회복지요원과 분대 1등을 해서 소정의 상품도 받고, 교육이 끝난 후에는 같이 어울려서 놀기도

했습니다. 직무교육 때 저는 더욱 변화했습니다. 저는 학생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학생장 투표에 참여했고, 학생장으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물론 학생장이 되면 소정의 상품과 특별휴가가 주어져서 저도 사람이다 보니 그 혜택 때문에 한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나도 리더가 돼서 다른 일원들을 이끌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학생장이라고 절대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먼저 다가가서 다른 사회복지무요원과 말도 나누고, 혼자 있는 사회복지무요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직무교육을 하는 동안 많은 사회복지무요원들과 친해져서 소양교육 때처럼 끝나고 같이 놀고, 밥도 같이 먹을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회복지무요원하고는 지금까지도 연락을 할 정도로 친해졌습니다.

또한, 소양교육과 직무교육은 제가 사회복지무요원으로서 복무하면서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교육 때 재미난 에피소드도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학생장을 했던 직무교육 때, 심폐소생술 관련 수업을 하는데 강사님이 갑자기 쓰러지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장으로서 담당 강사님께 말씀드리고 강의실로 올라오는데 강사님이 일어나계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들어보니 강사님이 심폐소생술 할 학생을 찾으려고 일부러 쓰러지신 척 하신 건데 저는 정말 쓰러지신 줄 알고 강사님과 교육센터장님까지 말씀드려서 올라오신 겁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강사님은 너는 전국 사회복지무요원 교육센터에 다 소문났다고 하면서 강의를 듣던 모든 사회복지무요원이 박장대소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하지만 어부지리로 그 사건 이후 더욱 직무교육을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있어서 소양교육과 직무교육은 저를 바꾸는 좋은 매개체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비전

어떻게 보면 저는 남들과는 좀 다른 군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경험이 전화위복으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 것 같습니다. 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성격도 고치고, 긍정적으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꿈이 생겼습니다. 바로 9급 공무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이다보니 시간의 어려움이 있지만 올해 9월, 소집해제 한 후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9급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저도 민원인분들을 친절히 대하고, 민원인분도 도와드려서 민원인분들도 웃으면서 돌아가게 해드리려는 그런 9급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물론 9급 공무원이 되기 위해선 엄청난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만큼 되기 힘들고 훌륭한 직업입니다. 하지만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부작침,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 역시 도끼를 갈아 하나의 바늘을 만들 듯, 열심히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서 9급 공무원이라는 하나의 바늘을 만들것입니다.

그러므로 제 비전은 이것입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동안 9급 공무원으로 업무하는 예행연습을 하고, 소집해제를 한 후 노량진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9급 공무원이 되는 것입니다. 군대 가기 전에는 전 꿈과 목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어느새 9급 공무원이 제 꿈이자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저는 오늘도 웃으면서 민원인을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영통2동 사회복무요원 유광선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내 삶을 바꾼 따뜻한 작은 친절



김 재 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주시사)

우리 모두는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들이다.

우리가 성실히 수행하는 작은 친절은 당사자에게 큰 행복이 돼서 돌아온다.

언젠가는 우리를 냉대하던 사람들도 우리가 단순한 ‘폭탄’이 아닌

행복을 위해 일하는 ‘행복폭탄’이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나는 작은 친절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꼭 필요한 사람

귀에 꽂힌 이어폰 너머에서는 가수 김연우가 열창을 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초조한 손으로 핸드폰 액정을 커서 시간을 확인한다. 현재시각 08:52. 연락처의 담당 과장님의 번호를 선택한 뒤 자못 심각한 고민을 한다. 늦을 거 같다고 연락을 드려야하나?

‘짜늘하다. 가슴속 폭탄이 터질 것 같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3300번은 80번보다 빠르니깐.’

핸드폰 액정을 끈 뒤에 나는 3300번 버스를 한번 믿어보기로 한다. 3분 뒤



한적한 정류장에 버스는 멈춘다. 나는 바로 비탈길을 질주해 내려간다. 꼭 이럴 때 신호등은 나를 돕지 않는다. 야속하게 달리는 차들을 눈앞에 두고 저절로 발이 동동 굴러진다. 신호가 바뀌자 다시 질주하기 시작한다. 이윽고 눈에 익숙한 건물의 실루엣이 비친다.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른 뒤에야 숨을 몰아쉬며 시간을 확인한다. 08:58. 지각을 면했다는 안도의 한숨이 나온다. 문이 열리자 낮익은 할머니 한분이 빗자루를 들고 서계신다. 그분을 보자 힘든 와중에도 저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안녕하세요?” 할머니는 웃으며 화답해 주신다. 엘리베이터는 언제나 그렇듯 4층에서 멈춘다. 익숙한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한다. “안녕하세요? 주말 잘들 보내셨어요?” 그러자 “어서 와”, “어서 와요 재원씨” 내가 속해있는 부서인 ‘행정지원팀’ 직원 분들이 나를 맞이해 주신다. 좋다. 아침에 버스가 늦게 와서 짜증났던 마음속의 폭탄은 사라진지 오래다. 그래 여기가 내 세계다. 나는 이 세계에서 환영받는, 꼭 필요한 사람이다.

내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주시사에서 복무한지도 어언 1년하고도 2개월째다.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일상의 소소한 일에 쉽게 웃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복무를 시작하기 전의 나는 완전한 폐인이었다. 새벽 3~4시에 잠들고 정오가 지나서 일어나는 일상을 반복했고, 집에 틀어박혀 밖에 잘 나가지도 않는 소위 말하는 은둔형 외톨이였다. 이런 삶을 살게 된 이유는 내가 옛 영광에 취해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였기 때문이다. 어렸을 적의 나는 언제나 주목받고 필요한 사람이었다. 학생 때의 내 성적은 항상 학년 상위에 머물렀었고 학교생활의 중심에는 당연히 내가 있었다. 그러나 고등학교 3학년 부터 이런 저런 이유로 성적은 떨어지기 시작했고 결국 중심에 머물던 나는 주변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세상의 중심이었던 과거의 영광을 잊을 수 없던 난 재수를 선택했으나, 자신의 안일함과 건강문제로 인해 실패했다. 그 후에도 거듭 수능을 보았으나 번번이 원하던 점수는 얻지 못했고, 이러한 실패와 비만한 외모가 합쳐져 나의 자존감은 나락까지 떨어지고 말았다. 친구들은 취업이나 스펙 얘기를 하며 미래를 설계할 때 나는 그저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이

하루를 살아가던 그런 존재였다. 나이가 차서 더 이상 입대를 미루지 못하게 되자 나는 복무기관 선택을 하게 됐고, 내 삶을 구할 선택이 될 거란 자각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주시사’를 선택했다. 시간이 흘러 복무 기관에서 복무를 하게 됐을 때 나는 이런 생각을 했었다. ‘명칭이 공익근무요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뀌었다곤 하나 바로 내 부모님조차 그렇듯이 여전히 우리에게 대한 사회의 인식은 안 좋을 거야. 아마 사회는 우리를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한 폭탄정도로 생각하고 있겠지. 공단 역시 어쩌다 우리를 떠맡게 됐나 하고 짜증내고 있을지도 몰라. 그러면 나도 가면을 써야겠지. 항상 평안한 표정으로 아무 일도 없던 듯이 지내자. 늘 이렇게 잘 살아왔잖아.’ 이미 들어갈 때부터 난 마음에 벽을 세운 상태였다. 마음이 닫힌 상태에서의 복무생활. 당연히 생활이 즐거울 리가 없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내 자리에 있는 의자나 공단까지의 교통편 등 모든 것이 짜증날 뿐이었다. 복무 초에는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어차피 복무하기 시작한 것 즐거운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편지를 듣기도 했었다. 그러나 내가 딱 한 가지 열심히 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인사’였다. 공단 내에서의 내 주 업무 중 하나는 우편물의 배부이다. 오전에 우체국으로부터 온 우편물을 목적에 맞게 직원 분들에게 나눠 드리는 것인데 나눠 드릴 때마다 나는 학창시절 그래왔던 습관으로 살짝 미소 지으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곤 했다. 흔히들 사람의 말에는 강한 힘이 있다고들 한다. 내 인사가 힘이 있었는지 아니면 직원 분들이 다들 친절하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많은 직원 분들이 내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친절하게 대해 주셨다. 그러는 동안 마음의 벽에도 조금씩 금이 가는 듯 했으나, 그럴 때마다 직원 분들의 친절을 그저 ‘폭탄’의 도화선에 불이 붙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 따위로 치부하며 다시 금을 메우곤 했다. 그러던 중 ‘사회복무요원 소양교육’ 시간이 다가왔고 나는 일주일간 다른 곳으로 출근을 했었다. 당연히 소양교육은 시간을 흘려보내는 용도로 썼었는데 교육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공단이 뭔가 변해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건 바로 인사시즌의 도래로 많은 직원 분들이 바뀌신 거였다. 우리 공단 역시 새로 오신 분들이 꽤 계셨다. 신규 직원 분들도 두 분이나 계셨고 두 분 중에 남성분이 ‘행정지원팀’으로 발령 받으셨는데 우리 팀은 일손이 매우 달리던 상황이라 열렬한 환영으로



그분을 맞이했다. 이후에 내 삶에 꽤 큰 변화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내 일이 엄청나게 줄어든 거였다. 본디 자잘한 업무들을 많이 하던 편이었는데 신규 주임님의 배려로 내 개인 시간이 매우 늘어난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개인 시간을 잘 활용해서 내가 발전하기를 바라는 주임님의 따뜻한 배려조차 ‘폭탄’ 어르기로 치부하곤 했다. 그러던 중에 마음의 벽을 부수기 시작한 그날이 왔다.

그날은 새로운 차장님의 환영인사차 부서회식이 잡힌 날이었다. 나는 매우 가기 싫었으나 딱히 뻘 명분이 없기에 따라나서고 있었다. 자리 확보 차 미리 나와 주임님이 가고 있었는데 이런 저런 대화를 하다가 습관적으로 내 자신을 ‘쓰레기’ 라고 말했었다. 그러자 주임님께서 진중하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재원씨. 이젠 주임이 아니라 친한 형으로서 말하는 건데 자신을 쓰레기라고 말하지 마요. 재원씨는 꼭 필요한 사람이예요. 자신을 좀 더 소중히 여겨요.”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이 왔다. 그날 회식을 하는 내내 머릿속에서 저 말이 떠나질 않았다.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누웠을 때 까지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나는 정말 필요한 사람인가?’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 늦게 잠이 들었다. 마음의 벽에는 금이 꽤 가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다음날 출근해서는 똑 같은 일상을 살고 있었다. 난 다시 금을 메우면서 우편물을 나눠드리고 있었다.

“주임님 안녕하세요?” 우편물을 드리고 바빠 자리를 뜬다. 그런데, “재원씨 안녕하세요?” 따뜻한 목소리다. 깜짝 놀라 휙 돌아보니 내가 평소 우편물을 많이 갖다 드리는 다른 팀의 여성 주임님이시다. 내가 어안이 병병해 서있자, “재원씨 목소리가 좋아서 힘이나요.” 문득 정신이 든다. “아, 네. 감사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이후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에 대한 칭찬이다. 그래 이젠 어르기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재원씨 고마워요.” 짹, 금이 간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어, 날 더운데 고생이 많아 고마워.” 어르기일 것이다. 나 같은 ‘폭탄’에게 도대체 왜? 점심에 담당 과장님과 단둘이 식사를 하고 있다. 갑자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다. “네가 워낙 성실하고 착한 애라 정말 좋다. 날 더운데 언제나 고생이 많다.”,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평소라면 그냥 빈말로 들렸을 덕담이지만 찌저적, 벽에 또 금이 생긴다. 그러게 금이 넓어지던 중 한 가지 일이 생겼다.

건강보험공단에는 민원 상담을 도와주시는 연로하신 상담관이 두 분 계신다. 그런데 1년에 1개월 상담관님들이 안 계시는 때가 있다. 이때에는 민원 데스크에 계시는 분들이 일손 부족으로 엄청 바빠지신다. 그래서 임시로 내가 민원 데스크로 자리를 옮겨서 민원 안내를 했던 적이 있다. 나는 민원 업무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민원 데스크에서는 내 공부를 할 수 없기에 이 일을 탐탁지 않아 했었다. 민원 분들은 예고 없이 수시로 들어오셨고 나는 바쁠 때는 잠시도 쉬지 못하고 안내를 해야만 했다. 비록 일은 힘들었지만 나는 습관대로 미소를 잃지 않았고, 하루에도 수없이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은 말을 하느라 목이 아플 지경이었다. 그렇게 일한지 몇 주가 지났을 즈음이었다. 평소에도 내게 친절할 인사를 해주시던 여성 과장님이랑 대화를 하게 됐다.

“제가 민원 업무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없어서 오히려 방해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네요.” 내심 필요 없다는 말을 기대했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아니예요 재원씨. 재원씨가 너무 친절하게 안내를 잘해줘서 우리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비록 어느 정도는 포장된 말일지라도 기분이 좋긴 했다. 그렇게 길지만 짧았던 민원 업무가 끝났고 내게 민원 업무를 맡기셨던 차장님이 말씀하셨다.

“재원씨가 민원대 업무를 정말 친절하게 잘 해줬다고 직원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수고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한 것은 정말 가벼운 일인걸요.”, “본래 친절이란 것이 아무리 작은 친절이더라도 당사자에게 큰 행복이 되는 법이에요 정말 고생했어요.”

갑자기 가슴속에서 무언가 울컥했다. 문득 주임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떠오른다. ‘재원씨는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아! 나는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구나. 소중한 사람이구나. 나는 날 버리고 학대했었는데, 정작 내 주변 사람들은 나를 필요로 했구나. 내 어머니가 그리 입이 닳도록 말씀하셨던 것이, 주임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모두 사실이구나. 우르르 마음의 벽이 무너진다. 갑자기 세상이 밝아 보인다. 이런 애긴 드라마나 영화 속의 얘기라고만 생각했었다. 그런데 정말 세상이 갑자기 밝아진다. 긴 동굴을 뚫고 나온 느낌이다. 내가 세계에 건넌었던 ‘안녕하세요.’ 작은 친절을 이제 세계가 내게 건넨다.



행복 폭탄

사람의 말에 담긴 강한 힘을 나는 믿는다. 이제는 자신을 ‘쓰레기’라 부르고 틈만 나면 ‘마포대교’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살던 ‘폭탄’은 더 이상 없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일을 보러 오신 민원 분들이나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 분들에게 따뜻하게 인사를 건네는, 정말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행복을 퍼뜨리며 복무하는 ‘행복 폭탄’만이 있을 뿐이다. 주위를 보면 사회복무요원이 아닐 때는 보이지 않던 풍경들이 이제는 잘 보인다. 전철에서 시청에서 동사무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폭탄’들이 잘 보인다. 그들 역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회에 행복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는 꼭 필요한 ‘행복폭탄’들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를 보는 사회의 시선이 아직 곱지만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우리가 무언가 문제가 있기에 사회복무요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다는 것을 안다. 그러기에 그들은 우리에게 냉대를 한다. 나 역시도 은연중에 이런 냉대를 받아본 적이 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우리 역시 주눅 들고 우리가 ‘폭탄’이라는 사실을 밝히길 꺼려한다. 그러나 내 얘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모두는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들이다. 우리가 성실히 수행하는 작은 친절은 당사자에게 큰 행복이 돼서 돌아온다. 언젠가는 우리를 냉대 하던 사람들도 우리가 단순한 ‘폭탄’이 아닌 행복을 위해 일하는 ‘행복폭탄’이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나는 작은 친절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오늘도 사회복지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려합니다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다른 이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박 성 재 (서울주택관리공단 일산문춘7)

저는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제게 주어진 시간을 충실하게 보내는 것이 얼마나 보람찬 일인지, 또 그것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무를 하면서 이제는 맡은 일에 열정을 다함으로서 제 자신이 타인에게 큰 고마움이 되고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그로 인한 보람과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큰 깨달음이었고, 마음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던 내 자신을 바꾸려고 합니다. 나는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려 갑니다.

27살, 사회복지무원 시작

나는 20대 초반에 방향을 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해본다면서 복무를 미루었고, 늦은 나이 27살에 사회복지무원으로 영구임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복무하라는 국가로부터의 명을 받았다. 지금 내 나이의 친구들은 회사에 취직 하거나 한창 취업준비를 하느라



바쁠 때인데, 사회복지요원으로서 2년 동안 복무를 하는 것은 나에게 큰 부담이었다. 당연히 사회복지무를 미루고 무엇 하나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허송세월 시간을 보냈던 내 잘못이 크긴 했지만, 왜 인생에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사회복지무를 꼭 해야만 되나 의문도 많이 가졌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내가 근무를 해야 하는 곳은 관리사무소였고, 평소에 내가 알던 관리사무소는 간단한 사무 처리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일은 어렵지 않겠구나 생각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얼마 지나지 않아 크게 바뀌었다.

내가 사회복지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곳은 1995년에 개소하여 약20년되어 가는 서울주택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영구임대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이다. 이곳 영구임대 아파트에는 보통 아파트단지와 다르게 입주인 대부분이 기초생활 수급자분들로 이루어져있었고, 기초생활 수급자분들들 중에서도 독거노인과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내가 근무하는 단지에 많이 거주하고 계셨다. 이곳에서 사무실환경 정리나 사무 보조 일을 하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았다. 오히려 어려움을 겪었던 일은 주민들의 민원을 맡아 상대하는 것이었다. 끊임 없이 빗발치는 주민들의 전화 상담과,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자리를 비울 때마다 하게 되는 민원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 가장 어렵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게 되었다. 어떤 분은 잘 듣지 못해서서 사무실이 떠나가라 큰소리로 대답을 해야 했고, 어떤 분은 말을 잘못하여 글을 주고 받으며 대화를 해야 했다. 가끔은 주민이 술을 드시고 오셔서 힘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그분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어야 하기도 했다. 혹시라도 실수해서 말이 잘못 나오면 곤경에 처하기도 하고, 거듭 사과를 드리며 나 자신을 한없이 낮춰야 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이 많으니 이것저것 도와달라는 분도 많았다. 예를 들어 형광등 교체, 막힌 변기 뚫어 주는 일, 세면대 하수구 청소, 세대 물건을 옮겨주는 일 등 잔손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이 많았다.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일들을 이곳에서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배려하여 직원 분들이 사소한 부분



들도 챙겨 주신다. 하지만 전부 챙겨주기에는 일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지나면서 간단한 형광등 교체나 세대에 물건 옮겨주는 일 등 내가 대신 나가게 되는 일도 많아졌는데, 세대에 방문하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사시는 분들을 보고, 이렇게 사시는 분도 있다는 것에 놀라기도 하고, 그동안 내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을 가지며 열심히 살지 못했던 나 자신에게 부끄러움을 느꼈다. 하지만 마음에 여유가 없었던 나는 사회복지에 크게 보람을 느끼지는 못하고 있었다. 점점 많은 일이 부여 될 때 마다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있었다.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러 갑니다.

이곳에서 사회복지요원은 나 하나다. 일을 하면서 쌓이는 불만을 같이 털어 놓고 마음을 기댈 동료도 없으니 외롭기도 하고 하루하루가 더 피곤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매일 달력을 보며 2년이란 시간을 언제 채우나 막막해 한숨을 내쉬기도 하고, 퇴근해서 집에서 책을 보다가 지쳐서 금방 잠이 들고나면,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마음이 조급해져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다. 이 조급한 마음은 사회복지에 대한 불만과 함께 2년이란 생활을 의미 없이 보내게 하고 있었는데, 이런 나의 생각을 바꾸어 놓게 된 일이 있었다. 그 날도 나는 주민들의 민원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빨간색 모자를 쓰신 할아버지가 관리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요원 박성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는 일어서서 할아버지를 응대했다. 할아버지는 성큼성큼 내게 다가오셨고 우편 봉투를 꺼내서 나에게 보여주었다.

“나 돈 다 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요?”

나는 우편물을 확인하고 그것이 얼마 전 관리실에서 돌린 관리비납부독촉장이란 것을 알아차렸다.

“할아버지 저번 달에 관리비를 안내서서, 관리비가 연체 되셨대요.”

“그게 무슨 말이요? 여기 이것 좀 보소. 저번 달에 은행에 가서 낸 관리비 영수증이지요.” 할아버지는 조금 격양된 목소리로 나에게 관리비 납부 영수증을 보여 주셨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확인 해보겠습니다.” 나는 그 영수증을 받아 부금



담당자에게 보여드렸고, 부금담당자께서는 관리비납부내역을 프린트하여 관리비를 덜 내셨다면 할아버지께 그 내역을 알려드렸다. 옆에서 관리비납부내역을 훑어보던 나는 관리비와 임대료가 같은 금액으로 납부 되어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부금담당자에게 말했다. 부금담당자께서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셨는지, 할아버지께 은행에 가서 한번 잘못납부 되었는지 문의 해보라고 말씀했는데, 할아버지는 그냥 “은행에 가보라고?”하며 부금담당자에게 물으셨고, 부금담당자께서는 “네, 할아버지 은행에 가보세요.”하며 납부내역과 저번 달 지로영수증을 다시 뽑아서 드렸다.

30분후에 그 할아버지는 관리사무소에 다시 방문하셨다. 할아버지는 한 영수증을 부금담당자 분에게 가져다주셨는데, 저번 달 지로영수증 끊어드린 것을 다시 내고 오신 것이었다. 부금담당자께서는 돈을 다시 내시고 오시면 어떻게 하냐고 할아버지에게 지금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할아버지는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다. 옆에서 지켜보던 나는 날 키워주신 할아버지가 생각났다. 어렸을 적 부모님이 바쁘셔서 할아버지 옆에서 자랐었는데, 귀가 어두워서 가끔씩 이야기했던 것과 다른 행동을 하셔서 답답한 마음에 짜증을 부리던, 그런 후회스러운 기억이 생각났다. 그래서 그랬을까? 나는 담당자 분에게 가서 할아버지와 같이 은행에 다녀오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그리고 상황을 담당자를 통해 정확히 파악한 후 영수증과 관리비 납부내역 고지서를 들고 할아버지와 함께 관리사무소를 나셨다. 같이 은행에 가는 동안 할아버지는 많은 이야기를 내게 하셨다. 할아버지가 쓰신 빨간 모자를 저에게 보란 듯이 손가락으로 두들기시면서 꺼내신 6.25시절 해병대로 있으셨던 이야기, 전쟁이 끝난 후 전쟁의 아픔을 잊기 위해 사셨던 힘든 이야기 등 많은 말씀을 해주셨다. 그러면서 내 이름이 과거의 자신의 후임병과 이름이 똑같아서 반가웠다며 제 팔을 꼭 잡고 같이 가셨을 때는 따뜻하면서도 외롭게 사시는 할아버지의 슬픔이 느껴졌다. 은행에 도착해서는 할아버지의 관리비 납부를 도와주셨던 담당자분과 대화를 나눴다. 대화를 나뉘본 결과 담당자분은 자신이 실수를 한 것 같다며 문제를 잘 해결해 주셨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는 고맙다는 말을 연거푸 남기시고 집으로 돌아가셨다.

몇 시간 후 마트배달원이 수박과 음료를 가져왔는데, 그 뒤에 할아버지가 따라 들어오셨다. 할아버지는 저에게 문제를 잘 해결해주고, 오랜만에 이야기를 원 없이 한 것 같다며, 잘 들어줘서 고맙다고 하셨다. 그리고선 수박과 음료를 건네 주셨다. 문제를 해결했던 금액이 그리 크지도 않았을 뿐더러 아무래도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이다 보니까 입주민 분에게 무언가를 받는 것은 큰 부담이었기 때문에 “마음만으로도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며 집에 가져가서 드시라고 사양했지만, 할아버지는 그것들을 덩그러니 바닥에 내려놓은 채 돌아가셨다. 참 고맙기도 하고 신기한 상황이었다. 평소와 똑같이 입주민을 응대하고 도왔을 뿐인데 평소와는 다르게 내가 도운 일이 할아버지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니 내 마음도 뿌듯하였다. 그전과 다른 것이 있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드렸다는 것, 그리고 좀 더 할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주었다는 것 뿐이었는데 말이다. 나는 이날 이후로 내 맡은 임무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입주민을 더 반갑게 응대하였고, 그분들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여 주었고, 관리사무소 직원분이 일을 주시면 더 꼼꼼하게 해보도록 노력하였다. 그렇게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면서 보람되게 복무를 지내다 보니 어느새 벌써 1년 6개월이란 시간이 흘렀다. 이 긴 시간동안 이곳에서 많은 분들과 친해지고 정이 들었다. 요즘 세대를 나갈 때마다 마주치는 입주민들은 제대하면 섭섭할 것 같다며 제대하지 말라고 농담도 건네시기도 하고, 고생한다며 따뜻한 인사를 나눠주시기도 하고, 이따금씩 간단히 마실 것도 챙겨주신다. 이제 복무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사회복무가 끝나면 이제 다시 사회로 나와야 한다. 요즘 취업도 힘들고, 세상은 편리하고 빨라졌지만 그만큼 더 삭막해졌다.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근무했던 이곳을 기억하면 많이 힘이 될 것 같다. 예전에는 군대라면 절레절레 고개를 저었지만, 이제는 누군가가 이전의 나와 같이 군대를 고민하고 있다면 나는 겪어야 하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라고 말해주고 싶다. 그러면 일상생활 속에서는 쉽게 겪어보지 못할 보람을 얻을 수 있다고.



사랑의 나눔장터, 푸드마켓에 어서오세요!



이 상 배 (부산시 당감종합사회복지관)

흔히들 인간 생활의 세 가지 기본 요소를 의식주(衣食住)라고 한다.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기본 요소를 충족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가난하거나, 몸이 불편하다는 등의 이유로 최소한의 의식주조차 필요한 만큼 채워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국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복지를 제공하며, 내가 일하고 있는 푸드마켓은 의식주 중에서도 식(食)을 지원하는 복지 사업이다.

푸드마켓에서 일하게 되다

훈련소를 마치고 처음 출근하던 날, 나는 근무지인 당감종합사회복지관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복지관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될지 궁금해하고 있을 때, 담당 선생님께서 내가 일하게 될 곳은 복지관 부설 기관인 ‘푸드마켓’이라고 하셨다.

‘푸드마켓이 뭐지?’

궁금증을 뒤로한채, 나는 담당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푸드마켓으로 이동했다. 푸드마켓에 처음 들어갔을 때, 첫인상은 그다지 좋지 않았다. 넓지 않은 공간,

종이상자 특유의 퀴퀴한 냄새, 어지럽게 쌓여있는 물건들……. 푸드마켓 특성상 일이 많지만, 일할 사람이 부족한 탓에 꼼꼼한 관리를 못하고 있었다고 하셨다. 나는 곧바로 푸드마켓이 무엇인지와 주요 업무들을 배우게 되었다.



푸드마켓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구, 소년소녀 가장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식품을 지원하는 곳이다. 이용자는 직접 푸드마켓을 방문하여 원하는 식품을 취사선택하고 무상으로 구입할 수 있다.

20,000원 상당의 물건을 한 달에 한번 씩 지급하는데, 대부분의 물품들은 기업이나 일반 시민들의 후원으로 받는다.

푸드마켓 업무는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후원받은 물품을 수령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용자에게 물품을 제공하는 것이다. 물론, 나는 이 두가지 일을 번갈아가며 모두 도왔다. 우선, 후원받은 물품 수령은 대부분 담당 선생님과 함께 차를 타고 가서 물건을 받아오는 식이었다. 하지만 후원은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서, 항상 후원처를 찾아다녔다. 언제라도 후원처에서 물건을 준다고 연락이 오면 수령하기 위해 찾아갔다. 받은 물건들은 유통기한을 꼼꼼히 확인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물건과 폐기할 물건을 선별한다. 그리고 FMS(Foodbank Management System)라고 부르는 관리 사이트에 물건을 등록하고, 영수증을 발급하면 ‘후원 물품 수령’ 업무는 끝이 난다.

하지만 물건은 늘 부족했다. 어려워진 경기 탓에 후원처를 찾기도 쉽지 않았다. 담당 선생님과 어렵게 물건을 주겠다는 곳을 찾아도, 막상 받아와보면 유통기한이 임박한 물건들이 많았다. 푸드마켓 특성상 늘 유통기한이 임박한 물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매일 물건들을 뒤져가며 유통기한 확인하는 것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물건이 부족한 것 보다 나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이용자들을 상대하는 일이었다. 특히 몇몇 이용자의 태도가 불만이었다. 가져갈 게 하나도



없다며 화를 내고, 유통기한이 짧다는 이유로 이걸 먹으라고 주는 거냐며 면박을 주기도 했다. 그런 물건조차 힘들게 후원 받은 것인데, 불만을 들으며 이용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할 때는 맥이 탁 빠지곤 했다. 몸도 고되고, 불만은 불만대로 받으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회의감이 들었다.

나를 돌아보게 만든 이용자 한분, 그리고 결심

그러던 어느 날, 이용자 한분이 마켓에 문을 열고 들어왔다. 나이가 조금 지긋하신 할머니였다.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나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하지만 보란 듯, 할머니는 내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획 돌아 물건이 있는 쪽으로 걸어가셨다. 한숨이 나왔다. ‘그럼 그렇지’라는 생각이 들며, 내가 열심히 해봤자 나만 손해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런 나의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할머니는 천천히 마켓을 안을 돌며 물건을 고르셨다.

잠시 후, 할머니가 물건을 가져오셨고 나는 확인을 해 드린 뒤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렸다. 애써 숨기려고 했지만, 섭섭함을 감출 수 없어 나도 모르게 조금 통명스러워졌다.

“다 뵈었습니다. 가져가세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고맙다며 환하게 웃으시고는 고생 많다며 격려해주시는 것이었다. 나는 적잖이 당황했다. 인사조차 받아주시지 않는 괴팍한 할머니라고 생각했었지만, 생각과는 다르게 나에게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셨다. 이어지는 할머니의 한마디에 나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미안해요, 내가 귀가 잘 안 들려서…….”

알고보니 그 할머니는 청각장애로 판정을 받으셔서 푸드마켓을 이용하시는 분이였다. 나는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내 인사를 받아주시지 않아서, 할머니가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했었다. 그 때문에 내 행동과 말투는 통명스러워졌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청각장애 때문에 내 말을 못 들으셨을 뿐, 무척이나 좋으신 분이셨던 것이다.

나는 이 일 이후로 혹시 그동안 나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고민

해보게 되었다. 나도 모르게 짐 나르는 일이 힘들어 이용자분들께 투명스럽게 대하진 않았는지, 물어본 질문에 친절히 대답해드렸었는지 반성해보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그래, 내가 한번 바뀌어보자.’

작은 변화가 큰 변화가 되어 돌아오다

그날 이후로 푸드마켓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빗자루를 들고 마켓 곳곳을 꼼꼼히 청소했다.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다 보니, 방 청소할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많은 먼지가 나왔다. 다 쓸고 난 후에는, 대걸레로 구석구석 닦아냈다. 더 많은 후원을 받기 위해 후원처에 연락을 돌리고, 마켓에 있는 물건들을 종류별로 정리했다. 이용자분들이 물어보시기 전에 먼저 다가가 찾는 물건이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그러자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다. 오시는 이용자분들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네자, 나에게도 수고가 많다며 격려해주셨다. 불만이 눈에 띄게 줄었다. 오히려 올 때마다 수고가 많다며 먹을 걸 주시는 분이나, 자신이 산 식품을 조금 뜯어 나누어 주시는 분까지 생겼다.

놀라운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어느 날 갑자기 택배기사님이 오셔서 쌀과 라면을 주고는 가버리시는 것이었다. 깜짝 놀라서 붙잡아서 물어보았더니, 누군가 이 곳으로 쌀과 택배를 보냈다는 것이다. 발송인을 알려고 했지만, 알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익명으로 누군가 푸드마켓에 식품을 기부한 것이다. 담당 선생님은 그동안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고 했다.

또 어떤 이용자 분은 자기만 후원받을 수 없다며, 집에 있는 밥솥이나 후라이팬, 이불 등을 적극적으로 후원해주셨다. 심지어 자기가 사용한 물건이 아니라, 예전에 구매했거나 경품으로 받은 것이었다. 깨끗한 새 물건이어서 본인이 쓰거나 누군가에게 팔아도 되는 것이었지만, 자신이 받는 나눔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고 싶다며 우리에게 물건을 건네셨다.



사랑의 나눔장터로 꽃피다

더 이상 푸드마켓은 단지 식(食)을 지원하는 복지시설이 아니었다. 물품을 제공하는 일에서 더 나아가, 사랑의 나눔 장터로서 꽃피었다. 이제 나는 푸드마켓이 이용자분들에게 식품 그 이상의 것을 드릴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 내가 제일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용자 분들 중에는 혼자 사는 노인 분들도 많으신데, 푸드마켓에 오실 때 마다 나와 대화하시는 것을 무척 재밌어 하시는 게 느껴진다. 그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식품뿐만 아니라 ‘사랑’이 아닐까? 이용자 분들에게 물품을 건네며, 사랑과 웃음을 함께 드리기 위해 나는 오늘도 먼저 다가간다.

내가 한 일은 대단한 일이 아니었다. 이용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더 애썼을 뿐이다. 하지만 그 작은 행동이 나를, 푸드마켓을, 그리고 이용자분들까지도 바꾸어놓았다. 진심을 담아 성실히 노력한 만큼, 나에게 더 값진 변화로 돌아올 것을 믿는다. 앞으로 남은 복무기간 동안 더 많으신 분들에게 나눔을 드리고 싶다. 나비의 작은 날개 짓이 바다 어딘가에서 태풍을 만들어내듯, 내 행동이 작게나마 이 사회에 아름다운 나눔의 가치를 만들어낸다면 나는 사회복지무원으로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의 나비효과

작은 힘이라도 아이들의 웃음이
떠나지 않게 할 수 있다면



엄 여 찬 (천안미라초등학교)

“학교는 학생이 되는 곳입니다. 담임선생님은 아이들이 같은 출발 선상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기울여야 하며 교직원들은 그런 담임선생님을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행위가 아이들을 위한 것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밑바탕 위에 우리 미라 아이들은 함께 살아가면서 오늘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게 교장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 성적에만 열을 올리는 학교가 아닌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학교, 또 그것을 위한 교직원들, 이는 내가 단순히 병역의 의무로서 근무하는 것이 아닌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사회복무요원, 이거 쉬운 일이 아니다!

무더운 여름동안 4주라는 짧지만 어찌 보면 또 긴 기간을 지나고 나서 든 생각은 ‘이제 끝났다, 편히 보낼 시간만 남았군.’ 대략 이 정도의 말이었다.



근무지는 교육청이었다. 사회복지요원이 지망할 수 있는 기관 중 소위 ‘꼴보직’이라는 학교 사회복지요원이 되기 위해 근무지 신청 기간 얼마나 고군분투했던가. 웬만한 수강신청보다 치열했던 순간을 곱씹어 웃으며 나는 지원할 학교를 선택했다.

교육청으로 신병(?) 받으러 온 사람들과 함께 학교에 도착했다. 맨 처음 뵈었던 교장선생님은 환하게 웃었지만 어딘가 힘들어 보이는 표정을 지으며 맞이했다. 그리고는 앞으로 할 모든 일은 학교를 위한 일이고 물론 자신도 할 테니 힘들더라도 봉사하는 마음으로 임해달라고 하셨다. 나는 당연히 패기 있게

“예! 알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 거죠.”

라고 대답했다. 훈련병 시절의 군기가 남아있었는지, 아님 처음이라 겉으로만 얘기했는지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았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난 그렇게 말했던 걸 곧 후회했다.

복도 청소, 그저 빗자루로 슬슬 쓸거나 물을 치덕치덕 묻혀다가 걸레로 미는 게 아니었다. 쭈그러 앉아서 넓고 긴 복도를 고작 작은 수세미 하나로 스크래치 등의 얼룩진 부분을 문지르는 거였다. 안 지워지면 방법이 없다. 그저 지워질 때까지 문지르는 수밖에. 실로 간단한 방법이지만 그만큼 여름에 몸을 녹이는 데는 그만한 작업이 없었다. 도중 땀방울이 눈썹을 덮고 눈에 닿아 쓰라림이 느껴질 때면 당연하게 대답했던 내가 문득 원망스러웠다.

때는 무더운 7월 초, 초반부터 뻥세게 구르기 시작했다.

첫 날부터 시작해서 약 2주 동안의 복도 청소를 하면서 행정실의 새 식구들을 만났다. 사람이 모인 지라 매일 좋을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모두 좋은 사람들이라 즐겁고 편안한 분위기로 행정실은 흘러갔다.

전임자에게 인수인계 받은 건 고작 하루 정도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마냥 실수 연발이었지만 주변 분들은 오히려 보듬어주고 더 잘할 수 있게 도와

주었다.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해주었고 인생의 선배로서 조언도 해 주었으며 잘못된 것이 있으면 넌지시 알려주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것과 업무량은 다른 법. 상이하계도 사회복지대상 아이들이 4분의 1에 달하는데다 특수반도 유치원과 초등까지 세 반이나 되다보니 규모에 비해 위낙 사업이 많아 자연스레 학교 일은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기본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일은 공문서 접수와 담당자 지정, 안내장 등의 인쇄와 배분 그리고 민원서류 발급 등이었다. 옛날처럼 손으로 작업하는 게 아닌 컴퓨터로 공문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그것을 접수하는 일은 업무 메뉴를 조금만 알면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교내의 각 직원들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매번 학기마다 다시 외우다시피 해야 했다. 인쇄야 시험기간만 아니면 매일 있는 건 아니고 조금만 투자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다만 민원서류 발급이 문제였다.

민원인은 나를 춤추게 한다

낯선 사람과 얼굴을 맞대고 말하는 것은 개개인의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소심한 성격인 나한테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더군다나 친구가 아니라 서비스 제공의 목적이려면 말이다. 그런 경험을 해 본 적도 없어서 나에게 민원 처리는 낯선 업무였다. 전임자에게 베타치기로 교육받긴 했지만 연습과 실전은 달랐다. 민원인을 맞이하고 신청서를 나눠 주는 것도 영 어병한데다 서류발급은 절차도 복잡했고 도장 한 번 잘못 찍어서 다시 작업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럴수록 민원인이 기다리는 시간은 길어지기 마련이었고 나 또한 조금해 지기 일쑤였다. 그제 시간은 배로 걸리는 팩스를 통해서 이뤄지는 민원이면 더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몸에 익어 자잘한 실수는 줄어들었다.

겨울 방학 때쯤이었을까, 어느 때처럼 행정실로 한 사람이 들어왔다. 처음



보는 얼굴로 보아 민원인이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한껏 미소를 지으며 응대했다. 민원 업무의 첫 번째는 항상 미소로 맞이하는 것이었으랴.

“생활기록부 사본 좀 뺐으면 하는데요.”

“아, 그러시면 민원 신청서 좀 작성해 주시겠어요?”

나는 펜과 신청서를 건네주며 말했다. 그리고 항상 하던 것처럼 정보를 입력 해서 발급을 한 후 민원인에게 확인을 부탁했다. 전에 한 번은 확인을 하지 않고 그냥 건넸다가 잘못 발급된 서류인 것을 깨닫고 다시 찾아온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민원인은 서류를 쳐다보더니 나한테 물었다.

“죄송하지만, 이거 말고 성적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금방 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라고 다른 서류도 추가로 발급받고 떠나는 민원인에게 인사를 한 후 나는 민원서류를 정리하고 자리에 앉았다. 그런데 잠시 후 창밖으로 민원인이 되돌아오는 모습이 보였다. 분명히 확인까지 했으므로 잘못 발급 하거나 처리한 건 없었던 것 같았다. 이윽고 문이 다시 열렸다.

“너무 수고하시는 것 같아서요, 이것 좀 드시면서 하세요.”

민원인이 바나나 우유가 들어있는 까만 비닐봉지를 내밀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감사하다는 말은 한참 후에나 나왔다. 이런 일은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민원인이 가고 난 후 각 계장님들에게 하나씩 나눠드렸더니

“엄대리 덕분에 이런 걸 먹네요, 대단한데요? 얼마나 고마웠으면 그랬을까.”

“잘 먹을게요, 엄대리.”

담당자에게도 민원인에게도 칭찬 받은 셈이었다. 기뻐지만 상당히 묘했다.

서고 정리, 최대의 장기 프로젝트

여태까지 서고를 정리하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어질러진 물품만 정리하고 없어서 필요하단 물품은 따로 기록해서 계장님께만 드리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엔 좀 달랐다.

모빌랙이란 것은 말하자면 움직이는 책장이다.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그것을 행정실 서고에 설치하기로 했다. 일단 이전의 책장을 치우고 그 안에 있던 문서들을 밖으로 다 꺼내놓아 따로 보관한 다음에 모빌랙 설치를 마치니 이제 다시 채워 넣을 일만 남았다. 이전엔 대충 넣어놓았지만 이번엔 좀 더 체계적으로 분류를 해서 채우기로 했다. 분류 방법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계장님이 담당이었기 때문에 보조인 나는 그저 거들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렇게 편하게 진행할 수는 없게 되었다.

“아... 엄대리 전역하는 거 보고 갈려고 했는데 무척 아쉬워요. 저도 이렇게 될지는 몰랐네요.”

“이번에 아무런 애기가 없어서 이렇게 쭉, 아니 적어도 이번 여름방학 까지는 같이 있을지 알았는데요.”

한 명의 계장님이 교육청으로 갑작스럽게 중간 발령이 나서 가게 된 것이었다. 복무를 처음으로 시작할 때 교육청으로 나를 맞이하러 왔고 형같이 여긴 터라 많은 정이 들었던 참이었다. 그리고 분주한 상황에서 맡았던 많은 업무들은 고스란히 남은 사람들에게 흘러들어왔고 서고 업무는 내 몫이 되었다.

공공기관의 문서 분류방법은 처음이라 책을 싸매고 어떻게 할지 씨름하다 일단 보존기간별로, 밑의 것들은 주제별로 분류하기로 마음먹고 실행에 옮겼다. 모든 문서 파일을 하나하나씩 정리하는 작업이라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 할 일만 하고 나머지는 서고에서 보내기 일쑤였다. 색인을 만들 때도 책과는 사뭇 다른 예외들이 많아서 스스로 만들어야 했다.

길고 긴 약 3주간의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니 저마다 칭찬 세레가 날아왔다. 보존기간별로 색깔을 구분해놓았기 때문에 찾기도 편하다며 실장님이 수고했다고 어깨를 두드려주시니 긴 기간 동안 고생한 게 오히려 후련할 정도로 개운했다. 내 자신도 인정을 받고 사회복지무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했다는 사실에 뿌듯하기 그지없었다.



일꾼에서 동료로,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그때까지 사회복지요원은 그저 잡일이나 거들어 주는 일꾼 정도의 위치라고 생각했었다. 물론 이 학교에서는 날 ‘대리’라는 애칭까지 주면서 같은 동료처럼 대우해주었지만 내심으로는 그래도 어차피 사회복지요원 일뿐이라고 생각했다. 같이 일해도 어울리지 못하고 열심히 한다 해도 칭찬 받지 못하는, 제복 팔뚝에 큼직하니 붙어있는 사회복지요원 마크를 가리고 다니고 싶은 주변인이었다. 특히나 나를 처음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차가워지고 현역으로 입대 한 사람들은 둘째 치고 신청도 안한 친구들조차 무시하는 경향이 보이면 더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게 느껴진다. 사회복지요원은 비록 다른 사람들의 업무를 보조해주는 업무에 지나지 않을지 몰라도 결국엔 그 이름답게 사회에서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이 되는 셈이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지금 하는 일이 그저 공무원들이나 선생님들의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역할이지만 그것이 학교 운영과 선생님들의 수업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모든 행위가 아이들을 위한 것이 된다.’는 교장선생님의 말씀처럼 결과적으로 내가 한 일이 학교의 주인공인 아이들이 올바른 길로 자신의 꿈을 키우는데 함께하는 나비의 날개짓이 되었다.

공익이 없다면 행정은 멈춘다고, 과장되지만 그만큼 고루고루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교실 정리, 체육대회 준비 그리고 닭장 짓기 등 다양한 일을 하고 있고 이는 현재 진행형이다. 그때마다 힘들고 편하게 지내고 싶다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럴 때마다 자꾸만 아이들이 생각난다.



“선생님 혹시 경찰이에요? 어? 사. 회. 복. 무?”

이러면서 나를 향해 방긋이 웃어주는 아이들이 말이다. 그들을 위해 내 작은 힘이나마 보탬 수 있다면야.

천사들의 비밀



김 제 원 (수원시청)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기만 한지 누가 인생이 아름답다고 말한 건지
태어났을 때부터 삶이 내게 준 건 끝없이 이겨내야 했던 고난들뿐인걸.
그럴 때마다 나는 거울 속에 나에게 물어봤지 뭘 잘못했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게만 이래 달라질 것 같지 않아 내일 또 모레....

— God, ‘촛불하나’중에서 —

뭐라고? 네 이름이 기흉이라고?

2012년 5월, 갑작스레 가슴을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져 급히 동네 병원을 찾아갔다. 엑스레이 촬영 후, 기흉이라는 병명을 얻었다. 어서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권유에 그 즉시 발걸음을 옮겼다.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리고 떨렸지만, 다들 별거 아니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해줬다. 병원에 도착하고 여러 검사를 마친 뒤 담당 의사 선생님을 만나 상담을 했는데 전신마취 수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셨다. 이게 웬 ‘청천벽력’ 같은 소리인지. 하는 수 없이



이를 뒤 수술 절차를 밟게 되었다. 그렇게 긴장되고 떨린 적은 수능 이래로 처음이었는데 다행히 수술은 4시간에 걸쳐 끝났다. ‘오아, 출다.’ 마취가 풀려 일어나보니 5월임에도 온몸에 한기가 느껴져 깜짝 놀랐다. 게다가 갈비뼈에는 웬 가느다란 호스가 꽂혀있고 호스를 따라 커다란 피가 담긴 통이 나와 함께 걷고 있었다. ‘우리는 한 몸!’을 마음속으로 외치며 그렇게 일주일간 입원을 한 끝에 완치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온 동네방네 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3주 만에 다시 발병한 마음씨 못된 기흉. 그렇게 또다시 수술하게 된 나 자신.

그 후 1년이 지난 2013년 어느 날 징병검사 통지서가 나를 반겼다. 그다지 달갑지 않은 마음으로 병무청으로 갔던 그 날. 검사 결과 4급 판정을 받게 되어 서 2014년 1월 나는 이곳 ‘꿈을 키우는 집’의 막내로 근무하게 되었다.

꿈집에 새로 온 공익 아저씨

꿈을 키우는 집에 배정받던 날, 나를 인도하러 시청으로 오신 선생님 들께서는 웃는 모습으로 맞이해 주셨다. 카페에서 차도 한 잔 사주셔서 추운 겨울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다. 그렇게 도착한 근무지는 건물이 4개나 있어서 규모가 꽤 크다고 생각했다. 설레는 마음으로 선생님들께 인사를 한 후 선임 형들과 담화를 나누었다. 여러 가지 할 일들과 주의사항 등을 전달받고 어색함이 흐르는 가운데 드디어 처음 일을 시작했다.

마당에 있는 커다란 리어카가 나의 눈을 의심케 하였다. 시설에서 나오는 폐지를 모아 리어카에 실은 후 고물상에 가서 값을 받는 것이 우리 사회복무요원의 임무 중 하나라고 했다. 또한 원내 환경 미화, 봉사자 안내, 아이들 프로그램 활동 보조 등 다양한 업무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 나는 조금씩 적응을 했다. 몇몇 아이들과도 인사하는 사이가 됐는데 어느 날부턴가 출근할 때 꼭 2층 창문에서 나를 보며 해맑게 웃어주며 손을 흔들어주는 아이가 있었다. 누군지 궁금해서 찾아보려 했지만 창문에 비추어진 아이의 모습은 희미하였기에 바로 찾지는 못했다. 그



러다 며칠이 지나서 내게 다가온 한 아이가 웃는 모습이 정말 예쁜 그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이의 이름은 하은이(가명). 하은이는 나를 보며,

“안녕, 공익 아저씨!” 라고 하여 나는

“아저씨 아니고 오빠야. 너랑 몇 살밖에 차이 안 나. 넌 몇 살인데?”

“9살이야.”

“거봐, 열두 살 밖에 차이 안 나니까 아저씨 아니지?”

하며 웃었다. 그렇게 라포형성을 하게 된 내 마음속에 작은 새싹이 돋아나는 기분이 들었다.

톰과 제리

차가운 얼음이 녹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게 된 어느 날, 어디선가 낮선 소리가 들렸다. “찍 찍찍” 그러자 내 선임의 한 마디. “올 것이 왔어.” 설마 쥐를 잡겠나 싶었지만 설마가 쥐를 잡게 됐다. 그렇게 쥐덫을 설치하고 기다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쥐 한 마리가 ‘나 좀 살려주오!’ 비명을 지르고 있어서 가봤더니 제대로 걸려있었다. 나는 그 길로 달려가 걸렸다고 신나며 처리했다. 그날은 뿌듯한 마음으로 맛있는 밥을 먹고 일을 했던 기억이 난다.

그렇게 쥐와 전쟁을 하던 또 어느 날, 이번에는 “야옹”하는 소리가 났다. 그래요. 상상이 갈 겁니다. 저 소리는 분명 고양이랍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좁은 난간에서 떨어져서 울고 있었다. 우리들의 신체 조건으로는 도저히 꺼낼 수 없을 만큼 좁아서 안타까움으로 바라만 보아야 했던 시간이었다. 잠시 뒤 119가 출동해 도구를 이용해 오랜 시간을 들여 구출하려 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그렇게 119도 떠나고 고양이도 떠났다. 안녕 톰과 제리.

비밀, 정체를 드러낸다.

꿈집에는 정말 많은 성향의 아이들이 있다. 하은이는 내게 항상 껌을 달라고 한다. 볼 때마다 하는 유행어가 있다. “오빠 껌 줘.” 한두 번 주다 보니 하은이와 항상 같이 다니는 유리(가명)도 나와 친해져 껌을 달라고 한다. 어느 날에는



하은이와 다른 아이들이 잘못했는지 벌을 받고 있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알아보니 아이들이 뭉쳐서 학교 내에서 같은 또래의 아이들에게 나쁜 행동을 해서 벌을 받는 거라고 했다.

또 다른 아이는 꿈집에서 밥을 주지 않는다고 말하고 다녀서 동네 주민들의 오해를 사게 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한 핑계로 식품을 훔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왜일까?’ 처음 내 생각이었다. 이렇게 맛있는 밥을 하루 세끼 꼬박 먹고 다니는데 무엇이 부족하길래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인지 의아해 했다.

볼 때마다 항상 밝게 웃으며 이래저래 말을 나누고 장난치고, 청소도 같이 하며 친해진 고등학생 남자아이 민철(가명)이가 있었다. 처음 알게 되었을 때는 철없이 밖에서 맴돌기도 하고 다사다난 사고뭉치 아이였는데 나는 진심으로 다가갔다. 그 아이의 순수함이 내 눈에 보였기 때문이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은 서로 깊은 대화도 나누다 보니 어느새 친해진 형 동생 사이가 되었다.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집에 오는 길에 민철이에게 전화가 왔다. 집에 좀 데려다 달라는 전화였다. 알겠다며 버스를 타고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나를 본 민철이는 ‘형~내 형이야~’ 이러면서 떡볶이가 먹고 싶다며 사달라고 해서 함께 떡볶이집에 갔다. 웬지 모를 슬픔이 느껴졌는데 물어보지는 않았다. 그저 말없이 우유가 꼭 필요한 맵디매운 떡볶이를 같이 먹을 뿐이었다. 떡볶이를 다 먹고 공원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 민철이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으로 대화를 시작했다.

“형, 진짜 불공평해.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해? 나는 뭐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 왜 이렇게 살아야 해?”

정적이 흘렀고, 나는 도대체 무어라 위로를 해 줄지 몰라서 머뭇거렸다.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건 옆에서 토닥여 주는 것 외에는 없다고 생각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괜찮아진 표정이어서 같이 버스를 타고 집에 데려다주었다. 나 홀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이 났다. 내가 친한 형이기 이전에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의역할 내에서 최선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경청뿐이 없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뒤로 가끔 전화가 왔는데, 자신의 오늘 하루를 얘기하며

슬펐던 이야기나 기억하기 싫었던 이야기라든지 모두 털어놓았다. 그럴 때면 나는 잘 들어주며 공감해주고 조언을 해주는 도움을 줄 수 있었다. 민철이는 전화한 후에 형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면 답답한 게 사라진다고 말하며 좋아했다.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그 자체로도 감사함과 뿌듯함을 느꼈다.

아이들은 정말이지 부족함 없이 의식주를 해결한다. 그런 상황에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다녔다. 그러나 아이들 내면 가슴속 깊은 곳 어딘가에 채워질 수 없는 공허함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와 동시에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비온 뒤 무지개는 약속이다.



이곳 ‘꿈을 키우는 집’에서 어느덧 1년이 훌쩍 넘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때로는 빨리 흘러가는 야속한 시간 속에, 때로는 느리게 흘러가는 답답한 시간 속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된 시간이었다. 처음 근무를 시작한 날 리어카에 잔뜩 실어 팔던 폐지와 많은 양의 설거지는 참으로 신선했고, 쥐를 수없이 많이 잡은 재밌었던 기억들과 안타까운 고양이 사건, 6월 훈련소 입소, 무더운 여름 아이들과 함께 한 물놀이, 지긋한 장맛비, 즐거운 체육대회, 정말 추운 겨울나기, 파릇한 새싹 아름다운 꽃의 봄…. 내게 이렇게 많은 추억이 하나하나 모두 보석이 될 것이다.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2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 하지만 그 속에서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고 근무하는지에 따라 2년이라는 시간이 인생에서의 보석으로 남을지, 그냥 낭비한 시간으로 남을지의 선택은 우리 자신과의 몫이다. 만일 이 시간이 지겹고 재미없게 느껴진다면 하찮게 여기던 요소들에 의미를 부여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작은 일이라도 의미를 부여해 이루어 나가면 성취감을 얻게 되어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이다. ‘힘들고 지친다면 한 가지만 기억해 보는 건 어떨까? 비온 뒤 무지개는 반드시 떠오른다는 사실을.’

도서관 복무일지



한 민 구 (경기도립성남도서관)

도망치듯 시작한 사회복무

2014년 여름, 나의 사회복무는 시작되었다. 공부엔 자신 있었다. 아니 다른 건 해보지 않아서 일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노력을 배신하진 않는다는 생각이 있었다. 언제부터 학교 성적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다. 공부하는 시간이 부족해선가? 하던 일들을 모두 그만두고 학교 공부에만 매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책은 옛날만큼 잘 읽히지 않았다. 꾸역꾸역 진도를 매꿔 중간고사를 봤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라는 게 이럴 때 쓰는 건가. 첫 문제, 첫 문제는 항상 쉬운 개념을 묻는 문제임을 알았지만, 같은 문장을 수없이 읽어도 질문은 머릿속에 정리 되지 않았다. 글자는 따로따로 내 눈앞에서 핑핑 돌뿐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눈물이 났다. 이젠 어떻게 해야 되지. 더 이상 그만 둘 일도, 바꿀 수 있는 환경도 없었다. 시험장에서 나와 학과 사무실로 향했다. 중도휴학을 신청하고 조용히 훈련소 입소를 기다렸다. 도망치듯 훈련소에 입소했다. 1달의 훈련을 마치고 나는, 우연인지, 책으로 둘러싸인 도서관으로 배정받았다.

도서관엔 책이 정말 많았다. 하지만 읽고 싶진 않았다. 매일 내 앞으로 100여권의 책들이 다녀갔지만 쉽사리 집어들 맘은 생기지 않았다. 종이덩어리로 느껴졌다. 자리에 앉아 기계처럼 맑은 일만 묵묵히 했다. 스스로 도망쳐온걸 알아서인지 나에 대한 존중도 없다시피 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지.

새로운 정착지, 책

그렇게 우울한 시기를 보내기를 몇 달, 어느 비가 오는 날이었다. 작업복을 입으신 인부 한분이 도서관에 오셨다. 주위를 잠깐 살피시고 쑥스러운 얼굴로 데스크로 오셨다.

“실례합니다. 우리 역사에 대해 궁금해서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900번으로 가시면 역사서적 이용하실 수 있으세요.”

“혹시 괜찮은 책 있으면 도와줄 수 있나요?”

말투로 보아 조선족 분이셨다. 간단한 도서관 이용법을 알려드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900번 역사 서적이 있는 곳으로 같이 갔다. 쉽게 쓰인 책 세권을 골라 드린 뒤 자리로 돌아왔다.

“감사합니다. 우리 뿌리가 궁금해서요.”

중국에서 오신 그분은 뿌리를 찾기 위해 도서관에 오신 거였다. 여전히 쑥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웃는 얼굴은 한층 밝아져 있었다. 손에 골라드린 책을 꼭 쥐고 나가시는 뒷모습을 보니 나도 기분이 좋아졌다.

뒷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끼던 중 문득 생각이 들었다. 저분에게 책은 무엇일까?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 저분은 책을 선택했다. 한동안 나에겐 종이덩어리에 불과한 물건이었다. 나에겐 손만 뻗으면 언제든지 닿을 수 있던 책과 그분이 타지에서 빗길을 뚫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닿을 수 있던 책은 같은 책이었다. 한동안 책의 소중함을 잃고 살았다는 생각이 머리를 쳤다. 애초에 내가 책을 바라보던 시각이 잘못되었음을 알았다. 책은 활자의 연속에 불과한 단순히 시험을 보기위한 개념서 같은 것이 아니었다. 그분에게 책은 자신을 발견하는 수단이었다. 책을 읽음으로써 작가와 소통하고, 그 작가가 살아간 그리고 책에 담은 시대와 소통하고, 더불어 자신과 다시 한 번 소통하는 것이 책이었다. 그런



생각 없이 책을 단순히 시험을 보기위해 아니면 아는 것을 넓히기 위해 읽어야 되는 의무쯤으로 여겨왔으니 나는 지칠 수밖에 없었던 거다. 아. 책을 다시 읽어야겠다. 상경대학을 다니던 나는 전공과 관련된 경제서적이 아니면 한낱 시간 낭비로 여겼다. 치우쳐진 글 읽기였다. 내가 궁금한 책을 읽어보자. 그분이 가시고 이용자분들이 반납하고 가신 책들을 보았다. 박민규 소설가의 ‘삼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이란 소설이 눈에 들어왔다. 책이 다시 읽혔다. 이기기 위해 뛰던 프로선수들과 달리 삼미 진짜 야구를 지키려 했던 삼미 선수들처럼, 의무로만 다가오던 책은 더 이상 의무가 아닌 책 그 자체로 다가왔다. 한 권 두 권 읽다보니 좋아하는 작가가 생기고 좋아하는 시가 생겼다. 경제에 한정되지 않고 심리, 사회, 역사, 예술, 과학 등 읽는 분야도 차츰 다양해졌다. 조선족 이용자 분보다 책과 더 가깝게 지낼 수 있는 환경에서 자라왔음에도 그분만큼 책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책 읽는 게 즐거워졌다.

시민과 사회 사이의 문, 도서관

책을 보는 시각이 변하고 도서관에 대한 차츰 이해도 달라졌다. 하루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손을 맞잡고 도서관에 오셨다. 두 분 모두 도서관 이용이 처음이셨다. 늦은 나이에 무언가 새로운 걸 시작한다는 건 항상 두려움을 동반하는 일이다.



“학생, 태백산맥이란 책을 찾고 싶는데 어떻게 찾나?”

‘태백산맥’을 찾아 드리면서 청구기호 보는 법도 함께 알려드렸다. 재차 청구기호 보는 법을 물어보시더니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다시 서가로 들어가셨다. 찾으시는 책은 이미 찾아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뒤 할머니 손엔 ‘토지’가 들려있었다. 단순히 책을 빌려드리는 것에서 내 역할 그리고 도서관의 역할을 다한다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정보에 수동적이기만 했던 그분들이 스스로 원하는 책을 찾아 읽으실 수 있게 됨으로써 능동적인 정보소비자로 변하신 것이다. 그렇게 두 분의 도서관 이용은 시작되었고 이후로도 자주 오셔서 책을 빌리신다. 지긋하신 연세에도 책과 닿을 수 있는 그분들의 모습은 도서

관이라는 공간이 사회와 호흡하는 또 하나의 문이 되어줄 것이다. 도서관은 문과 같은 곳이었다.

또 한 번은 주말 컴퓨터실에서 근무할 때였다. 흰머리가 듬성듬성 나신 분께서 데스크로 오셨다.

“학생 컴퓨터 좀 할 줄 알아? 사진을 넣으려고 하는데 크기가 안 맞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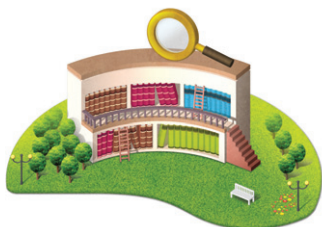
자리에서 일어나 컴퓨터 앞으로 갔다. 이력서가 띄워져 있었다. 증명사진 크기를 조절해 드리면서 적어두신 생년월일이 눈에 들어왔다. 올해로 만 55세. 다른 곳에서 직장생활을 하시다 퇴직하시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시는 중이셨다. 컴퓨터 옆에 쌓인 책들은 재취업을 위해 한동안 도서관에서 공부하셨음을 알 수 있게 했다. 셔츠를 걷어 올린 채 이력서 작성을 마무리 하시고 팩스를 보내려 가는 그분에게 도서관은 앞서 오신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마찬가지로 사회로 다시 연결되는 문과 같은 곳이었다. 정적이라고만 생각했던 도서관은 시민들에게 책 창고 이상의 의미를 가진 곳이었다.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통해 그리고 책이라는 매체를 통해 다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비축하는 곳이었다.

도서관과 시민의 중계자, 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으로 그분들이 조금 더 쉽게 사회와 연결될 수 있게 돕는 일은 적지 않은 보람이었다. 학교를 다니며 수업 과제로 여성의 병역 의무에 대해 제출한 적이 있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은 1등 시민, 그렇지 못한 사람은 2등 시민으로 낙인찍는 국민정서를 다룬 에세이였다. 사회복무판정을 받은 뒤, 현역병이 아니라는 주변의 시선은 항상 나에게 부족함하였고, 이미 많이 논의가 진행된 여성 군 문제를 앞에 세웠지만 여성이란 단어 안에는 현역병으로 복무하지 못하는 내가 항상 포함되어있었다. 하지만 총을 들지 않는 사회복무라 하여 부족한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병역을 지는 방식의 차이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름다운 책을 읽는 것은, 책과 우리의 영혼의 끊임없는 대화라 한다. 책을 그리고 사회의 일부를 시민들과 연결하는 일에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보람이 느껴졌다. 사회복무요원은 국가와 국민 사이의 연결고리라고



생각한다. 국민 가장 가까이에서 피부를 맞대며 국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움직이는 복무다. 부족함으로만 느껴지던 사회복무, 도망쳐온 피난처로만 생각되었던 사회복무는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고 새로운 꿈을 갖게 되는 시간이 되었다. 다시 책읽기를 시작하며 새로운 꿈이 생겼다. 정보가 보다 평등한, 접근이 용이한 사회가 되면 좋겠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느껴졌을 때, 스스로 비워졌을 때 배움은 시작되었다. 복무를 마치면 다시 학교로 돌아가 학업을 마무리 짓게 될 것이다. 그때 또 다시 글 읽기가 어려워지고 더 이상 새로운 도전이 힘들어 졌을 때 도서관에서 근무했던 걸 기억할 것이다. 배움에 망설이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하던 이용자님 그리고 책과 시민들 사이에서 중계역할을 맡으며 보람과 기쁨을 느꼈던 나를 기억할 것이다. 이젠 도망쳐온 사회복무가 부끄럽지 않다. 무엇을 하고 지내는지 물어보면 당당하게 이야기 할 수 있다. 사회복무중이며 시민과 책 그리고 사회를 연결하는 일을 돕고 있다고.



정(停) 때문이 아니고, 정(情) 때문이에요

머물다 떠나는 사람이 아닌,
도움이 되며 머물고 싶습니다.



고 윤 석 (제주보육원)

“삼촌 이게 뭐예요?”라며 나에게 한문 공책을 들고 찾아온 우리 시설의 한 여아동이 있었다. 초등학생이지만 꽤 똑똑한 아이였다.
매일 같이 찾아오며 나에게 한문을 가르쳐 달라던 그 여아동이 어느 날,
내가 공부하고 있는 중국어 책을 보더니 자기도 중국어를 배우고 싶단다.
“삼촌같이 중국어를 하고 싶어요.”라며 나에게 가르쳐 달란다.
그렇게 시작 되었다. 우리 시설에 대한, 우리 아동들에 대한 나의 애정(愛情)이...

“혹시 가능하니?”

“다음은 제주 보육원 고윤석, 담당자분은 시설로 인솔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고요? 바로, 제주도 열린정보센터에 모인 사회복지무원들과
각 시설에 담당자분들이 만나 각 시설로 인솔되기 위해 안내해주는 말입니다.
그때 담당자이신 국장님이 출장을 가셔서 다른 선생님이 저를 데리러 오셨습니다.
선생님의 차를 타고 시설로 향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도 저의
기억 속에 그 때 차안에서의 대화 중 잊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산외국어



대학교에서 중국어를 전공한다고 했지? 그럼 혹시 우리 아동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쳐 줄 수 있겠니?” 이 말을 듣고는 선뜻 “네”, “아니요”라고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대학교에서 1년 동안 중국어 집중교육을 받고 왔지만 제 스스로는 아직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해서 그 질문에 응하기도 냉정하게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거짓말도 하기 싫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직은 중국어 실력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 대화가 마무리 될 때쯤 보육원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작 되었죠, 제주 보육원의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제 삶이.

우물 안 개구리, 우물 밖으로 도약하다!

“나는 참으로 즐겁다. 우물 시렁 위에 뛰어오르기도 하고, 우물 안에 들어가 부서진 벽돌 가장자리에서 쉬기도 한다. 또 물에 들면 겨드랑이와 턱으로 물에 떠 있기도 하고, 발로 진흙을 차면 발등까지 흙에 묻힌다. 저 장구벌레나 게나 올챙이 따위야 어찌 내 팔자에 겨누기나 하겠는가? 또 나는 한 웅덩이의 물을 온통 혼차 차지해 마음대로 노니는 즐거움이 지극하거늘, 동해에 사는 자라, 자네는 왜 가끔 내게 와서 보지 않는가.”

- 네이버 속담 풀이 출처 -

위에 적혀있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물 안 개구리란 속담의 유래입니다. 이 속담을 인용해 저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물 안 개구리처럼 직접 부딪혀보고 직접 만나보고 느낀 것들만이 세상의 전부인줄 알았습니다. 나름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일들을 겪으며 살아왔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겪든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하듯이, 저도 보육원에서의 일도 그렇게 판단하였습니다.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저만의 틀에 박혀 오로지 딱 보이는 만큼만, 들리는 만큼만 상대방을 알고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일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어요. 우리 시설의 아이들에게도 잘못된 것이라고만 했지 아이들이 왜 그랬고,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해해보려고 하지 않았던

저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이들과의 관계형성에 있어 아동도 저도 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한 권의 책이 찾아왔습니다. 최인철 교수님의 ‘프레임’이란 책입니다.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세상을 보는 마음의 창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사람마다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하고 다양한 가치관으로 저마다 다르게 세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책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저 깊은 곳에서부터 미안함이란 파도가 덮쳐왔습니다. ‘너’의 일을 난 너무 ‘나’의 시선으로만 널 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때부터였습니다. 상대방의 생각과 행동을 나의 기준에 맞춰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어떤 생각이었을까?, 내가 몰라준 것은 없었을까? 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요. 밤, 낮 없이 찾아오는 파도에 휩쓸려 있는 시간 동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눈이 아닌 마음으로 끊임없이 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작지만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아 그랬구나, 니가 정말 마음이 힘들고 아팠겠다.” 어느 덧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결론지었던 모습은 차츰 누그러지고, 상대방의 생각과 말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씩 지금까지도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아동들과의 관계형성에 있어 어려움을 겪던 저에게 해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아동들도 달라진 저의 마음을 알아주었는지 하나 둘씩 저에게 먼저 다가와주는 아동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자신만의 세상에서 보고 느낀 것이 세상의 전부인줄 알았던, 그 작은 우물 속 개구리가 더 넓은 세상을 향한 첫 번째 도약이 아닐까요?

“삼촌 이게 뭐예요?”

“삼촌 이게 뭐예요?” 라며 저에게 한문 공책을 들고 찾아온 한 여아동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생이지만 꽤 당차고 학습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푼푼한 아이였습니다. 매일 같이 찾아오며 자신이 모르는 한문에 대해 저에게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막막했습니다. 한문을 가르치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다만, 막막함을 느낀 것은





딱딱한 글자에 딱딱한 수업이 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한문 학습에 접근을 해야 한문 학습에 대해 경계심을 갖지 않고, 딱딱한 글자를 재밌게 받아들일까? 라는 고민을 하며 한문 학습을 진행하고 있던 중. 그 여아동이 어느 날, 제가 공부하고 있는 중국어 책을 보더니 자기도 중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합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중국어 공부를 매일매일 하고 있던 이유는 제가 중국어 전공이어서도 있지만 사회복지요원으로 시설에 인솔되는 동안 아이들에게 중국어 과외를 해줄 수 있느냐는 선생님의 질문에 선뜻 응하지 못한 제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매일 공부하였습니다. 아무튼, 제가 중국어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본 그 아동이 “삼촌같이 중국어를 하고 싶어요.”라며 저에게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아동이 찾아올 때마다 아주 쉬운 중국어를 가르쳐주곤 했습니다. 저와 그 아동의 수업은 아동이 시간이 나면 잠깐 짬을 내서 가르쳐주고 끝나는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근무하는 평일 5일 동안 매일 같이 짧은 시간이지만 한문 학습에 대한 시간을 함께 보내다 보니 어느덧, 저에게 찾아와주던 아동에게 감사함을 느끼게 되고 그제 점차 커지면서 다른 아동들에게도, 우리 시설에도 애정(愛情)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애정(愛情)이 점차 커지면서 저는 “우리 시설과 아동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복지요원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함으로써,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매일같이 저와 딱딱한 글자를 공부하던 그 여아동의 말이 떠오릅니다. “삼촌같이 중국어를 하고 싶어요, 가르쳐 주세요.” 그리곤 마치 아רכ이메데스라도 된 것 마냥 유레카를 외칩니다. “그래! 바로 이거다! 아이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쳐 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아동과 시설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한 저의 두 번째 도약이.

정(停) 때문이 아니고, 정(情) 때문이에요.

어느 더운 여름날, 토요일이었습니다. 더위를 먹은 저의 핸드폰도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요란한 전화벨소리와 함께 드디어 잠을 깬 모양입니다. 전화를 받아보니, 시간이 되면 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 국장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선뜻 응했습니다. 국장님과 만나 차로 이동하면서,

차안에서는 이런저런 소소한 이야기들이 오고갑니다. 그러다가 제가 마음으로 외친 유레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여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여쭙보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대한 답이 아닌 “왜?” 라는 질문이 돌아옵니다. 제가 왜 중국어 학습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잠깐 동안은 대답을 못하겠더군요. 제가 왜 중국어 학습프로그램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 의지가 어떤지, 어떻게 말을 해야 전달이 잘될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짧은 시간의 고민 끝에 저의 화술이 뛰어나지 않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저의 진심을 최대한 잘 전달하고자 입을 뗍니다. “제주 보육원의 사회복지무요원으로서 그 동안 지시받은 모든 일에 yes로 답하며 일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에 열심히 하는 것도 시설에 도움이 되는 부분 중 하나겠지만, 저는 단순히 시설에서 시키는 일만 하며 24개월이란 시간을 그냥 이 시설에 머물다 떠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다릅니다. 단순히 이 시설에 머물기 위한 정(停)이 아닌, 누군가가 시켜서 정(定)한 것이 아닌, 우리 시설과 우리 아동들에 대한 정(情) 때문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자 그 방법을 생각하다 중국어 학습프로그램이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다른 많은 선생님들이 아동들에게 주는 많은 도움들과는 차별화된 제가 제일 잘할 수 있고, 이 시설에서 제가 특별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전공하고 있는 중국어를 가지고 학습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중국어 학습프로그램을 꼭 진행하고 싶습니다. 사회복지무요원이란 이름으로 머물다 떠나는 사람이 아닌 시키는 일에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닌, 스스로 도움이 되는 일을 만들어 더 좋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 머물고 싶습니다.” 국장님이 한 동안 말이 없으십니다. 아마 생각을 하고 계신 모양입니다. 마냥 답변을 계속 기다리는게 초조한 나머지 저도 모르게 자꾸 국장님을 쳐다보게 되더군요. 국장님도 그것을 의식하셨는지 피식 웃으시며 한 말씀 하시더군요. “정말로 중국어 학습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다면, 중국어 학습프로그램에 대한 사업계획안을 만들어서 가지고와, 그리고 그 사업계획안으로 중국어 학습프로그램 진행에 대해 다른 선생님들에게도 동의를 받아내면 진행하게 해줄게.”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사업계획안이라니요? 저는 살면서 사업계획안이란 것을 본적도 적어본적도 없는 사람인데, 참 앞이 캄캄하더군요.



프로그램 하나 진행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거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국장님과 의 대화를 한 그 날부터 사업계획안과 시간표, 수업계획표, 그리고 중국어교재 까지 만들었습니다. 교재는 아이들이 중국어를 어렵고 경계심을 가질 것 같아, 중국어와 친해지기란 이름으로 아이들이 좋아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내용들로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출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제출한 사업계획안이 한 방에 반려처리 당했습니다. 아, 우리 칼 같은 국장님.. 다시 의기투합해서 사업계획안을 작성하고 제출했습니다. 이번엔 통과였습니다. 아직 사업계획안만 통과하였을 뿐인데 멀게만 느껴졌던 중국어 프로그램 진행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 기쁘더군요. 사업계획안을 통과한 뒤, 며칠이 지나고 국장님의 도움으로 선생님들에게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긴장된 마음을 숨기고 설명을 하자니 정말 애 엄마의 등줄기처럼 애가 타더군요. 그렇게 긴장의 연속의 끝에서 모든 설명이 끝났습니다. 다행히 모든 선생님들이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기뻐했습니다. 남이 시킨 일이 아닌, 제가 원해서 하는 일이 많은 선생님들의 응원을 받으며 그렇게 시작됩니다.

중국어와 친해지기

많은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드디어 중국어 수업을 하게 됩니다. 수업을 하다 보니 중국어와 친해지기 단계를 만든 것이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렵게만 느꼈던 중국어였겠지만, 제 수업에서 만큼은 아이들이 언제나 중국어를 재밌게 공부하며 웃음이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렇게 중국어와 친해지기 교실에서 아이들과 같이 웃으며 때론 아이들의 고민도 교실에서 들어주며 이 시설에 서서히 젖어 들어갑니다. 그렇게 중국어와 친해지기 수업 후, 저는 이 글을 적고 있는 지금도 아이들에게 중국어로 인사를 받으며 늘 미소 짓곤 합니다. 아이들이 중국어로 인사를 해줄 때 마다 정말 기쁩니다. 자칫 어려울 수 있고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는 중국어를, 중국어와 친해지기 단계 후 아이들과 중국어가 친해졌다는 것이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작은 저의 노력이지만 아이들의 생활에 있어서 큰 변화들이 생긴 것 같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니다. 저는 제가 진행한 중국어 학습프로그램이 큰 성공을 이루었다고 봅니다. 왜냐, 저의 목표는 아이들과 중국어가 친해지는 것, 그리고 아이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단 한마디라도 중국어를 말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가 감사한 사회복무요원으로 거듭나다

여러분은 담당자분과 대화를 많이 하시는 편이신가요? 저는 담당자이신 국장님과 짧은 길던 대화를 하루에 한번은 하는 편입니다. 어느 날, 국장님이 저에게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퇴근 전에 복무일지 쓰시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복무일지에 보면 기타참고사항이라는 빈 칸이 있습니다. 저의 숙제는 바로 그 칸에 하루의 감사한 점 하나씩 적기입니다. 솔직히 처음 한 달 동안은 어렵더군요. 정신없이 지나간 하루에 내가 무엇에 감사함을 느꼈는지도 통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근무하는 시간동안의 감사한 점 찾기란 사막에서 바늘 찾기 같더군요. 하루하루 다른 감사함을 느껴야 된다는 부담감 또한 느꼈습니다. 내가 무엇에 감사함을 느꼈는지 매일같이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끝에 드디어 해법이 보이더군요. 국장님의 의도를 알아냈습니다. 그 의도를 알아낸 순간, 연거푸 술을 들이마신 것처럼 얼굴이 빨개지고 속이 쓰리더군요. 마치 한 방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남이 저에게 감사함을 느끼게끔 행동을 해야 제가 감사함을 느낀다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더군요. 하루하루 감사한 점 찾기를 통해 알았습니다. 감사함이란, 매번 다른 감사함이 아닌 같은 감사함을 느낄 수도, 내 스스로에게, 아주 사소한 것에, 때론 꾸밈음에 감사할 줄도 알아야한다는 것ですよ. 하루하루 감사한 점을 찾으며 저도 놀랐습니다. 일을 하며 생긴 굳은살에, 때론 다른 선생님의 꾸밈음에도 감사해했습니다. 감사한 점을 찾다보니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굳은살이 생겼기에 빗자루질을 할 때, 아니면 다른 일을 할 때 손이 아프지 않더군요. 선생님의 꾸밈음에도 이젠, 아 내가 정말 이 시설에 필요한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점 찾기를 통해 제주보육원이란 곳에서 근무하는 하루하루가 감사한 사회복무요원으로 거듭났습니다. 체험 수기를 적고 있는 이 순간 또한



저는 너무 즐겁고 감사합니다. 체험 수기는, 저의 꿈을 향한 많은 계단 중 하나의 계단을 더 오르게 해준 아주 감사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 한마디, 짧은 글 한 마디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마음을 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어 만져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꿈입니다. 체험 수기라는 좋은 기회를 통해 잊고 있던 추억들이 떠오르고, 그 추억으로 인해 행여 지나칠 수 있었던 또 다른 감사함 들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이 처럼 감사한 점 찾기란 누구나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고 다양한 다른 사회복무요원 분들도 하루하루 감사함을 찾아 보시는건 어떨까요?



“찬 스”

2년, 내가 진짜어른이 된 시간.



권 준 우 (충주시 금가양로원)

“인생은 곱셈이다. 아무리 찬스가 와도 네가 제로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나에게 찬스가 왔다.
그 찬스는 바로 사회복지부요원으로써 나에게 주어진 2년의 시간이다.

머리말. 왜?

흔히 사회복지부요원들에게 양로원, 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은 피하고 싶은 근무지 1위라고 한다. 왜인지는 아마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것이다. 물론 나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2012년 12월 실시되었던 사회복지부요원 근무지 본인 선택기간에 망설임 없이 스스로 양로원을 선택하였다. 왜 그런 선택을 했냐고 묻는다면 그냥 입소하는 날이 7월이었기 때문이다. 절대 다른 이유는 없었고 오로지 7월이다. 왜 7월이냐고 또 묻는다면 ‘그냥 소집해제 후 학교에 복학하기 편하니까.’ 이게 내 대답이다. 사회복지부요원은 복무기간이 딱 2년이기 때문에 괜히 어중간한 날짜에 입소를 했다가는 흔히 말하는 칼복학(군 전역 후 휴식기 없이 복학하는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남들이 보면 ‘참~ 속도 좋다~’

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이 선택에 있어 이제껏 후회해본적은 없다. 이렇게 속 좋은 이유로 2013년 7월 나와 만나게 된 금가양로원. 그리고 그로부터 1년 11개월이 지난 2015년 6월 지금, 소집해제를 약20일 가량 앞둔 내가 지금까지 복무를 하며 무엇을 느끼고 알게 되었는지 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고자 한다.

자격지심(自激之心)

나는 O형이다. 흔히 알려진 O형의 성격은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않으며, 낙천적이고 자존심이 강한 성격이다. 물론 O형인 사람 모두에게 해당 되는 말은 아니지만, 나는 대부분 공감하는 편이다. 이제껏 나는 내가 조금이라도 듣기 싫은 말은 듣는 그 자리에서 바로 흘려버렸었고, 남이나에 대해 하는 말에 상처를 받거나, 애초에 깊게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2년 전, ‘사회복무요원’이라는 6글자의 단어가 내 이름 앞에 놓인 이후로 내 모습은 예전과는 조금 달라졌다.

생각해보면 정말 아무 의미 없는 말들이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흘려버릴 수 있는 그런 말들이었지만, 그 말은 그 당시 나의 귀에는 그렇게 들리지 않았다. 그런 말들은 내가 사회복무요원이기 때문에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았고, 나를 막 다루어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하는 말들로 들렸다. 물론 나를 정말 무시했기에 했던 말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냥 나 혼자만의 생각, 한마디로 자격지심이었다. 나는 내가 이런 자격지심 때문에 괜히 혼자 상처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놈의 자격지심이란 아이는 커다란 벽이 되어 내 앞을 막아선 채 나를 점점 더 고립시켰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일에 대한 무기력함으로 이어졌고, 한동안 나를 괴롭혔다.

이렇게 자격지심에 극도로 시달렸던 내가 지금은 먼 옛날 이야기하듯이 말할 수 있게 된 건 간단하다. 바로 인정이다. 솔직히 생각해보면 나조차도 내가 보충역판정을 받기 전에는 사회복무요원이란 사람들을 어딘가 부족

하고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좋게 보지는 않았었다. 나도 이랬었는데 다른 사람들이라고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은가.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다. 또 주변사람들에게 솔직하게 나의 생각을 말하고 그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다. 나는 부모님께 관한 걱정을 끼치는 게 아닐까, 나보다 더 힘든 군 생활을 보내고 있을 친구들에게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될까 라는 생각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있었다. 하지만 대화를 통해 사회복지요원에 대한 그들의 솔직한 생각을 듣고 나니 내가 얼마나 혼자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는 생각을 좀 더 긍정적인 쪽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문득 다시 생각이 날 때쯤에 나는 이미 자각지심이란 벽을 넘고 예전처럼 앞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솔직히 나는 이 벽을 완전히 뛰어 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언젠가 내 앞을 막아설지 모르고, 이 벽은 나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기서 이 벽을 만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나중에 내가 다시 이 벽을 만나게 될지라도 나는 금방 뛰어넘을 자신이 있기 때문이다.



고려장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양로원은 참 좋은 것 같다. 시간이 되면 나오는 밥과 간식, 또 선생님들은 어르신 한분, 한분 빠짐없이 케어해주시고 청소부터 빨래까지 모든 것을 해드린다. 그리고 쓸쓸하게 집에 혼자 계시는 것 보다는 양로원에 와서 어르신들끼리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시며 재미있게 사실 수 있으니 여기보다 더 편하고 좋은 곳이 어디에 있을까? 딱 여기까지가 복무를 시작한지 얼마 안 지났을 때인 조금 어렸던 나의 생각이다.

그 후로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 내 생각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양로원이란 곳이 마냥 좋아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양로원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양로원, 요양원 이란 단어에 대한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다. 언젠가 우리양로원의 선생님한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양로원에 처음 오게 된 어르신들은 아마 대부분이 자식에게 버려졌다는 느낌을 가지고 계실 거야. 1년에 한 번도 안 찾아오는 보호자들을 보면 현대판고려장이 바로 여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이 말을 듣고 나니 나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내가 인사하면 항상 웃으면서 반겨주시던 어르신들의 마음 한구석에 저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을 줄은 몰랐다. 겉으로는 ‘나는 괜찮으니 걱정 말라’ 고 말씀하시지만 그 말속 깊이 보이지 않는 자식에 대한 그리움과 아쉬움, 슬픔, 그리고 원망...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이 먹먹해진다. 물론 보호자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면 무조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가끔은 와서 부모님얼굴도 보고 같이 식사도 하는 게 부모님에 대한 자식의 도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

지금에 나야 아직 어리고 부모님도 젊으시기 때문에 뭣도 모르고 이런 말을 하는지도 모른다. 나는 과연 나중에 어떻게? 종종 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은 ‘지금 내 나이에 생각할 문제는 아니잖아? 나중에 생각하자’ 이것이다. 그만큼 나도 나를 잘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건 이런 생각을 할 만큼 내가 어른스러워졌다는 것이다. 예전에 내가 양로원에 대해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받은 느낌을 어머니께 말씀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머니께서 나에게 “너는 양로원에 가길 참 잘했다.” 라는 말을 하셨었다. 아마 어머니께서도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들이 예전보다 많이 어른스러워졌다는 것을 느끼셨나보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어르신들은 나에게 항상 아낌없는 칭찬을 해주신다. 어쩔 그리 못하는 일이 없냐며, 또 어쩔 그리 부지런하냐며 내가 정말 민망할 만큼의 칭찬을 해주신다. 하지만 처음에는 이런 칭찬을 마냥 기분 좋게 받을 수는 없었다. 자랑은 아니지만 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시작하기 전에는 우리 집 마당에 빗자루질 한번, 벽에 망치질 한번 해본 적 없었다. 그랬으니 당연히 복무를 막 시작했을



때의 내 모습은 무슨 일을 하던 굉장히 미숙하고, 어리바리 했을 것이다. 나도 역시 이를 알고 있었고, 그만큼 자신감도 부족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칭찬을 해주실 때마다 과연 내가 이 칭찬을 받아도 될 정도로 잘하고 있나 라는 생각에 괜히 마음이 불편했고, 부담스러웠다.

물론 지금의 나는 예전과는 다르다. 어르신들의 칭찬을 이제 여유롭게 웃으면서 받을 수 있다. 양로원에서 2년의 시간을 보낸 지금의 나에게는 양로원에서 하는 일들은 일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처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자신감이 생겼고, 더 나아가 2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 어딜 가서 무슨 일을 하던 자신 있고 당당하게 해낼 수 있는 배짱도 생겼다. 내가 이렇게 변화하고 발전한 만큼 어르신들이 해주시는 칭찬의 말도 예전과는 조금 달라졌다. “학생 가고나면 이제 이 일은 누가하나?”, “너 가고나면 난 어떡하니?” 와 같이 칭찬과 동시에 아쉬움이 가득 섞인 말들을 해주신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괜히 섭섭하고, 아쉬워지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가 걱정했던 것 보다 일도 잘하고 어르신들에게 예쁨도 많이 받았구나.’ 라는 생각에 보람도 느끼고 기분도 좋아진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나는 고래는 아니지만 칭찬을 들으면 춤추고 싶을 만큼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아마 어르신들도 이를 아시고 처음 어리바리했던 나에게 잘하고 있으니 더 열심히 하란 뜻으로 그렇게 칭찬을 해주신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그리고 더 이상 그런 칭찬이 불편하지 않은 내가 되기 위해 나는 열심히 노력했고, 그 결과 나에게 부족했던 자신감도 생기고,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오늘도 나는 역시 칭찬을 들었다. 그리고 그 칭찬을 해주시는 어르신들 덕분에 오늘도 나는 조금 성장했고, 오늘 하루도 기분 좋게 보낼 수 있었다.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어른이란 무엇일까? 국어사전에서의 어른은 ‘다 자란 사람, 만 19세 이상의

성인을 가리킨다.’ 라고 표기되어있다. 여기에 따르면 나는 이미 어른이다. 하지만 겉만 어른이었다. 지금에 와서 예전의 내 모습, 아니 당장 1년 전의 내 모습을 생각해봐도 겉모습과는 반대로 그 속은 정말 어렸었다. ‘왜 그런 말을 했었고, 왜 그런 행동을 했었고, 왜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못했었을까.’ 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 당시 나의 모습이 부끄럽고 후회스럽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과거 자신의 모습을 떠올린다면 후회할거라 생각한다. 자신이 가장 후회가 되는 시기를 한번 떠올려보자. 누군가는 철없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기도 하고, 누군가는 힘들었던 고난의 시기를 떠올리기도 하고, 누군가는 자격지심에 혼자 상처받고 아파했던 시간을 떠올리기도 할 것이다. 이처럼 처음부터 어른인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다. 학교를 다니고,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나이를 먹어가고 그렇게 조금씩 어른이 되는 것이다. 어쨌든 이러한 시기를 잘 헤쳐 나갔기에 지금에 내가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자신을 돌아보고 많은 것을 배웠기에 ‘지금의 나라면 그때 그 시간을 그렇게 보내진 않았을 텐데….’ 라고 후회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므로 나는 내가 어렸던 나의 시절, 힘들었던 그 시기를 후회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맺음말. 진짜어른

2년 동안 변한 것이 참 많다. 21살에서 23살이 되었고, 2013년에서 2015년이 되었다. 그리고 들리지 않았던, 듣고 싶지 않았던 말들이 들렸고, 보이지 않았던, 볼 수 없었던 것들이 보이게 되었다. 또 할 수 없었던, 할 생각조차 안했었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나에게 있어 소중한 찬스가 되어준 2년의 시간. 이 시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아마 대부분의 사회 복무요원들이 근무지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피로로 인해 잘 모르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오늘 내가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나의 인생에 있어 얼마나 소중한 찬스가 될 수 있는지 깨닫길 바란다.

인생은 곱셈이다. 아무리 찬스가 와도 네가 제로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일본

의 유명 일러스트레이터 '나카무라 미즈루'가 남긴 말로 나의 좌우명이다. 찬스는 누구에게나 온다. 하지만 그 찬스를 놓치느냐 잡느냐는 본인에게 달려있다. 만약 나처럼 사회복지무요원으로써 주어진 2년의 시간을 찬스로 받아드리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느끼고, 무언가를 알고, 무언가를 해내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 시간은 나에게 있어 든든한 힘이 되어 나를 더 빛나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나는 이 찬스가 있었기에 많은 것을 느끼고 알게 되었으며, 이를 발판 삼아 비로소 진짜어른이 되었다. 물론 먼 훗날 내가 다시 지금의 내 모습을 떠올린다면 지금역시 어렸던 시절의 한 부분이었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지금만큼은 겉과 속 모두 어른인 진짜어른이 되었다고 말하고 싶다. 아니, 말할 수 있다.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 주의를 기울임

아주 작은 관심만으로도 많은 것을
치료할 수 있다



정 동 윤 (주택관리공단인천삼산관리소)

“아파트 관리소에도 사회복지요원이 필요하다고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예, 물론입니다.” 이다. 나는 2014년 8월부터 삼산영구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복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는 나 또한
아파트에 사회복지요원이 있음을 몰랐기에 그 자체로 매우 흥미로웠다.
근무복위에 형광조끼를 입으며 청진기 대신에 펜과 종이 및 공구를 들고
아파트에 살고 있는 독거노인들을 찾아간다.
친조부님들과 같은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환히 웃으며 반겨주신다.
값비싼 약 대신 대화보따리 한 꾸러미를 들고 찾아간다.
홀로 외롭게 지내거나 힘든 사람들에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치료제가 아닐까.

전혀 생각지 않았던 곳에서의 부름

4급 판정을 받은 사회복지요원이라면 대다수 인터넷을 통해 근무지를 본인
이 선택하였을 것이다. 나도 또한 장애인학교를 선택하였지만 기관의 요원 배
정 거절로 인해 병무청에서 임의로 재배정을 해주었다. 주택관리공단이라 하면

어떤 곳이라 생각이 드는가? 처음에는 공단이라 하면 공장을 말하는 건가? 말 그대로 집을 관리하는 곳인가? 인터넷을 검색 해봐도 주택관리공단이 어떤 곳인가 자세히 알 수 없었고, 나는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감을 잡을 수 없었다. 이런 상태에서 첫 근무하기 전 상위기관인 지사로 출근 하였는데 그곳에서 지사장님, 과장님과 모두 면담을 했다. 두 분 모두 “내가 배치된 곳은 다른 관리소들에 비해 힘든 곳이다. 그 곳에서 미리 사회를 경험한다 생각하고 2년 동안 성실히 하다보면 그 무엇보다 값진 경험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첫 근무를 시작하기도 전에 배정된 곳의 좋은 점 등을 말해주는 것과 달리 먼저 걱정부터 해주셨다.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시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아파트 위에서 떨어지는 낙하 물을 조심하라, 술 취한 사람들하고 싸우지 말라……. 등등의 말씀을 들으니 2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내게 될 곳이므로 걱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런 걱정 반 설렘 반의 마음으로 배치받은 근무지를 향하여 갔다. 첫인상은 그저 평화로웠다. 큰 나무들이 질서 정연하게 자라나있고, 화단이 잘 가꾸어져 있었으며, 전체적인 겉모습은 일반 아파트들과 다른 점들은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다. 바로, 전동 휠체어 무리였다. 마치 날씨 좋은 봄날에 야외회를 즐기듯이 삼삼오오 모여서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니었으므로, 나에게는 무섭게 다가왔다. 삼산영구 임대아파트는 한국○○주택공사에서 수급자, 한부모가정, 새터민, 국가유공자, 사할린 세대 등에게 제공하는 영구임대아파트이다. 영구임대아파트란 매달 3~4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세대에서 사용하는 수도 값이나 전기세, 난방비 등의 관리소를 밀리지 않고 내면, 본인이 나가기를 원치 않는 이상 영구적으로 계속 거주를 할 수 있는 아파트이다. 평수는 1700여세대 12평으로 모두 같고, 복도식이며, 6개동으로 이루어져있다.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주민 센터를 통해 신청을 하고 입주순서가 되면 관리소에서 서류심사를 통해 계약을 해서 입주를 하게 된다. 이처럼 입주민들의 대부분이 사회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그 중에서도 수급비를 받아서 생활하는 노인들이 주를 이룬다. 이 때문에 아파트에는 홀로 적절한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아보였다. 그래서일까? 첫 민원을 받는 날부터 술에 취해 욕을 하고 인사불성인 민원인들이 많이



왔다. 그들 대다수가 하는 말들은 나라에 대한 욕이었고 관리소에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민원이었다. 입주민들은 어떠한 괴로움으로 인하여 술에 의지하는 것일까?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건사고가 있었는가? 앞으로 이런 민원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과연 내가 이런 곳에서 버텨낼 수 있을까? 사회복지가 그저 사무보조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기 보다는, 사회 일부를 경험하고 어떻게 해야 효율적이고 원만한 해결 방안을 제시 할 수 있을지 생각하게 만드는, 나는 이 곳에서 일하게 되었다.

외로운 집의 의사, 관리흠닥터

관리소 사회복지요원이 맡았던 임무 중 관리 흠닥터 서비스가 있다. 단어 그대로 집을 관리하는 의사이다. 여기서 의사로서의 조건은 어려운 지식 및 기술이 아니라 그저 따뜻한 관심만 겸비하면 된다. 입주민들 중에 나이가 많고 혼자 거동하기 불편한 세대를 선정하여 매주 찾아뵙고 전화 드리고 집안에 고장 난 곳이 있나 없나 확인하고 말벗을 해드리는 서비스이다. 즉, 마치 손자처럼 정답고 따뜻하게 독거노인 분들에게 관심을 표하는 것이다. 흠닥터 서비스를 하다 보면 6.25 전쟁에 참전하여 다리에 총알이 관통해 불구가 된 할아버지의 용맹스런 이야기, 북에 가족을 남기고 떠나오신 가슴 애잔한 할머니의 이야기 등 대한민국의 한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절로 숙연해지고, 그들의 이야기로부터 삶의 지혜를 얻고 배움을 얻는다. 오히려 내가 의사가 아닌 환자가 되어 치료를 받고 오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았다. 한번은 흠닥터 세대에서 이야기를 끝마치고 나올 때 할머니께서 손주 같다면서 윗주머니에 무엇인가를 찔러 넣었다. 단박에 이게 돈인지 알아채고 극구사양 했지만 할머니께서 역정을 내시면서 “나 다시 안 볼 거야? 그럼 받지 말고.”라며 단칼에 거절했다. 어쩔 수 없이 받아 세대에 나와서 보니 그 돈은 무려 천 원짜리도 아닌 만 원짜리였다. 수급비를 받아서 생활하며 만원이란 돈은 할머니께는 무척이나 큰 돈이었을 것이다. 어떻게 돌려드릴지에 고민을 하다가 퇴근 후 슈퍼에서 평소에 못 드셔봤을 것 같은 음식이나 유행하고 있는 과자들을 사들고 할머니께 다시 찾아갔다. 할머니는 용돈으로 쓰지 뭘 또

이런 걸 사왔냐며 역정을 내셨지만 입에는 미소가 잔잔히 흐르셨고, 눈시울은 붉어 졌다. 음식을 먹는 도중에 할머니께서는 목이 막히시는지 잘 드시지는 못 하였지만 그저 “고맙다.. 고마워..”라는 말을 되풀이 했다. 할머니의 집을 나오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관심임을 몸소 깨달았다. 관심 그리고 관계를 통해 할머니도 그리고 나도 감동했고 행복했다. 홈닥터 세대를 돌아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대부분은 직접 과일을 깎아 주시거나 정성이 가득 들어간 차를 내어 주면서 “우리 손주 또 왔네? 왜 벌써가? 좀만 더 있다가 가지..”라는 말들을 해준다. 이 분들의 아픔은 차디찬 고독과 쓸쓸한 외로움에서 부터의 해방, 살갑고 따뜻한 정을 쌓고 대화를 하며 웃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채움의 기다림인 것이다. 비싼 약으로 치료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지켜보고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관심을 표하는 이 값싼 처방으로도 마음을 어루어 만져 드릴 수 있는 홈닥터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아파트 관리소에서 사회복지무를 하면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자긍심이자 최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아닐까 싶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드는가

앞서 언급했듯이 아파트단지에는 삼삼오오 모여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리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입주민들로 인하여 아파트에는 구급차나 경찰차가 거의 매일 같이 출동을 하고, 각종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하루에 최대 똑같은 경찰관분들을 단지 내에서 세 번씩이나 마주한 적이 있을 정도로 출동이 빈번하다. 이에 관리소에서는 특별세대관리현황을 따로 두어 관리하고 있다. 사건들 중의 대다수는 입주민들 간의 다툼이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다툼이 많고, 절도, 폭력 등의 사건들도 발생한다. 한 사건을 설명하면 같은 층에 사는 이웃주민끼리 서로 현관문을 망치로 두드려 부수고 오물을 투척하고 창문을 깨부수는 등 서로 헐뜯고 싸운 사건이 있었다. 경찰 고발 등은 일어나지 않고 관리소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동사무소의 연계 하에 한분은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한분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는 조치로 사건은 해결되었다. 이러한 사건은 단순히 이 세대만의 일이 아니라, 단지 내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한다. 관리소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해 업무방해로 고발조치한 사건, 형, 동생



하던 사람들끼리 서로 폭력을 휘두른 사건. 관리비와 임대료의 장기체납으로 인해 영화에서나 불법한 빨간딱지를 붙이는 강제집행 등 나는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이 술이라고 생각한다. 현관문 소음사건은 두 분 모두 알코올 의존 자였고, 관리소 기물을 파손한 분은 당시 음주상태였고, 이웃 간의 폭행도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일어난 사건이다. 강제집행도 물론 수급비를 술을 마시는 데 모두 탕진해 관리비를 내지 못해서 일어난 것이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드는가? 왜 항상 술에 의존해야 하는가? 근로의욕 없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돈을 받아 술값으로 탕진하는 입주자분들도 문제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을 그렇게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인 것 같다. 그 분들을 안 좋게 보는 시선과 인식이 그들이 술을 마시게 하고 술에 의지해 그러한 시선과 인식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사회복지부요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이 또한 편견 없는 관심이다. 두려워서, 힘들까봐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면밀히 파악한 후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것이다. 그리고 가끔씩 열리는 아파트행사에서 알코올 중독 치료 센터부스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거나 본인에게 치료 의사를 물어보면서 그들이 더 이상 술에 의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듯이 작은 관심이라도 꾸준히 내비친다면 그 분들도 조금씩이나마 관심을 갖게 되고 마음이 움직일 것이라 믿는다. 남은 복무기간 동안 내가 그들의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의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다. 꾸준히 실천해서 단 한 분 만이라도 나에게 웃으면서 “덕분에 살도 찌고 건강해졌어, 내가 왜 그랬었는지 몰라. 정말 고마워”와 같은 말을 듣는다면 2년의 시간이 정말 값진 순간이 될 것이다. 2년 동안 사회복지사를 하면서 복사, 인쇄, 팩스 등의 단순한 사무보조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회를 미리 경험하고 깨달으면서 사회 여러 계층에 대한 이해 뿐만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는 마음이 생겨난다면, 이 730일들이 20대 청춘 중에서 가장 보람차고 기억된 날들이 되지 않을까 싶다.



천사가 타고 있습니다



오 석 진 (대전해광학교)

“너 어디야?”

학교로 가야했던 나는 장애인 관련이라서 구청 복지과 소속이라 생각하고, 동구청에서 기다리다 연락을 받았다. 첫날부터 지각을 한 나는 추운날씨에 불구하고 땀범벅이 된 채 학교에 도착했다. 주무관님은 만나자마자 나에게 신고식 연습을 시키고 행정실장님과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께 인사를 하러 갔다. “충성! 이병 오석진은 2015년 2월 13일부로 대전 해광학교에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충성!” 나는 잘못 출근했다는 민망함에, 창피하지만 목소리를 아주 크게 했고, 기계장님은 우렁찬 게 보기 좋다며 너그럽게 용서를 해주셨다. 처음에는 ‘왜 이런 것까지 시키는 거지’라는 불만을 가졌었는데, 곧 기계장님께 감사함을 느끼고 열심히 연습했다.

사회에서 아직 ‘공익’이라는 명칭이 더 익숙한 사회복지요원은 인식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다. 그렇기에 처음 정문을 들어설 때 느낀 감정은 두려움이었고 좋지 않은 취급을 받으면서 길다고 느낄 수 있는 24개월을 보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경례를 함으로써 군인이 ‘군복무’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요원도 사회에 나와서 국가에 헌신한다는 생각을 마음속에 새겨 넣으면서 훨씬 당당해졌고, 이전에 했던 걱정도 많이 덜 수 있었다.

선입견을 벗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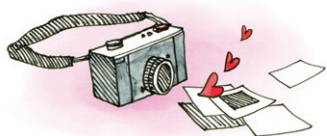
우리학교 학생들은 일반학교와는 조금 특별한 친구들이 모여 학급을 이루고 있다. 말과 행동이 서툴기는 하지만 진실 된 웃음과 행복이 넘쳐나는 학교다.

처음 학생들을 본 곳은 학교 급식실이었다. 초·중·고·전공 순으로 밥을 먹는 모습을 보는 데 새벽시장처럼 시끌벅적했다. 안간힘을 다해 밥을 먹지 않으려는 학생과 식사지도를 하고 계시는 선생님, 수저로 장난을 치고 있는 학생, 감정조절이 되지 않아 소리를 지르거나 뛰어다니는 학생, 혼자 밥을 먹는 것이 힘들어 실무원 선생님께서 직접 먹여주시는 학생들이 있었다. 그때 학생들을 보며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행동이 많이 다른 것일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해해보려고 했지만 쉽진 않았다. 장애학생들을 도와주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막막했다. 처음에는 그랬었다. 그러나 여러 반으로 지원을 가게 되면서 막막함은 금세 사라졌고, 마치 아이 같은 학생들을 보면서 사랑스러움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확신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랑 다를 게 전혀 없다는 것을 말이다.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착각이었다. 표현이 솔직할 뿐이다. 좋으면 미소가 가득한 표정을 짓고, 슬프면 눈물을 툭툭 떨어뜨린다. 화가 나면 화가 나는 그대로 표출해낸다. 그런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내가 다가가기 더 편하게 만들었다. 막막했던 것은 내가 그들에게 느끼고 있는 감정이 아니었다. 그들이 다를 것이라는 나의 선입견이었다.

아이들에게 한발 다가서다

벚꽃이 만개할 무렵, 한 학급에서 현장체험학습을 간다고 하며 사회복지요원

에게 지원요청을 하였고 내가 그 학급을 맡게 되어 따라간 적이 있었다. 벚꽃이 활짝 피어있는 대학교에서 산책 후에 돛자리를 펴고 간식을 먹고 있을 때였다. “석진 쌤, 사진 좀 찍어주실 수 있으세요?” 선생님의 부탁으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나는 예전부터 사진을 찍으면 인물과 배경을 꼭 같이 찍으려는 집착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배경과 조화롭게 하는 것이 제일 예쁜 사진이라 생각해왔고, 사람이 그 배경에 어울려 졌을 때 가장 보기 좋다고 여겼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오늘을 통해 이 습관도 고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나는 아이들이 간식을 먹고 있는 모습을 평소 습관대로 찍고 있었다. 그러다 우연히 아이들로만 채워진 화면을 보게 되었는데, ‘우와!’ 나도 모르게 아빠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모습은 무척이나 사랑스러웠다.

이 소풍이후로 사람이 사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찍으려고 노력한다. 사진을 찍을 때에는 배경도 중요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떠올리려고 한다. 당연히 이렇게 찍은 사진이 더욱 아름답다고 느끼고 있다. 소풍을 가기 전까지, ‘지원이 없었으면 사회복지무요원실에서 편히 쉴 수 있을 텐데...’ 하면서 짜증이 많이 났었다. 하지만 버스를 타고 다시 학교로 오면서 짜증은 사라지고 옆에 앉아서 자고 있는 학생들을 보면서 고마움을 느꼈다. 아이들 덕분에 벚꽃도 볼 수 있었고, 스스로는 깨닫기 어려운 소중한 사실도 배울 수 있었다.

시련을 겪다

우리들의 주 업무 중 하나는 학생들의 승하차를 도와주는 것이다. 우리학생들은 학교를 스스로 오기가 힘들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7대의 학교 통학버스를 운행하여 전교생의 등, 하교를 지원하고 있다. 차를 운행하시는 기사님 혼자서는 힘들기 때문에 사회복지무요원들이 동승해서 도움을 주고 있다. 나는 평소



처럼 몸이 불편한 학생을 내려주고 있었다. 그런데 “으아아앙....” 이미 내린 다른 학생이 입을 잡고 울고 있었다. 나는 내가 내려주던 학생이 그 친구를 실수로 쳤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기사님 출발해 주세요.” 하고 그곳을 떠났다. 다음 날, 교감선생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 친구의 입술에 상처가 났다는데 혹시 석진 군이 때린 건가? 그 학생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부모님께서 그러더군.”

어젯밤, 부모님께서 누가 때렸냐는 말에 “9호차 삼촌”이라고 말했다고 민원전화가 왔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침착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당황한 나머지 다른 말은 못하고 그저 “저는 때리지 않았습니다.”라고만 했다. 대답을 반복하면서 생각했다. ‘나는 성실히 승하차를 도와줬을 뿐인데 어째서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걸까’ 억울함이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학생이 조금은 미웠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

하지만 곧 미움은 미안함으로 바뀌었다. ‘왜 그 학생이 그렇게 밖에 말을 못했을까.’ 그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아쉬움이 더 가득했다. 한편, 기사님께서 내 상황을 듣고선 교감선생님께 오셔서 대신 자초지종을 설명해주셨다. 그 학생의 담임선생님께서도 옆에서 상황을 수습해주셨다. 그리고는 “석진 씨 수고가 많은데 이런 일을 겪게 해서 미안해. 힘내!”라며 격려해주셨다. 많은 사람들 덕분에 일을 잘 끝마칠 수 있었다. 난감해 하고 있는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보면서 감사함이 제일 먼저 들었다. 하지만, 나의 미흡한 대처로 인해 일이 커진 것에 대하여 사회초년생인 내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와 닿았다. 그 당시에는 불안한 순간이었지만 지금은 좋은 경험이 되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복무가 끝난 후에 사회에 나가서도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을 때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고 다짐했다.

바다를 나는 새 펭귄

소양교육에 갔을 때 한 선생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 “성공은 주로

태도에 의해 결정된다.” 이 말을 듣고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 나는 가끔씩 ‘내가 장애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라는 고민을 가진다. 평소에 대전역을 지나가다 보면 전광판에 적혀 있는 문구가 있다.

“펭귄은 날지 못하는 새가 아닙니다. 펭귄은 바다를 나는 새입니다.”

이전까지는 별다른 생각 없이 봤던 문구였다. 하지만 수업을 듣고, 이 문구를 보았을 때 그 문구는 나에게 많은 의미로 다가왔다. 우리 학생들이 떠올랐고, 가끔씩 하던 그 고민도 더 이상 떠오르지 않고 있다.

‘그들은 틀린 것이 아니다. 그저 다를 뿐이다.’

글을 마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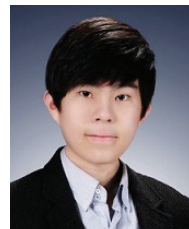
교감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다. “고생이 많습니다. 사회복지요원들은 학교의 처음과 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아이들을 반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가식이 아닌 진심으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정말로 순둥이들을 보고 있으면 하루하루가 웃음꽃으로 만발하게 된다.

우리는 혜광학교에 복무를 하면서 조그마한 도움을 주고 있다. 그 효과는 미미하더라도 우리는 진정으로 그들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임한다. 나는 학생들에게 사랑과 헌신을 가지고 행한다면, 그들도 표현 하지는 못하지만 꼭 알아 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또한 이 실천이 작은 바람이 되어, 언젠가 아이들의 미래에 큰 별이 될 수 있는 ‘나비효과’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이 우리에게 짧다고 느낄 수 있는 2년의 복무생활을 보람차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이다.



복지관을 부탁해

복지관과 사랑에 빠진 사회복지무원



함 정 무 (춘천남부노인복지관)

대한민국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4만 5천여 사회복지무원들.
그 중에서도 ‘세상 어디에도 없는 성실한 사회복지무원’
제 사회복지무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사회복지무원이 어때서~

“야~ 야~ 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복지관에 도착할 때 쯤 저 멀리서 들려오는 노랫소리. 그 소리는 나의 하루 일과를 알리는 알람과도 같았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복지관을 들어서는 순간 어머님, 아버님의 온화한 모습을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환한 미소와 하이톤의 목소리로 변한다. 하지만 이런 나의 모습은 복지관에 처음 왔을 때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

우리 춘천남부노인복지관은 약 20명의 직원들과 나를 포함해 7명의 사회복지무

요원이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 경로식당, 건강관리실, 체력단련실 등 어르신들의 행복한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곳이다. 나의 역할은 간호사 선생님을 도와 건강관리실과 체력단련실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건강체크, 체력단련실 이용방법, 각종 건강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었다. 한번도 안 해본 일이라 걱정이 앞섰지만, 훈련소 때의 힘들었던 시간을 떠올리면 무엇인들 못하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열심히 복무에 임했다.



건강관리실에 있을 때에는 어르신들의 인바디를 측정해 드렸고 신입회원분들을 체력단련실로 안내해 이용 방법을 설명해드렸다. 또한 치매예방, 웃음치료, 100세 캠페인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 보조를 하였다. 특히나 경로당 방문 진료 때에는 시내에 자주 나가시지 못하는 농촌 어르신들께 각종 건강체크를 해드리고 비상약품을 챙겨드려 불편함을 해소시키려고 노력하였다. 내 업무 특성상 유독 어르신들을 많이 대하는데, 어르신을 대할 때 섬기는 마음이 없으면 힘들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업무적인 면에서는 큰 어려움 없이 잘 적응하는 반면에, 체력단련실을 이용하시는 한 어르신이 나에게 정신적인 면에서 너무나 힘들게 하셨다. 체력단련실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주로 남성분들이 많으시고 또한 그분들은 거의 6.25세대의 어르신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한분이 계셨는데 ‘국가유공자’ 마크의 모자를 쓰시고 항상 외투에 훈장을 걸치고 나오시는 어르신이었다. 어느 날 체력단련실을 청소하고 있을 때 나의 제복을 유심히 쳐다보시고는 갑자기 다가와,

“사회복무? 아~ 너 공익이지? 어디가 아파서 공익이야? 멀쩡해 보이는데? 너 뻥뻥지?”라고 나에게 물었다.

순간 나는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아니요!”라고 통명스럽게 말을 하고 얼른 체력단련실을 나왔다. 내가 공익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말하는 어르신을 보면서 너무나도 실망을 하게 되었고 그 순간만큼은 공익인게 정말 싫었다. 그 뒤로도 체력단련실만 들어가면, “야 공익! 너 군대 안가서 좋지? 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대를 갖다와야지~! 너 앞으로 불성실하게 일하면 병무청에 신고한다!”



유독 그 ‘훈장’ 어르신께서 나에게 짓궂은 장난을 치시는데, 문제는 가만히 계시던 다른 어르신들도 내 주변으로 삼삼오오 모여 맞장구를 치시는 것이었다. 나 역시 어르신들이 6.25세대를 겪으신 분들이라 사회복지요원의 인식이 좋지 않을 것이란 생각에 참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어르신의 짓궂은 장난으로 체력단련실에 들어가기 싫었다.

오죽하면 한동안 그 어르신이 자주 오시는 시간대에는 일부러 안 들어간 적도 있었다. 그렇다고 매번 그 시간에만 안 들어갈 수도 없었고 앞으로 2년동안 내가 해야 할 업무이기에 다른 방법을 찾기 보다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나의 긍정적인 생각과는 달리 시간이 지나도 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전혀 바뀌지가 않았다. 그래서 너무 답답한 나머지 여기저기 하소연을 늘어놓았지만 그때 잠시나마 위로만 될 뿐 답답한 마음은 가시질 않았다.

그러던 어느날 소양교육을 받으라는 교육통지서를 받게 되어 일주일간 서울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게 되었는데, 소양교육에서 나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 주는 파도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강의 중에 ‘사회복지요원의 자세’에 대한 수업이 있었는데 강사님께서 “사회복지요원의 복무자세가 2년의 군생활을 좌우 할 수 있다.”란 말씀을 해주셨다. 그 말은 내 뇌리에 깊이 박히게 되었고 짧지만 그동안의 나의 복무자세에 대해 진중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소양교육 수료 후, 춘천으로 향하는 전철 안에서 나는 그저 어르신들의 인식이 빨리 바뀌기만을 한없이 기다리기 보다는 내가 먼저 사랑하는 마음과 참된 봉사정신으로 어르신들에게 다가가 사회복지요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

행복은 노력에 비례한다

어르신들에게 사회복지요원의 인식을 바꿔보자고 나 스스로 다짐한 뒤 그 누구보다도 정말로 열심히 복무에 임했다. 어르신들에게 늘 밝은 미소와 상냥한 말투로 다가가 거리를 좁히려고 부단히 노력하였다. 경로식당식권발권을 지원

할 때에도 어르신들에게 항상 웃으며 식권을 나눠드렸고 식당에서 어르신들께 식판을 가져다 드릴 때에도 정성을 다했다.

복지관을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친절하게 회원가입과 이용 방법을 설명해드렸다. 때로는 지치고 짜증나지만 참고 노력하면 곧 좋은 일이 있을거라고 굳게 믿으며 나 자신을 다잡았었다. 그렇게 나의 군복무도 반년이란 세월이 쏜살같이 흘렀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나의 성실한 자세와 부단한 노력을 어르신들께서 서서히 알아주시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친절하게 잘 해줘서 고맙다”고 나에게 인사를 건네시는 어르신과 내 바른 복무자세를 보시고 복지관 칭찬함에 친히 글을 쓰셔서 넣어 주시기까지 하셨다.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나를 계속 짓궂게 놀리던 ‘훈장’ 어르신께서 어김없이 나에게 비꼬는 말투로, “어이~ 공익. 군대 가서 고생을 안 하니깐 때깔이 좋아졌네.”라며 놀리셨다. 그 순간 옆에 계시던 한 어르신께서, “에이~ 그러지마! 함군이 우리 노인들을 위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데.”라며 내 편에 서서 말씀을 해주셨다. 심지어 다른 분은 “맛아! 난 요새 함군만 보면 너무나 행복해~”라며 나를 지그시 바라보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이 벅차올랐다.

진심은 통한다고 어르신들께서 나에 대한 아니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식이 점점 바뀌어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회복무요원 덕분에 행복하다는 말을 듣는 날이 올 줄이야~’ 사회복무요원 인식의 변화를 목표로 노력하면서 어르신들의 행복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음으로써 내가 어르신들께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기쁨과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책임감과 자긍심이 생기게 되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정무 쌤~”

나를 애타게 찾는 소리와 함께 식당지원, 신입회원교육 접수, 복지관 대청소, 베너 설치, 어버이날·노인의 날 행사 지원, 바자회, 이랜드 클리닉 등 복지관에서 복무를 하면서 그동안 내가 정말 경험해 보지 못한 많은 것들을 하였다. 그로 인해 퇴근 후나 주말에 길가다 마주치면 인사를 건네시는 어르신까지



계실 정도로 나는 복지관에서 유명인사가 되어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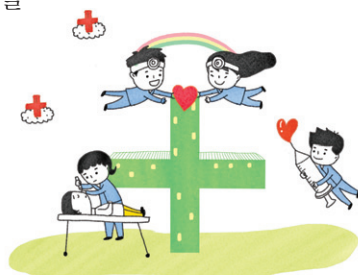
하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해도 나의 긍정에너지가 바닥이나 기진맥진 상태에 도달할 때면 현재 사회복지무원인 나 자신이 싫어질 때가 많았다. 이렇게 나 자신이 나약해질 때면 '나는 국방의 의무를 하는 몸이다. 따라서 피할 수 없으니 즐기자!' 라고 되새기며 나 자신을 다독이며 열심히 복무에 임했다. 내가 지금껏 열심히 하였기에 복지관에 계신 선생님들과 어르신들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래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 역시 뿌듯함을 느꼈고 진정한 사회복지무원으로서의 참된 역할을 알게 되었다.

소집해제하는 그날까지!!

사회복지무원들은 사회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건아입니다. 20대의 청춘시절, 나라를 지키기 위해 충을 드는 것을 대신하여 사회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국가를 위해 일하는 자랑스러운 아들들이자 동생들입니다. 직무교육을 받았을 때, "사회복무제도가 발달한 독일에서는 사회복지에 있어서 사회복지무원이 없는 독일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사회복지무원들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 소중한 인적자원인 것입니다. 저 역시 복지관선생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통해 더욱더 멋진 사회복지무원이 될 수 있었고 그 누구보다 성실히 복무한 덕분에 사회복지무원 대표자로 임명되었으며 나아가 병무청에서 주관하는 모범 사회복지무원 표창장을 받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현역에 비해 사회복지무원에 대한 관심과 격려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사회복지무원들은 묵묵히 국가와 국민들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각 분야에 성실히 복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빛과 소금 같은 존재인 사회복지무원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사회복지무원들이 소집해제하는 그날까지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머무는 곳에서 주인이 되라



이 석 락 (창원시 마산회원구청(합성2동))

진해 해군교육사령부 → 귀가 조치 → 4급 판정 → 39사단 입대
합성2동 주민센터 근무지 배정
사회복무요원 소양교육 : 남광사회복지관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 희망학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환경을 탓하지 말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바램

방황, 그리고 설렘

2013년 3월 18일, 진해 해군교육사령부 601기로 입대하였다. 징병검사 현역 판정을 받았던 나였고, 대한민국의 남자로 태어났다면 반드시 거쳐야 하고, 지극히 당연하고도 일반적인 것이며, 진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첫 발걸음인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그 시작의 문턱 앞에 섰었다. 내 삶의 모든 순간들이 수순대로 풀려나갈 것이라 생각했고, 어느 누구와 다르다 할 것 없이 엄마의 품에 안겼다 곧 터질 화산의 용암같이 차오르는 무언가를 온 힘을 다해 참아내고, 씩씩하게 뒤돌아섰다. 하지만 그리움을 삼켜내고 힘에 겨운 일들을 이



악물고 견디려 했던 각오들은 단 3일 만에 깨져버렸다. 오른쪽 어깨에 이상이 있어 귀가 판정을 받은 것이다. 정말 모든 것이 다 꼬여버렸다. 일을 하다 어느 한 길이 막혀버리면 다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다른 방도가 생각나지 않았다. 등급 재판정에서부터 사회복지요원으로서 배치 되기까지의 시간이 낭비되었다 생각했고, 내 마음을 온통 자책과 원망으로 뒤덮인 흉탄물로 더럽혔다. 스스로를 불행히 여기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 달을 내내 집에만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라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혼자 헤매는 내게 보이지 않았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길을 열어주셨고, 지금처럼 마음을 밝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그렇게 남부끄러운 시간을 떨쳐버리고 합성2동에 배치되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일들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순간들을 함께함에 있어 그 시간들이 내겐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고 설레는 시간의 시작이었다.

발돋움하다

2013년 12월 23일, 창원 39사단에 입대하여 4주간의 기초 군사 훈련을 받았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엄마의 “아들 아픈 곳은 없느냐, 밥은 잘 먹느냐, 잘하고 있느냐” 한 마디 한 마디 심장을 마구 요동치게 하는 목소리를 처음 공중전화 부스에서 듣던 날, 종교행사에서 군중병들이 던져주는 초코파이 하나에 일주일 굶은 성난 침팬지 마냥 목숨 걸고 달려들던 날, 분대장을 맡은 조별 각개전투에서 목이 터져라 소리 지르고 무릎과 팔꿈치가 제2의 발바닥이었던 우승한 날, 야간 행군을 끝낸 후 간식으로 도넛 한 개를 먹고 세상 다 가진 표정을 지으며 동기들과 흠뻑지로 가득한 운동장에 방탄모를 벗고 드러누운 날, 자식이 있는 아빠부터 철없는 동갑내기 친구까지 직업나이 불문하고 이 사람들이 고된 훈련을 함께 이겨낸 내 동기라고 생각되던 날, 조교의 교육점수 1등이라는 말에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 기뻐지만 소대장 앞에서 제식을 틀리는 바람에 상이 취소되었다는 소식을 들어 웃을 수



없었던 기다리고 기다리던 수료식 전날. 이렇게 여러 일들을 겪으며 울고 웃었던 4주간의 잊지 못 할 추억들을 마음 한편에 새기고, 1월 17일 수료를 했다. 비록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4주라는 시간은 결코 그리 짧은 시간이 아니라 생각된다.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4개월간의 복무를 시작함에 있어 그 4주는 우리를 보다 성숙하고, 건강한 몸과 마음가짐을 품을 수 있게 한 귀중한 시간이었다. 성실한 태도와 올바른 판단과 바른 행실로 자신의 생활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 시작의 발판을 만들어 준 것이다.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없다면 작은 일을 위대하게 행하라

2014년 1월 20일, 설렘을 가득 안고 집을 나선 첫 출근길. 이제 갓 유치원에 입학한 때문지 않은 순수한 꼬마아이가 첫 소풍을 가는 듯 했다. 마산회원구청에서 합성2동 주민센터로 근무지 배정을 받았다. 담당 계장님께서 데리러 오셨는데 정말 선한 인상의 숙녀분이셨다. 아기새의 쿵다쿵다 작은 심장처럼 메아리치며 떨어오는 가슴을 달래면서 합성2동에 도착했다. 담당 계장님께서 나를 좋게 보신건가. 모든 직원들에게 키도 크다, 일도 잘한다, 야무지다, 똑똑하다 등 칭찬을 늘어 놓으셨다. 계장님이랑 인연이 닿은 지 20분만의 일이었다. 20년을 알고 지낸 듯한 친숙함이었다. 조금은 당황스러웠지만 나를 좋게 보셨다는 것에 내심 기뻐했다. 시작이 좋다. 더 열심히 하리라 마음을 먹었다.

어느덧 3주가 지나가고 2월 10일부터 5일 간 부산사회복무교육센터로 소양 교육을 받으러 다녔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가야한다는 것이 조금 힘에 부치긴 했지만 그곳엔 반가운 얼굴들이 많았다. 훈련소 동기들을 만난 것이다. 매일 훈련소 내 생활복과 전투복을 입고 서로의 뺨뺨 짝은 머리를 보며 ‘네가 더 못생겼다, 내가 훨씬 낫다’ 하던 놈들이 제법 길러진 머리를 하고 사복을 입은 모습을 보니 새로이 느껴졌다. 그렇게 정들었던 동기들과 같이 여러 교육을 받았다. 복무에 임할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하는지 사회복무요원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과 행동을 배울 수 있었던 교육이었다. 외에 성격유형 테스트, 인성적성검사, 대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법 등 흥미로운 소재들을



접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교육을 받았다. 하루는 남광사회복지관에 실습을 나갔다. 사회복지사의 간단한 강의를 듣고, 봉사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할머니 할아버님들과 같이 여러 놀이를 해드렸다. 힘든 내색 하나 안내시고, 밝게 웃으며 놀이하는 어르신들 대부분이 치매를 앓고 계셨고, 병과 힘들게 싸움하는 분들이셨다. 그 중 독거노인 분들도 계셨는데 우리를 더 반겨하시는데 같이 마음이 안타까웠다.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고 인사를 드리면서 일어나는데 할머니들께서 손을 잡사리 놓지 않으셨다.

머리카락이 백발이 되고, 허리가 굽고, 자신이 아픈 줄 모르고 자식들에게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하신 누군가의 어머니다. 가족들의 품에서 따뜻한 보살핌을 받지 못해 얼마나 외로워하고 슬퍼하셨을까.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 힘든 세월이 긴든 주름 잡힌 손을 차마 놓으시라고 말할 수 없었다. 복지사분들의 도움으로 우리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애써 옮겨 교육센터로 돌아가는 버스를 탔다. 복지관으로 갈 때랑은 달리 모두들 정숙한 분위기였다. 기회가 된다면 꼭 그곳에 여러 장난감과 간식거리를 사들고 가서 어르신들이 좋아하며 웃으시는 모습 다시 한 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 다시 3주가 지나고 3월 3일부터는 2주간 직무교육을 받으러 다녔다. 직무교육은 지난번 받은 소양교육과 달리 좀 더 구체적이고 통계적인 현실적 내용들을 다뤘으며 직접 실습할 수 있는 교육이 주를 이루었다. 한 주는 부산 연산동에 위치한 희망학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를 했다. 내가 속한 조는 지적장애인 주간 보호실로 배정받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적장애인이거나 하면 대체로 거리감을 가지기 마련이다. 나 또한 많은 편견과 옳지 못한 생각으로 인해 처음 그들을 만날 때 겁이 났고, 싫어했다. 어색하고 굳은 표정으로 그들을 대하던 우리는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을 열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화장실을 가고, 같이 놀이프로그램을 했다. 그들도 똑같다. 울고 웃을 수 있으며 기쁘다 슬프다 화가 난다 등 감정 표현도 할 수 있다. 다만 자신의 나이에 비해 조금 어린 말과 행동을 하며 그 표현이 서투를 뿐이다. 우리가 그들의 옆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챙겨준다면 그들도 충분히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장애인이라 부르며 우리를 보고 정상인이라 한다.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며 우리는 정상인이 아니라 비장애인이란 불리는 것이 옳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그들을 비장애인인 우리가 도움을 줘야하며 보살펴 주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실습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그들도 우리와 다름이 없음을 인지하고, 그동안 그들을 바라보고 가져왔던 옳지 못한 생각들을 고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신없이 교육을 받으며 두 달이 흘렀다. 이제는 합성2동의 전반적인 지리와 주요 업무와 행사 등을 파악했다. 복무일지에 적힌 복무분야를 보고 알 수 있듯이 지자체에 배정된 사회복무요원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사회복지 업무지원의 일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분들께 드리는 쌀과 라면 생필품 등을 배달하고, 지리를 모르는 노인분들을 가시고자 하는 곳까지 데려다 드리며, 독거노인관리사 분과 사회복지과 주사님들과 실태 조사를 나가기도 한다. 이 업무들을 매일 하는 것은 아니다. 보통의 날에는 복지과 민원들을 안내하고, 복지과 행정 업무를 보조하며 사무실의 주변 환경 정리 및 청소, 사무실의 필요물품 구비, 통장 회의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준비 및 정리, 창원 시보 작업, 은행 업무, 게시판과 우편 대장 관리, 돌출 간판 조사 보조, 미납세차량 단속 보조 등 대체적인 보조 업무를 수행한다. 이처럼 나는 합성2동 어느 과에 속해서

한 업무의 전문적이고 핵심적인 중요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든 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들을 한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한 일을 전담하여 크게 해내기보다 손이 많이 가는 여럿의 사소한 일들이라도 최선을 다해 마무리 하여 자신으로 하여금 전체를 빛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에게 맡겨진 작은 일들에도 가치를 부여하여 자긍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 사건 사고들을 만드는 바르지 못한 사회 복무요원 극소수의 일탈이 우리 전체를 매도





해서는 안 된다. 나머지 대다수의 우리들이 작은 일 하나라도 긍지를 가지고 성실하게 복무에 임한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편견들도 사라질 것이다. 아름다운 장소를 찾으려만 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그 장소를 아름답게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나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다

복무를 시작한 지 어느덧 18개월이 흘렀다. 그 동안 인사이동도 있고, 휴가를 낸 직원분들도 있어 여러 번 바뀌었지만 매번 좋은 사람들이 오시는 것 같다. 나에 대해 관심 가져 주시는, 걱정해주는 눈빛 하나하나 말 한마디 모두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생각만 해도 힘이 절로 난다. 그렇게 지나갈 것 같지 않던 복무생활의 끝이 눈앞에 보인다. 요즘 이런 생각을 한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회복무요원 생활에서 내게 득이 된 것은 무엇인지, 내가 이룬 것은 무엇인지, 교사가 꿈인 나를 위해 무엇을 노력했는지.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복무요원들이 생각을 할 것이다. ‘2년이라는 시간을 낭비 하는 것 같다.’ 라고 말이다. 하지만 이는 틀린 생각이다. 우리가 복무를 하면서 그 시간을 허비한다고 생각하지마라. 꼭 어떠한 자격증을 따고, 꼭 어떠한 시험에 붙고, 자신만을 위한, 자신에게 득이 되는 것만을 생각하지마라. 처음의 시작에서 좋은 인연들을 만났고, 그 인연에 닿아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자신의 힘으로 대가없이 도움을 줄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라. 또한 자신이 속해있는 집단이 어디인지, 무얼 하는 곳인지 환경을 탓하지 말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수행하며 그 집단에서 자신을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겨주길 바란다. 이것만으로도 2년의 허송세월이 아니라 그 어떤 누구보다 보람찬 생활을 한 것이라 생각될 것이다. 보람차고 행복하다 느낄 수 있는 일은 강제로도 우연으로도 만들어 질 수 없으며 자기 자신이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것이다.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욕심만을 쫓지 말고, 자신을 불행히 여기지 말고, 머무는 자리에서 인정받기를.. 머무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머무는 자리에서 그 누구보다 빛나기를 바란다.

나와는 다른 향로 하지만 곧 나의 향로

사회복지 최전선에서 병역의 의무를 다하며
나의 꿈을 향해 나아가다.



유 병 선 (천안지역아동센터)

생물학도이며 중등과학 교사를 꿈꾸는 대한민국의 한 청년이
사회복지 분야에서 새로운 경험을 쌓아가며 자신의 꿈을 이어가게 된다.
어린 나이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는 선생님이 되어 사회복지무요원의 역할과 자긍심을 알린다.

출향. 사회복지무요원이 되다

고등학교 3학년 3월 어느 날 이었다. 야간 자습 시작 전 갑자기 호흡이 곤란
해 졌고, 곧바로 인근 대학병원의 응급실로 갔다. 그렇게 나에게 ‘기흉’이라는
질병이 찾아왔다. 폐에 구멍이 뚫려 폐가 부풀어 오르며 공기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증상이 심하면 사망에 이르는 이 질병은 나와 같이 키가 크고 마른 고등
학생이 많이 걸린다는 사례가 많을 뿐 병원이 밝혀지지 않았다.

갑작스런 이 기흉은 증세가 매우 심했다. 양쪽의 폐에 3번의 재발과 2차례
수술, 1차례 시술은 고등학교 3학년 한참 대입에 매진하던 나에게 큰 빛이



되었다. 계속된 재발과 너무나 심한 증상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쳐만 갔고, 양쪽의 폐에 구멍을 뚫은 채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 때에는 도대체 왜 하필 나에게 이러한 고통과 시련이 오는지 서러웠다. 다가오는 대입 시험에 초조해지고, 나를 살리려 노력하시는 부모님께서는 죄송할 따름이었다.

하지만 부모님과 학급친구, 이웃의 사랑을 정말 크게 느끼며 힘을 내어 정신을 다잡았고, 폐활량을 늘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회복하였다. 그러나 증상이 심했고, 언제 재발할지 모르는 병이기에 나는 결국 사회복지무요원이 되었다. 다른 사람들은 종종 기흥 덕분에 사회복지무요원이 되었다 한다. 물론 부러워하는 친구들도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소개될 지난 1년간 사회복지무요원으로서의 나의 이야기를 통해 또 다른 병역의무의 길을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뜻밖의 향로

고등학교 때부터 나의 꿈은 과학교사였다. 비록 기흥으로 인하여 입시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대학에 진학해서 찾은 기회로 어렵사리 다시금 나의 꿈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나는 사회복지무요원으로서의 근무를 학교에서 하고자 하였다. 학교에서 근무하면 교사가 되는데 있어 많은 것을 배우며 퇴근 후 공부하며 임용고시를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복지무요원 근무기관을 신청하는 당일 서버 오류로 인하여 뜻밖의 기관을 선택하게 되었다. 엄청난 경쟁률을 보이는 근무기관 신청에서 서버오류로 원하던 곳이 아닌 한참 후 접속되어서 남은 근무지를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배정 된 곳이 지금 나의 근무지 지역아동센터였다.

결국 전혀 뜻밖의 기관에서 2년간 사회복지무요원으로서의 항해를 하게 되었다. 근무지 선택 후 처음에는 당황하여 어찌 할 바를 몰랐지만 '학교보다 지역아동센터에서 나를 더욱 필요로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움과 걱정이 남았다.

어둡고 풍랑 이는 항해

예상치 못했던 지역아동센터라는 기관에서의 근무는 쉽지만은 않았다. 물론 국방의 의무를 쉽게 생각한다는 것은 오산이겠지만 근무를 하면서 나름의 어려움이 있었다.

훈련소 수료 후 출근한 일주일간은 근무지의 선생님들(센터장님, 사회복지사님, 선임 사회복지무원)께 아이들의 특성을 여쭙보아 가며 수첩에 그 아이의 이름과 특성을 적어 아이들을 익히고 친해지는데 노력을 하였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한 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맞벌이 가정 등 어린나이에 가정에서의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아이들이기에 그 아이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알아가기가 어려웠다.

근무를 해가며 아이들을 지도 할 때도 어려움이 있었다. 사춘기의 아이들은 학습을 너무 안하거나, 이따금 대드는 모습을 보일 때가 종종 있었다. 현역 장병은 북한군과 대치하고 있지만, 사회복지무원인 나는 북한군도 무서워한다는 대한민국의 중학생들과 씨름해야 했다. 그렇지만 아이들은 센터가 아니면 방과 후 제대로 붙잡고 공부를 시키고 가르칠 사람이 없기에 어떻게 해서든 공부를 시키려 하지만 때로는 뺨질하며, 때로는 화를 내며 빠져나가는 아이들을 지도하고 이야기를 나누기란 난해하였다.

그리고 기관에는 장애 아이들도 있는데, 한글을 한 글자씩 가르쳐도 너무 따라오지 못 할 때는 답답할 따름이었다. 언어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그 아이는 그 아이 나름대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지 못해 답답할 텐데 이미 가정에서의 부족한 여건으로 입 구조가 굳어진 점이 너무 안타까웠고, 그 아이에게 나의 답답함을 보인 것이 너무나 미안하였다.

더하여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에서는 너무나 기가 막힌 거짓말을 하는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를 위해서 쉬운 수준에서라도 학습을



해야 하나 전혀 학습하려 하지 않을 때, 센터 행사에 참여하겠다고 무작정 고등학교 등교도 하지 않았을 때와 같은 상황 등에서 여러 갈등이 있었다. 그 아이 스스로도 부족한 애정과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그렇겠지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분명 좋지 않은 것이기에 그 부분을 가르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

청소년과 장애 아이들 이외에도 어린 아이들이 센터에 오기 시작하면 평화로웠던 센터에 폭풍우가 몰아친다. 아이들끼리 매일 싸움이 있어 누군가는 울고, 몇몇 개구쟁이 친구들이 너무나 소란을 피울 때는 정신을 쏙 빼놓기도 한다. 가끔 아이들의 학습을 봐 줄때에는 줄서서 기다리는 아이들의 질문을 학년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설명해주고 학습일지를 기록하게 된다. 외부 강사님께서 오셔서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에는 집중하도록 계속 보조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아이들과 하루를 보내고 퇴근할 때에 이르러서는 온 몸의 힘이 쏙 빠져 어느새 터벅터벅 걷고 있는 나를 보게 된다.

깨닫게 되는 이 향해의 이유

아이들과 하루하루 힘들게 시간을 보내면서 어렵고 피곤하였지만, 소양교육과 직무교육을 통해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역할과 책임, 실제적 교육을 받은 후였을까? 아니면 점점 근무를 더해가며 적응되어서일까? 근무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나도 모르게 일어나고 있었다.

먼저는 아이들의 개구지고 때로는 소란스러운 모습, 매일 친구와 다투고 누군가는 울게 되는 모습, 공부하기 싫어하는 어릴 적 나와 같은 모습 이 모든 것이 아이들이기에 나타나는 생명력으로 보이게 되었다. 파릇파릇하고 왕성한 모습으로 한창 자기 자신을 표현 할 시기에 보이는 생명력. 생물학을 전공하는 나로서는 이 아이들의 몸 안에서 얼마나 많은 미토콘드리아(세포 내에서 영양분을 연소시켜 에너지를 만들어냄)가 만들어 지기에 이처럼 전혀 지치지 않는 모습을 보일까 생각하며 이 모든 세포활동의 생명력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하루하루 아이들의 모습과 표현이 다르고, 분명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기에 자라나고 성숙해져가는 그 모든 새로운 모습들 덕분에 지쳐서 퇴근하다가도 다음 날 출근해서 센터의 문은 열 때면 뭔가 기대가 되었다. 오늘도 이 작은 공간에서 우리 아이들이 과연 얼마나 큰 꿈을 품고, 얼마나 무한한 상상과 표현을 해 나갈지 말이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근무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아이들에게는 무럭무럭 자라는 장이면서, 나에게도 내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라는 것이 느껴질 때에는, 근무가 보람되고 때로는 가슴벅차오르는 일이 되었다. 내가 가진 지식으로 이 많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었고, 그 아이들의 하루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구가 되어줄 수 있었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또 한명의 어른이 되어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월 부모님과과의 이별로 마음의 아픔이 있는 주변 지역아동센터 아이들과 연합으로 ‘마음 기지개 캠프’에 참가하여,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시간을 통해 나의 부족한(?)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해 보았다. 우리 센터의 아이들을 잘 타이르며 캠프 참여를 유도함과 동시에 다른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과 이 캠프를 어떻게 하면 그 아이들의 상처를 치유해 줄 지 조심스레 연구하며 신중한 사전회의의 기간을 거쳤다. 사전회의 당시 다른 센터의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센터의 선생님과 함께 회의에 참석한 유일한 사회복지무원인 나를 보고 함께 캠프를 진행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으셨다고 한다. 나는 사회복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전문가가 아니기에 당연한 염려였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최대한 친숙하게 다가가고, 함께 프로그램에 녹아들고 캠프 동안에 함께 숙박하며 나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고자 노력한 결과, 캠프를 무사히 마친 후 피드백 시간에 나를 향한 칭찬이 이어졌다. 아픔이 있는 아이들의 가장 가까운 연령대에서 그들을 이해해주고 공감할 수 있었던 부분이 사회복지무원으로서 이 캠프는 물론 사회복지의 최전선에서 아픔이 있는 아이들에게 내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다.



아이들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 외에 선생님들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도 있었다. 처음에는 아이들과의 어려운 상황에서 혼자 해결해보겠다고 그 아이를 붙잡고 끙끙 대기도 하였다. 하지만 센터장님이나 사회복지사님께 그 아이를 데려가면 전문적인 손길로 문제가 해결되곤 하였다. 아이들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가정에서의 부족한 애정 결핍과 마음 속 도움의 간절한 손짓이 있기에 때로는 자신의 약한 모습을 감추고자 과한 행동을 하거나 사랑을 받고 싶은 나머지 너무나 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럴 때 나는 단지 그 행동 하나만 보려 하였지 그 아이의 어릴 적부터의 아픔에서 이 같은 행동이 기인한다는 점을 살피지 못하여 어려움이 더했던 것이다. 따라서 주변의 선생님들을 통해서도 배워가며 내가 발전해 갈 수 있었다.

나의 꿈을 향해 힘차게 물살 가르며 나아가는 나



나의 꿈은 여전히 과학교사이다. 비록 뜻밖의 향로에서 어려움을 느꼈지만 사회복지무원으로서의 1년이 지난 지금 나는 이미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훗날 교사가 되어 담임선생님이 되면 나의 학급에도 가정이 어려운 학생이 있을 것이다. 이 아이들을 가슴깊이 이해하며 공감해주는 선생님이 되기를 위해, 나에게 지금의 근무기관과 이 순간이 귀하고 소중한 것이다.

더하여 비단 나를 위해서 만이 아닌 아이들에게는 어린 날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주는 선생님이 될 것이다. 아이들의 추억 안에 함께 기억될 수 있는 사회복지무원으로 앞으로의 1년도 힘차게 향해해 나갈 것이다. 비록 신체의 부족함으로 최전선에서 영토를 지킬 수는 없지만 사회복지의 최전선에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의 마음 밭 영토를 지켜주는 미래의 선생님이 되리라.

끝으로 비록 신체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전방은 아니더라도 이 나라를 위한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 어디서든 자랑스럽게 수행할 수 있는 향로가 있다.

사회복무요원, 그 무게를 견뎌라!



김 광 래 (홍천소방서)

사회복무요원, 같이 걸어가는 여정

홍천소방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지 9개월 제게 있어 사회복무요원의 자리란 혼자서 뛰어가는 자리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걷는 자리란 생각이 듭니다. 저는 현역복무를 하던 중에 사회복무요원이 됐으니 다른 사회복무요원들과 다른 방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흔히 말하는 히키코모리처럼 저는 저 자신을 가두게 됐고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바보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알게 모르게 눈물도 많이 흘렸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 명암(明暗)이 있는 것처럼 어둠 끝에 다시 사회복무요원이라는 빛을 보게 되면서 함께 걷고 함께 웃고 함께 이야기 하는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누가 보면 매우 작고 소박한 것에 감사해 한다고 흥을 볼지 모르겠지만 제게는 사회복무요원이란 무겁고도 엄하지만, 그 어느 것 보다 따뜻하고 키다리 아저씨와 같은 자리라 생각합니다.



백일동안... 집으로 가는 길

저는 본래 2014년 7월 8일 현역병사로 입영했습니다. 남들 다 가는 군대이고 조금 늦게 가서 그런지 몰라도 가족들과 웃으면서 작별을 고했습니다. 잘 해보이겠노라고 다짐을 했는데, 처음에는 서투르고 잘 모르다 보니 적응이 되면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가면 갈수록 자신감을 잃어가고 몸무게는 입영 전 보다 20kg 가까이 빠지고 제가 저를 나버리는 참혹한 현상을 겪게 됐습니다. 급기야 쓰러지고 말까지 잃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겪게 됐었습니다. 저를 담당하셨던 중대장님과 소대장님이 일단 가족들에게 알리자는 말에 안 된다는 말을 계속 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그 소식을 듣고 놀랐습니다. 저라도 놀랐을 일이지만, 처음 국군병원에서 만났을 때 제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자 그럴 수도 있는 것이라고 하며, 저를 위로 했습니다. 그 때 당시 어머니가 하시던 말씀이 기억나는데, “단지 감기가 고질적으로 걸려 오래가는 것이다. 모두가 너를 도와주는데 천년만년 걸릴 것 같으니? 백일만 참아보자... 그도 아니면 또 백일 ... 또 백일...” 그러면서 울고 있던 저를 어루만지면서 위로 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중대장님과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현역부적합심사라는 것을 통해서 2014년 9월 26일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너무 힘들고 혼자서 외로웠던 시간이었지만, 백일이 채 안된 시간이었습니다.

백의종군(白衣從軍)의 마음으로...

2014년 9월 26일 집으로 돌아와서 3일 후 아버지랑 형이랑 목욕을 갔다 오고 제 핸드폰으로 부재중 전화가 왔었는데 병무청에서 전화가 왔던 것인데 제게 다음달 27일자로 홍천소방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발령이 난 상태인데 혹시

아예 면제를 받으려면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죄책감과 현역을 하지 못하고 나왔다는 패배의식으로 생긴 자괴감에 위축이 된 상태였기에 이것을 받아드려야 할지 아니면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할지 큰 고민을 했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소방서 사회복지무요원들은 구급출동도 한다는 소리도 있었고 그래서 사체를 봤다는 글도 빈번하게 있다 보니 더욱 기피 됐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에는 아버지께서 “현역이야 외부와의 소통이 없다 치더라도 사회복지무요원은 출·퇴근도 가능하고 주위에 가족들이 있고 더 이상 혼자가 아닌데 무슨 걱정이냐” 며 받아들이라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한참 고민을 하다가 이것마저 피한다면 사람들의 시선 뿐 아니라 저 자신도 평생 낙오자, 패배자라는 인식을 지울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힘들어서 모든 것을 포기 하려고 한 나한테 힘을 줬던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피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 하려고 했던 제 죄가 너무 크다는 생각과 더 이상 내려 갈 곳도, 내려가서도 안 된다는 백의종군(白衣從軍)의 심정으로 홍천소방서로 발령을 받아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무용필용(無用必用)... 다시 시작한 21개월



2014년 10월 27일 반년이 흘렀지만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 날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홍천소방서로 발령 받아 첫 출근을 하고 국방의 의무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그 날”이기 때문입니다.

소방서에 첫 출근을 했는데 사장님이 출장을 가셔서 세 분 과장님들께 먼저 인사를 드렸습니다. 소방서는 ‘소방행정과’, ‘방호구조과’, ‘현장대응과’ 3과



로 운영하는데, 제가 처음 발령 받은 곳은 ‘현장대응과’ 이었습니다. 명칭을 보고 구급이나 구조 출동 하는 것이라 생각 했었는데 제게 주어진 업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행정업무 보조 및 환경정리 이것이 제가 하는 일 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의무소방원들에게 주로 현장업무를 담당시키고 사회복무요원들에게는 주로 사무보조 같은 일들이 주어졌던 겁니다.

쉽다고 생각하면 쉬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에게 지시를 받고 움직이기 보다는 직원들의 지시를 받기 전에 먼저 움직이고 작은 일이라도 프로정신을 가지고 움직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는 것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저래서 사회복무요원이지”라는 인식을 심어 줄 수도 있는 일이고 무엇보다도 그리 된다면 저 자신이 또 다시 무기력에 빠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경계하면서 소방서 업무를 봤습니다.

무용지용(無用之用)이 아닌 무용필용(無用必用) 즉, 쓸 모 없어 보이지만 반드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제가 그 동안 가지고 있던 무기력과 나태함 그리고 몽매함을 극복하고 저의 본래의 초심을 찾아가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 덕분인지 몰라도 그 동안 침체됐던 자신감도 회복되고 제가 저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교두보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저는 아직도 올해 1월 6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퇴근을 하고 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웬일인지 차를 끌고 온 형이 차를 소방서 안까지 들어왔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소방서 직원들이 저희 가게에 예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만 두셨지만, 저희 부모님은 원래 시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식당에 직원 회식 예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실은 작년 연말에도 외근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두 번이나 저희 집을 찾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소방서장님을 포함한 내근으로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이 저희 집을 방문해 주시니 황송하기 이를 데 없어서 생각 같아서는 춤이라도 덩실 덩실 추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씻고 잠시 쉬고 있었는데 형이 올라와서 직원들이 너를 급히 찾으니 내려가라 해서 내려갔습니다.

가운데 서장님이 앉아 계셨고 옆자리가 비어 있었는데 그 자리로 서장님이 빨리 오라고 손짓 하시며 저희 어머니께 한마디 하셨습니다. “광래를 하루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서 제게 “너는 오늘 여기 흥천소방서 직원으로 있는 것이다. 부담 가지지 마라.” 라고 말씀 하시면서 저보고 견배 제의를 해보라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그냥 직원 분들에게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린다는 뜻에서 넘죽 절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한창 자리가 무르익을 무렵 아버지께서 단체손님을 받으시거나 중요한 손님을 받을 때 꼭 기타연주를 해주셨는데 그 날도 아버지의 18번이라 할 수 있는 “행복의 나라로”라는 노래와 “행복을 주는 사람”을 기타연주에 맞춰 불러주셨습니다.

서장님 옆에서 노래를 듣는데 이상하게 눈에서 눈물이 촉촉하게 흘렸습니다. 그 동안 많이 위축되고 스스로 콤플렉스에 사로 잡혔던 저를 조금이나마 용서할 수 있을 거 같다는 그런 뜻에 눈물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서장님과 과장님들께서 저희 부모님께 제 칭찬을 늘어지게 하셨다고 합니다. “소방서에 행복을 주는 사람” 이라고 말입니다.

‘더 잘 해야지, 더욱 애뜻하게 정진해야겠구나.’ 처음 발령 받았을 때부터 ‘잘 해야지’ 하는 마음을 항상 가졌지만 이 일이 있던 후에는 더욱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소방서장님을 포함한 소방서 모든 직원 분들 모두가 제게 행복을 주는 사람들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사회복무요원! 위풍당당 날개를 펴고

“현역을 갔다가 왔건 그냥 왔건 어쨌든 간에 너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이야. 공익근무요원이 아니야. 요번에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했는데, ‘근무’는 해석 그대로 ‘직무에만 종사하는 것’이지만, ‘복무’는 ‘임무를 가지고 직무에 종사한다는 뜻’이야. 즉, 의무복무라는 말처럼 너희들 또한 군인들과 똑같이 인정을 해준다는 말이다. 그러니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홍천소방서에 발령을 받고 서장님을 포함한 과장님들께서 누누이 해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란 말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그 명칭이 바뀌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공익근무요원이 사회복무요원 명칭만 변경된 건데 허울 좋은 말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으로서도 자부심을 가지고 다양한 경험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홍천소방서라는 좋은 파트너를 만나면서 느끼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9개월의 복무를 통해서 사회복무요원의 자리 또한 대한민국 현역장병들 어깨의 무게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때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려 했던 제게 사회복무요원은 저를 다시 돌아보고 자유란 책임을 위해 어떤 책임감이 필요한지 잘 알려주고 있는 그런 자리라 생각합니다.

곧 제가 입대했던 2014년 7월 8일로부터 벌써 일 년이 됩니다. 매우 무더웠지만 제게는 춥고도 혼자라는 생각에 외로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명암(明暗)이 있는 것처럼 가족들과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작은 빛줄기를 보게 되면서 그 어둠은 작아지고 저를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좌절하거나 슬퍼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가둔다는 것이 얼마나 한심하고 바보 같은 일인지 사회복무요원의 무게 또한 현역에 비해 절대 가볍지 않다는 것을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자부심을 가지고 큰소리로 외쳐봅니다.

“사회복무요원 김광래입니다!”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준 장애학생과 나



이 준 형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다시 초등학교를 찾게 될 줄은 몰랐다. 처음 학교 건물을 밟았을 때 떠오른 물음이란 ‘뭐야 초등학교가 이렇게 작았나?’ 였다. 새삼 돌이켜보니 초등학교를 졸업한지도 어느덧 12년이 흘렀다. 그땐 바다처럼 드넓게 여겨지던 운동장이 이제는 조희대에 서면 손바닥 안에 들어왔다. 운동장이 줄어들진 않았을 테니 그간 손바닥이 자란거겠지. 그러나 당시 운동장을 뛰어다니던 때 묻은 아이의 모습은 기억나지 않는다. 그때도 장애학습도움반이 있었던가? 마찬가지로 기억나지 않는다. 그런 생각들이 스칠 때쯤 한 발 자국, 자동문을 열고 들어선 학습도움반의 모습이란 기이한 광경이었다.

벽 아래 서랍장, 그 속에 차곡차곡 놓인 바구니에 스펀지, 블록놀이, 동극자료, 사계절 퍼즐..... 낯선 이름들이 붙어 있고 그 안에 담긴 용도 모를 물건들과 나를 웃으며 반기는 두 분의 선생님. 한 분은 특수교사이셨고 다른 한 분은 실무를 담당하는 분이시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초등학교는 8시까지 출근을 해야 한다. 먼저 오면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교실 청소를 해라. 아직 날이 추우니 바닥 장판에 불을 올려놔라. 도움반



아이들은 체온 조절이 잘 안되기 때문에 일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가 해야 할 업무는 아이들을 돌보는 것인데 휠체어를 타는 아이는 등교하면 교실까지 데려다주고 저학년 아이들은 쉬는 시간마다 대소변을 잘 보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동수업이나 도움반에서 수업을 할 때는 항상 같이 다녀야 하고 체육수업을 할 때는 같이 참여해 수업을 도와주거라.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한시도 아이들 곁에서 눈을 떼지 말아라. 얼마 전에 천광학교(특수학교)에서 있었던 일 알지?”

천광학교에서 발생한 일이란, 한 아이가 방과 후 수업으로 이동하던 도중에 갑자기 학교 밖으로 뛰쳐나와 어느 폐건물 지하에 차 있던 물에 빠져 사망한 사건이었다.

반 학생들은 모두 5명. 6학년 학생이 둘이었고 3학년 휠체어를 타는 여학생 한 명, 1학년 학생이 둘이었는데 한 아이는 3학년 아이와 마찬가지로 휠체어를 탔다.

중요한 것은 안전, 그 한 마디가 머리에 맴돌았다. 얘기가 끝나고 얼마 뒤 한 아이가 교실에 들어왔다. 뇌병변 장애 1급을 앓고 있는 6학년 혜원(가명)이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아이들과 친해지기 위해 기계적인 웃음을 지어보였다. 다행히 혜원이라도 나를 보고 호기심 어린 미소를 지어주었다. 가식 없이 피어오르는 꽃송이 같은 웃음. 12년 만에 다시 찾은 초등학교에서 본 아이들의 웃음은 때 묻지 않고 순수했다.



“혜원이 왔니? 음악실까지 데려다 주거라. 예체능 수업은 반 아이들과 같이 듣는다. 음악실은 신관 3층에 있다.”

그 말에 나는 혜원이를 데리고 자동문 밖을 나왔다. 학교지리에 어리숙한 나를 대신해 혜원이가 앞장을 섰다. 뒤에서 바라본 혜원이의 왼쪽 발은 저는 듯 안장걸음으로 내딛어서 어딘지 모르게 걸음걸이가 기우뚱했다. 웃음이 잦고 의사표현이 분명한 아이였다. 그러나 어쩐지 대화는 잘 되지 않았다. 묻는 말에는

항상 동문서답이었고 내게 물어오는 물음은 티비 화면에 모자이크 처리를 덧씌운 듯 불분명했다.

“선생님 ○○마트..... 지난주에 언니랑 ○○마트 갔어요. 근데 ○○마트 가고 싶어요. 종혁(가명)이랑 ○○마트 갈거예요. 종혁이 학교 왔어요? 저는 ○○마트 좋아요(방긋).”

종혁이는 같은 6학년 도움반 남자아이였다. 처음 도움반 아이들을 대할 때는 평범함에 벗어나는 많은 징후들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 중 특이한 것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마트를 마치 놀이동산이라도 되는 듯이 열광한다는 점이었다. 1층의 식료품 코너, 2층의 각종 문구 및 장남감 코너, 3층의 전자제품과 생활용품 코너, 그 너머에는 앵무새, 거북이, 햄스터 등 집에서 키울 수 있는 반려동물들이 즐비해 있는 곳. 가족들과 같이 방문하더라도 정작 손에 쥐어지는 것은 초콜릿 한 묶음이 전부일지라도 아이들은 그곳을 사랑했다. ○○마트, 하고 내뱉는 네 글자 사이의 역양에는 분명 때 묻지 않은 순수함이 있었다.

그리고 한 달 뒤 은수(가명)가 우리 학급에 입급됐다. 이제는 아이들의 돌발 행동이라던가 이상 징후, 뜻 모를 말 따위에 익숙해질 무렵이었다. 그러나 은수는 분명 다른 아이들과 달랐다. 내가 자기의 보호자 역인 것을 알고는 냅다 출행량부터 치는 아이였다. 그러다 내가 따라오지 않으면 빠끔히 뒤를 보며 악랄한 웃음을 지어보였다. 도망가고 붙잡고 또 도망가면 붙잡고 하는 것이 한 달 동안 반복됐다. 잡아 놓으면 뭐든 하기 싫다고 울며 떼를 쓰다 결국엔 혼나는 것이 하루 일과였다. 선생님들은 아직 학급에 적응하지 못해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힘들어하긴 마찬가지였다.

그때 은수가 보이던 돌발행동들을 나로서는 이해할 순 없었지만, ‘이해해야 한다’고 느꼈다. 마치 공식의 비밀을 파헤치듯 눈앞에 펼쳐지는 일관적인 이상 행동들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곳 생활을 견디기 어려우리라고 여겼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친해져야겠지. 미운 정도 정이랄까. 만화 속 톱과 제리도 선천적으로 태어나길 고양이와 쥐라는 양속관계이지만 쫓고 도망가는 모습 속에 어쩐지 미운 정이랄 것이 느껴지지 않던가.



그 뒤로 제법 은수와 가까워지려 노력했다. 더러는 목마를 태워주다가 머리를 쥐어뜯기기도 했고 안아서 비행기를 태워주다가 뺨을 얻어맞기도 했으며, 집어던진 물건에 맞는 날도 있었다. 체육대회 때는 달리기 도중에 전혀 엉뚱한 곳으로 뛰어가 애를 먹기도 했지만, 확실히 ‘미운 정이랄까’ 하는 것이 조금씩 싹을 틔워갔다.

그리고 훌쩍 1년이 지나가버렸다. 낮이 익던 아이들은 졸업을 했고 그나마 친분이 있던 몇몇 선생님들도 학교를 떠나고, 그 자리를 대신해 새로운 선생님들이 학교를 찾았다. 3월에는 신입생들을 반기는 입학식이 있었고 떠난 해원과 종혁이를 대신해 인구(가명)라는 아이가 새로 도움반에 입급됐다.

지나고 보니 학교라는 공간은 어딘가 외로운 구석이 많았다. 이곳에서 복무를 하는 사람이 나 뿐이기도 했거니와 또래라고 할 사람도 주변에서 찾을 수 없었던 까닭이리라. 어디서 하소연할 곳을 바란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정작 외롭다고 느껴질 때 말 붙일 사람을 찾지 못한다는 것도 제법 쓸쓸하게 그려졌다. 그럴수록, 괜찮다 나는 놀러온 것이 아니라 복무를 하러 온 거잖아,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사람이 그리워는 마찬가지였다. 삼백 명이 넘는 학생들과 오십 명이 넘는 교직원들 속에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어쩐지 낯부끄럽기도 했다.

더러는 12년 전 초등학교 때의 기억이 나를 찾아들기도 했다. 당시에 IMF라는 경제위기가 사회를 덮쳤고 아나바다 운동 구호를 1학년짜리들도 외우게 했다. 나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가난에 허덕였지만, 아이들은 가난을 이해하기는 어린 나이였다. 그때 코 흘리던 꼬마가 자라서는 대체 복무랍시고 이곳에 다시 서게 될 줄이야. 학교라면 감옥같고 스승의 날이 되어도 찾아볼 선생님 한 분 만나지 못한 내가 아니던가. 학교라는 공간에서 나는 여전히 외로운 사람이었다.

그럴수록, 혼자 있을수록 틈틈이 책을 읽거나 은수를 생각했다. 1년이 지나도 일을 예전처럼 도망가고 붙잡는 일상의 연장선이었지만, 2학년이 된 은수의 줄행랑은 예전만큼 뜬금없지도 잘못도 않았다. 항상 한결같이 여겨지던 은수도

돌아보니 키도 자라고 머리도 굽어있었다. 이제는 목마를 태워주기에는 무거운 몸이 됐다. 처음 심어 두었던 ‘미운 정이랄까’ 하던 것은 어느 틈에 꽃을 틔우고 애정으로 자라있었다. 어느 걸음에 나는 은수를 좋아하게 돼 버린 것이다. 은수 뿐만 아니라 도움반의 많은 아이들을 진정으로 좋아하게 되었다.

처음에 이해할 수 없었던 돌발행동들과 웅얼이 같던 말소리도 이제는 제법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다. ‘지금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시켜서 화를 내는 구냐’, ‘잠이 와서 집중을 못하는 거구냐’ 하며 어느 정도 아이들의 속내도 바로 볼 수 있게 됐다.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가니 어느 틈엔가 아이들은 내 품에 안겨들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우리를 때로는 톰과 제리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가족처럼 보이지 않는 끈으로 묶어준 것이다.

그래서일까, 다시 봄부터 새롭게 시작하려는 한 해는 어쩐지 외롭지만은 않았다. 그렇다고 마음이 충만하다는 뜻은 아니더라도 혼자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종종 불현듯 12년 전의 가난에 힘겨웠던 기억이 찾아들어 침울한 기분이 들기도 했다. 그럴수록 나는 아이들을 찾았다. 웃으며 현재의 생활을 아이들과 함께 즐기려고 노력했다. 더러는 아이들이 나를 이유 없이 안아주는 날이면 마음에 서린 모서리가 눈 녹듯 녹아내렸다. 어느 틈엔가 자라난 아이들과의 애정이 담담히 나를 세워주었다.

얼마 전 운동회가 열렸다. 이번에도 작년처럼 은수가 달리기 도중에 다른 곳으로 도망가진 않을까 걱정 했지만, 다행히도 은수는 도착점까지 달아주었다. 비록 6명의 아이들 중 꼴찌로 들어오긴 했지만 분명 일등 못지않게 값진 완주라고 생각됐다. 순수하다는 것은 어쩌면 바보같다는 말인지도 모르겠다. 요즘 문득 그런 생각이 든다. 자주 울고 웃으면 아이들의 웃음을 닮아갈 수 있을까. 은수가 완주하던 날, 그날은 어쩐지 온종일 기분이 좋았다.



완 생

선생님은 누구세요?



김 건 모 (인천시 참조은아이아동센터)

4급 사회복지무원 판정을 받은 나는, 친구들이 군대에 입대할 때, 훈련소에서 4주 훈련을 받고 복무지로 옮겨졌다. 나의 복무지는 지역아동센터였다. 사실 이곳에 오기전까지는, 아동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도 잘 모르던 나였다.

복무 첫날, 긴장되는 마음으로 출근을 하였고, 청소업무를 끝내고 아이들을 기다렸다. 훈련소에 나온지 얼마안된 나였기에 까까머리를 하고 있었고 아이들이 나를 뭐라 생각할지 걱정도 되었다. 점심시간이 지나자, 아이들이 한명씩 센터에 왔다. 처음 맞이한 아이들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었다. 낯선 이방인을 봐서 그런지 아이들이 매우 어색해했다. 그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있는 중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나에게 물었다.

“선생님은 왜이렇게 머리가 짧아요?”

“왜 다른 선생님들한테 다, 나, 까를 써요? 군인이예요?”

훈련소에서 배웠던 말투를 여기서 쓴 것이 아이들에게 많이 신기했던 것 같았다. 이때 나는 사실 내 자신이 조금 부끄러웠다. 몸이 다른 또래 친구들



보다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군대에 못갔다고 설명하기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직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설명을 해줘도 모를 것 같았다. 그렇기에 그 당시에는 나는 제대로 아이들에게 답을 해주지 못했고, 내 정체성 또한 많이 흔들렸다.

그러나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아래 내가 쓴 에피소드를 겪으며 나는 사회복지요원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했고, 아이들 또한 나를 단지 군대를 못간 사람이 아닌, 나라를 위해 부지런히 복무하고 즐겁게 공부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로 생각하고 있다.

지역사회텃밭업무

내가 이곳에 들어와 일하게 되던 해 봄, 우리 지역아동센터는 지역 사회에서 운영하는 텃밭가꾸기에 참여하게 되었다. ‘연수구 사랑나눔텃밭’이라는 이름을 가진 텃밭이었는데, 운이 좋게 추천이 되어 당해부터 우리 아동센터도 3~4명 남짓한 텃밭을 가지게 된 것이었다.

3월이 되자, 텃밭에 거름을 주고, 땅을 한번 갈아 엮고, 도랑을 만들었다. 생각보다 힘이 너무 들었기에, 속으로 ‘아 내가 이런 업무까지 해야하나...’라는 생각도 들었다. 이후 모종과 씨앗을 아이들과 함께 심었고, 텃밭관리는 내 업무가 되었다. 흑설탕과 마요네즈를 이용해 친환경 농약을 만들어 뿌리고, 매일같이 물을 주는 일은 여간 쉬운일이 아니었다. 텃밭까지 가는 거리도 멀었고, 날이 더워질수록 짜증만 늘어났다.

시간이 지나 초여름이 되자, 상추가 수확할 수 있을 만큼 꽤 컸다. 아이들을 인솔해서 함께 텃밭으로 갔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다. 아무래도 자신들이 먹는 음식이 커가는 과정을 눈으로 지켜봐서였는 듯 했다. 그리고 한 아이가 말했다.

“선생님이 열심히 하셔서 식물들이 많이 자랐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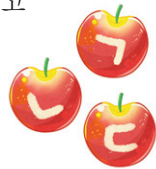
이 얘기를 듣자, 이 일을 귀찮아 했던 내자신이 많이 부끄러웠다. 수확물이 많이 늘어나자, 아이들과 함께 텃밭으로가서 수확하는 일이 많아졌는데, 그때마다 아이들이 아주 행복해했다. 그리고 저녁밥(아동센터에서는 아이들에게 석식을 제공함)에 우리가 심은 토마토, 상추, 얼갈이배추, 고추 등이 올라가자 아이들은 더 맛있게 식사를 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의 일에 뿌듯함도 느꼈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다.

벌써 한 해가 지난 지금, 우리는 작년보다 두 배 넓은 텃밭을 얻게 되었다. 지금은 작년처럼 ‘이 일을 어떻게 하지... 또 업무가 늘었네...’가 아니라, ‘아이들이 더 좋아하겠구나! 아이들이 좋아하고 키우고 싶어하는 작물로 키워 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든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이런 일들도 사회복지무요원을 하면서 배운다는 생각에 설레고 행복하다.

나의 전공을 살리다

훈련소에서 나와 어느덧 아동센터에서 근무한지 1년이 지나갔다. 나의 업무는 이제 업무가 아닌 일상처럼 느껴지던 찰나에, 나에게 큰 배움의 기회가 되는 일이 생겼다. 우리 아동센터에 러시아어를 쓰는 아이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아이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아이였다. 대학교에서 러시아어를 전공으로 배웠던 나로서 공부도 되고, 센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였다.

이 아이의 이름은 ‘막심’ 이었다. 막심이는 한국어를 거의 몰랐고 러시아어로 학교생활에 대해서 물으니 매우 힘들어하고 있었다. 친구도 없고, 학교생활이 재미도 없으며 수업도 하나도 모르겠다고 했다. 그 얘기를 들으니, 앞으로 많이 도와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책임감도 생겼다.



막심이가 들어온 후로부터, 나는 그 아이의 한국어 선생님이 되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한글공부 시간에는 내가 막심이의 담당 한국어 선생님이 되었다.

휴학을 한지 께 댔던 터라, 아주 자연스레 의사소통이 되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사전달에는 어려움은 없었다.

그러던 어느날, 아이들을 인솔해서 센터부근에 있는 공원에 나갔다. 아동 센터 아이들은 날씨가 좋을 때 가끔 이렇게 공원에 가는 것을 매우 좋아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꼬마도 매우 신나했다. 그렇게 아이들에게 자유시간이 주어졌다.

그런데 갑자기 막심이와 공원에서 놀던 한 아이가 서로 다투는 것이었다. 그 아이의 엄마가 와서 막심이(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아이의 이름)에게 다그치는 것을 봤던 나는, 놀라서 그곳으로 뛰어갔다. 한국어도 모르는 아이에게 큰 소리로 다그치며 자기아이만 챙기고 있었다. 가서 나는 막심이에게 자초지종을 들었고, 그들에게 설명했다.

“이 아이는 한국에 온지 얼마 안됐습니다. 많은 도움이 필요로 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 말로는 어머니 아들이 먼저 놀리고 때렸다고 합니다. 다그칠게 아니라, 서로 화해시키고 같이 놀게하는 방법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다그쳤던 아줌마도 내 이야기를 듣고 느낀게 있었는지, 알겠다고 하며 서로 화해시켰다.

이 일은 내 전공을 선택하고, 아동센터에 들어오고 나서 가장 뿌듯했던 사건이었다. 언어장벽으로 인해 서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왔고, 군복무를 대체하는 일을 하면서 내전공을 살려 큰도움을 주었다는 생각에 ‘정말 사회복지요원이 되길 잘했구나,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부를 하다

어렸을적 크리스마스 실이라던지, 독거노인, 불우이웃을 위해 천원, 이천원



학교에 낸 기억이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 올라오고, 대학에 진학하고 나서는 그런 것을 해본적이 없었다. 어렸을적 꿈은 힘든 사람들을 위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었는데, 그 꿈을 잊고 살고 있었다. 그리고 23살이 된 나는 사회복지무원으로서 군복무를 하고 있었다. 일을 시작한지 반년정도 지나자, 늘상 같은 업무는 지루했고, 업무능숙으로 추가되는 업무는 가끔은 미루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런 내 마음가짐을 바꾼 것이 바로 기부이었다.

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재단에 기부하는 후원자들 관리 업무 또한 나의 일중 하나였는데, 그 업무를 하면서 나도 한달에 작게 만원이라도 기부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던 찰나에 센터장님이 후원을 한번해보는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고, 나도 후원을 함으로서 이 일에 대한 주체의식을 갖고 일을 할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 한 달에 만원 큰 돈은 아니었으나, 내 마음가짐을 바꾸는데에는 충분했다. 비품들을 더 소중히 사용하고 아껴쓰게 되고, 내 업무는 2년간 시간을 때우며 해야할 일이 아닌, 2년간 내가 책임감을 갖고 해야할 일이라는 생각으로 바뀌었다.

벌써 기부를 시작한지 거의 1년이 다되어간다. 아직 내 다음으로 들어온 사회복지무원은 없지만, 앞으로 들어올 사회복지무원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 그들에게 함께 지역사회를 위해 기부하고 봉사하는 정신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고 싶다.

같은 나이 또래 내 친구들은 총을 들고 나라를 지키고 있다. 밤에는 보초를 서고, 낮에는 힘든 훈련을 한다. 그들의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은 높이 인정받아야 마땅하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말한다. 군인들은 고생하는데, 공익들은(사회복무요원) 일도 안하고, 시간때우는 것이 일상이라고. 그러나 나의 경험을 쓴 글을 통해서 그분들의 마음에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우리 사회복지무원들도 나라를 위해 복무를 하고 있고, 각자 복무지마다 다양한 일들을 도맡아 하며 사회를 위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이제 나는 내가 사회복지무원인게 부끄럽지 않다. 비록 다른 친구들과 다른 신체조건으로 인해 군대에 가지는 않았지만, 나라를 위해 복무하고 있는 것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제 내가 일하는 곳에 외부인이 오면 이제 당당히 말한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무원 김건모입니다. 일하실 때 편하게 김건모 선생님 이라고 불러주십쇼.”



상구작질(爽口作疾)



정 윤 철 (서울평화만들기지역아동센터)

입에 너무 맞는 음식만을 먹다보면 병이 생긴다는 의미의 고서의 단락을 읽니다. 언제나 자기 입맛에 맞는 여건만을 찾는다면 그것이 병이 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어진 근로여건이 어떤 환경이던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내면 그 자리를 통해 성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와 너 편하게 군 생활하네” 제가 주위의 지인들에게 사회복지무원임을 알렸을 때 먼저 들은 말입니다. 아마 많은 사회복지무원들 또한 들어 본 말일 것입니다. 사회적 인식이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축내는 사회복지무원의 이미지만을 생각하고 전달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회복지무원이 있을 수 있듯이 자신의 자리와 여건에서 주어진 역할을 해내며 주변 환경에서 겪는 많은 일을 통해 발전을 꾀하는 사회복지무원 또한 있습니다. 비록 저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부럽다’ 라는 말을 듣고 있긴 하지만 제 자신의 소신을 갖고 복무에 임하는 점을 강조하며 건설적인 2년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장

말을 정말 안 들어주는 아이가 있다. 처음에는 사근사근 달래며 대해 보았고 나중에는 내 화를 참지 못해 욕박지르기도 했다. 하지만 그 아이에게 가장 큰 지도법은 가장 앞장을 세우는 것임을 1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다. 다른 아이들의 학습지도를 도우미 역할을 담당시키며 진행의 주도권을 맡기고 의견을 수용해 주는 방법을 통해 아이의 평소 태도에 변화를 줄 수 있었다.

저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마음 깊숙이 상처가 아물지 못한 아이들이 많이 등원을 하고 있으며 부모의 갈등으로 인한 상처나 경제적 문제로 인해 센터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며 다른 아이들과 어울릴 때는 마냥 쾌활하고 즐거워 보이지만 문제가 부각되는 상황에서는 아물지 못한 깊은 상처가 매번 보이게 됩니다. 이런 다양한 환경에서 자라온 아이들을 올바른 지도로 바른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동 심리나 교육, 직접적인 양육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아이들과 직접 몸으로 부딪혀 가며 익힌 많은 시간을 통해 각 상황에 맞는 대처 방법을 터득하고 저 또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훈련소를 마치고 복무지로 처음 왔을 때는 지역아동센터라는 곳의 구체적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그저 방과 후 아이들을 돌봐주고 밥을 챙겨주는 공부방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생활을 했습니다. 저의 이런 태도는 근무를 통해 달라져 갔습니다. 처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기반으로 근무했을 때는 시간을 의미 없이 소모적으로 흘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위 사례와 같은 사건을 많이 겪으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상황 대처 능력이 올랐고 이를 통해 제가 해야 할 일이 보여 이를 차근차근 이행하자 비로소 지역아동센터의 존재 의미이자 나의 역할인 어려운 환경 속의 아이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며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인도해주는 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역할을 이해하고 복무에 임하자 복무하는 시간도 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저에게 발전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아이들과 어울리며 때로는 단호하고 따끔하게 지도해 나가며 저 또한 아이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스스로 비춰 볼 수 있었습니다.

신뢰



아이들에게 스승의 날 편지를 받게 되었다. 평소 다정하게 대하지는 못했던 내 모습대로 엄하고 무서웠다는 말이 많았다. 하지만 아이들 대부분이 나를 신뢰하고 있음을 느꼈다. 평소 다소 엄하더라도 내가 한 말은 꼭 지키며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내 모습을 본 아이들이 나를 믿고 있음에 다시 한번 복무의 의미를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사람은 누구나 편하게 살기를 추구하며 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편하다’라는 것이 육체적으로만 안락한 상태임을 말한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자신의 가치관, 대인관계에서의 편함을 위하는 것 역시 사람이 편하게 살기를 추구한다라는 말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회복지요원으로서 복무를 시작할 때는 그저 육체적 편함을 추구하며 모든 관계를 피상적으로만 대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의 수준을 낮출 뿐만 아니라 인생에서의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으로 밖에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복무기관에서의 나의 위치와 역할을 차차 파악해 나아갈 쯤 저는 복무기간 동안의 제 자세를 바꾸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복무를 하고 있는 동안 제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하며 저의 역량 하에 실행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을 고쳐서 사회복지요원의 본분을 지키며 맡은 역할을 하였더니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얻으며 복무를 임할 수 있었고, 신뢰를 기반으로 제가 근무하는 것에 대해 저를 발전시킬 소중한 시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저 근무를 열심히 하자는 뜬구름 잡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근무지에서 복무를 하더라도 근무지에서의 여러 갈등상황에 의해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소모 같은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스트레스를 받으며 회의를 느낄 순간이 많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순간을 통해 한 발짝 더 성장해 나아가며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어떤 생각으로 복무에 임하느냐에 따라 달린 것 같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기관은 아이들과 부대끼며 보내는 시간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적응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상처받으며 피곤한 생활 속에서 저를 단련시키며 주어진 역할을 하였고 그 속에서 저를 발전시킬 기회와 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근무지에서의 관계를 개선해 나아갈 수 있는 열쇠를 찾았습니다. 제가 여러모로 느낀 점이 많았던 적응기간을 통해 편함을 추구할 수 있는 최고 효율의 방법은 주어진 일 주어진 복무기간 주어진 복무기관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것 입니다.

기회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근무를 시작하며 목표로 한 것이 3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 해외여행 다녀오기, 두 번째 미뤄두었던 눈 수술하기, 세 번째 자격증 따기. 복무 중 근무 시간외에는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한 시간을 소중히 사용하자 생각하며 목표로 두고 계획을 잡았으며 한가지 한가지 실천해 나가면서 복무 중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계기임에 감사함을 느낀다.

학교를 휴학하고 2년이라는 긴 시간 속에 복무 의무를 위배하지 않으며 저 자신의 발전을 위한 투자를 하려고 목표를 3가지를 세우고 복무를 시작했다.

첫 번째는 부모님께 손을 벌리지 않고 자력으로 배낭여행을 다녀오는 것 이였습니다. 학교 휴학을 하고 나서 훈련소에 입소하기 전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았던 돈과 사회복무요원 월급을 조금씩 모아 작년 겨울 캄보디아에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물론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신분으로 해외에 나가는 것이 쉬운일은 아니였습니다. 병무청에서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발품을 팔며 돌아다녔고 당시 여권이 갱신이 되어





있지 않았던 상태여서 여러 구청에 집 드나들 듯이 다녀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야 허가를 받을 수 있었고 노력을 통해 얻은 여행은 순간순간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두 번째는 시력이 좋지 않았던 저의 눈 수술을 계획하는 것 이었습니다. 여러 안과를 알아보며 비용과 경우의 수를 따져 봤으며 최근에 수술을 진행하고 좋은 시력을 갖고 즐거운 마음으로 복무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복학을 하고 난 후에 학교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며 유용하게 사용될 자격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근무 시간 중에는 집중해서 책을 들여다 볼 시간이 없어 퇴근 후 자기 전 시간을 이용해 꾸준히 몰입해 시간 투자를 하고 있고 복학 후 바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 목표들이 실현, 실천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방의 의무를 지내는 중 근무 외 시간에 자기 자신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무로 인해 다소 지쳐 있더라도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쓰기에는 아까웠던 저는 저 자신을 위한 투자의 시간을 만들었고 이를 토대로 목표를 하나씩 이뤄갈 수 있었습니다.

큰 목표를 정하고 그 세부적인 요소들을 채워나가며 저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었고, 주어진 목표 달성 양을 정해서 우선순위로 두어야 하는 복무에 영향이 많이 안가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달성되어 가는 목표들로 인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근무하는 것이 보람차할 수 있었고 또한 복무동기도 자체적으로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훈련소 동기들 중에 근무하는 것을 많이 힘들어 근무지를 변경하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이 바로 상구작질이었습니다. 자신의 입맛에 맞는 것만 찾으려하면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병이되어 온다는 말의 뜻이며 이는 주어진 조건을 거르지 않고 주어진 시간 속에서 자신의 역량과 능력을 키워 나아간다면 그저 흐르는 시간을 바라보는 아쉬운 시간이기 보다는 보람차고 의미있는 순간에서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형을 형이라고 부를 수 없던 나..

형에 대한 나의 인식 변화



주 영 호 (경주푸른마을)

내가 초등학교 다닐 즈음, 친구들이랑 놀다가 집으로 친구들을 우연찮게 초대했다. 친구들이 우리 집 문을 연 순간 형이 즐거운 듯이 웃으며 ‘어서와’라고 어눌하게 인사를 하자 친구들은 그런 형에게 어영부영 인사를 하고 내 방에 와서 소곤거린다. ‘저 사람 누구야??’ 그 말에 나는 망설이다가 ‘사촌이야’라고 말을 하며, 이미 텅 빈 가방에 먼지라도 털어내 듯이 정리하였다. 그 후 나는 친구들이 집에 오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기 시작했다.

우연히 찾아온 기회

외국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병역문제해결을 위해 인터넷으로 내가 할 수 있을 만한 복무지를 알아보았다. 그런데 그곳의 인터넷 환경이 원활하지 않아 원하는 곳을 선택하지 못하고 허둥거리다가 장애인복지시설인 경주푸른마을을 선택하게 되었다. 원치 않은 복무지였으며 집과의 거리도 멀고 장애인복지시설이라 일반 근무지보다 일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공익카페의 충고 글을 읽었기에 근무지 변경 신청을 할까 생각했다.



장애인시설에서의 업무는 어렸을 때부터 장애가 있는 형과 함께 지내며 형을 도와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별로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았다. 나에게 장애인시설에서의 근무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형을 생각하게 했다. 형에 대해서는 초등학교를 다니기 시작할 즈음부터 보통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다른 형제들처럼 놀려고 하지도 않고 스스로 가누지 못하는 몸, 나이에 맞지 않은 행동 때문에 형으로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적도 많았다.

친구들과 친해지면서 친구들이 “형 있어?”, “형제가 몇 명이야?”라고 질문을 하면 항상 형에 대해 애매한 형태로 말끝을 흐리곤 했다. 어쩌다가 친구들이 집에 오면 형을 사촌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밖에서는 감추고픈 형의 존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활발한 성격으로 친구들과 잘 어울려 지냈지만 비밀이란 언젠가 들통 나기 마련, 친구들 중 한 명이 아마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소식으로 내게 형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걸로 인해 학교에서 형은 나에게 놀림거리가 되었다. 형에 대해 별로 좋은 감정은 아니었지만 그 누가 자신의 가족을 욕보이면 참겠는가! 나는 형을 놀린 친구랑 싸워 선생님에게 크게 혼이 났다. 선생님이 엄한 목소리로 “왜 싸웠어?”라며 물었지만 친구는 입을 다물었고, 나는 웬지 모르게 억울한 감정을 토로하듯 “형을 저능아라고 놀렸어요... 우리 형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라며 울먹거리다가 울었던 경험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난다. 어렸을 때는 뭐가 그리 서러웠던지 집에 와서는 말이 안 통하는 형에게 싸움을 걸기도 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나는 누군가가 가족에 대해서 물어보면 형에 대한 언급을 일절 하지 않게 되었다. 어느새 부모님 또한 당연하듯이 형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 집안의 암묵적인 룰이 되어 버렸다. 부모님은 형을 장애인복지시설로 보냈고 종종 집에 왔지만 학교생활로 집과 자연스레 멀어졌던 나는 동시에 형과도 멀어졌다. 어영부영 시간이 흘러 대체복무 기관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이 되었다는 것을 들은 부모님께서는 내가 근무하게 될 근무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셨다. 형이 있었던 곳이었고 지금은 다른 곳으로 이동했지만 형과 함께 생활했던 장애인들이 있었기에 ‘형이 생활했던 환경을 경험해보는 것이

어떻겠냐? ‘는 의견으로 오랫동안 잊었던 형에 대한 기억과 형을 감추었다는 죄책감을 털어보고자’ 일단 몇 달간 다녀보자 ‘라는 생각으로 경주푸른마을에 근무를 하기 시작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군복무를 위해 장애인복지시설에 근무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어렸을 때부터 장애인에 대한 거리감이 없었고 시설에 거주하는 분들은 대부분 형보다 원만한 인지능력과 언어능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오히려 더 친근하게 느껴졌다.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정도면 형처럼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인지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했지만 의외로 비장애인들처럼 대화가 가능하며 신체적으로 건강한 장애인과는 함께 배드민턴과 족구, 탁구 등의 운동도 할 수 있었다.

사람들과 생활가능한 정도지만 아직 사회에 나갈 여건이 되지 않거나 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 아직 우리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선진국이 아니기에 장애인들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아 시설로 돌아오는 경우가 종종 보인다. 그런 것을 보면서 문득 미국과 한국이 비교가 되었다. 미국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별보다는 오히려 약간 불편한 사람으로 생각해 감추거나 불편한 시선을 보내지 아니하고 일반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대부분의 사람이 편견을 버리고 그 차이를 점점 줄인 결과, 장애인들도 대학에서 운동도 하고 수업도 같이 들으며 비장애인과 함께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장애는 그저 그 사람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몇몇이 들어내 일반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다.

형과 함께한 외식

거주인분들이랑 운동을 하거나 같이 이야기를 할 때면 종종 형에 대한 생각이 나곤 한다. 형은 지적장애이고 거동 또한 불편해서 여러 번 교정수술을 받았고 지금 또한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형이랑 나눌 수 있는 대화는 “맛있어?”, “안 아파?” 등과 같은 단답형의 언어수준인 대화가 전부인 것이 마음을 먹먹하게 한다. 조금 이나마 형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으나, 알아들을 수 없는 우리가족이 오랜만에 돌아온 형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식사를 즐겁게 해주는 것 뿐.... 그마저도 예전에 가족과 함께 외출했을 때 형의 돌발행동으로 가족들이 곤란한 경험을 한 이후론 외식을 안 하기로 했고, 집안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형과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로 인해 시설에 복무하면서 바뀐 나의 행동 중 하나가 형이 집에 돌아와 있는 동안 형이랑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는 것...

처음에 부모님은 힘이 들것 같으니 그러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시설에서 거주인분들과 나들이도 가고 캠프도 간 경험이 있었기에 두렵지 않았다. 장애인과 형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형이랑 같이 식사를 하기 위해 외출을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형 또한 불편하지 않게 외식하는 요령을 터득했기에 괜찮다고 부모님을 설득해 외식을 했다. 처음에는 형과의 외출을 걱정했던 부모님도 무사히 돌아오는 모습을 확인하더니 이제는 별 걱정 없이 외식비를 지원해 주신다.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언젠가는 형이랑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평소처럼 형이 식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알맞게 간 조절을 해주고 뜨거운 음식을 천천히 식혀 주면서 형의 식사속도에 맞춰 밥을 먹는 모습을 지켜 본 주인아주머니께서 “남들 시선에 신경 안 쓰고 열심히 형을 보살펴 주는 모습이 듬직하네!” 형을 보살펴 주는 동생이 있으니 보기 좋다고 다음에 오면 공짜로 주신다며 칭찬까지 해 주셨다. 내가 평소처럼 시설에서 한 행동에 그런 칭찬의 말을 듣게 되니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근무가 보람됨을 느꼈다. 어렸을 적에 형에 대한 미움도 있었지만 이제는 미움보다 다정함을 가지게 되었다.

티끌인 사회복무요원?

장애인거주시설은 생활재활선생님,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직원들이 항상 거주인의 안전한 생활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으며, 시설 내에서 케어 및 치료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통원치료를 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다. 모두들 거주인들의 건강에 매우 민감하고 걱정이 많기에 신경이 곤두선 채로 노력하고 있지만 그래도 인력부족으로 고난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현재 사회복지 선진국을 향해가는 대한민국의 상황에 사회복지분야의 인력 부족을 덜어주고 있는 사회복지무요원들은 어떻게 보면 티끌만큼 적은 도움이나, 이미 크나큰 존재로 다가온다.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일은 사소한 보조적인 업무, 예를 들어 거주인들의 등하교시 거동이 불편한 거주인을 휠체어에서 차에 태우는 학교보조, 나들이, 여러 행사에 동행하여 함께 하는 등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우리가 그런 사소한 일을 함으로써 다른 직원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시설의 전문적인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 사회복지무요원이 사회복지분야의 전문적인 일을 도와주는 것은 무리겠지만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 조금이나마 힘이 된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뿌듯한 생각이 든다.

우리들은 앞으로 더 나아가 사회에서도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넓은 안목을 가진 사회인이 될 것이다. 당장 시설 내에서는 존재가치가 작을지도 모르지만 전국에 있는 사회복지무요원들이 있는 현재는 그 티끌이 모여 태산이 된 존재다!

1년이 지난 내

1년이 지난 지금은 처음보다 다른 마음가짐이다. 1년 전만 해도 근무지를 변경할까 말까 고민하며 ‘하아...’라는 한숨 밖에 안 나오는 날이 많았지만 어느덧 시간이 흘러 1년이나 지난 지금, 나는 아직도 경주푸른마을에 있다. 거주인에게 배드민턴을 가르쳐주고, 종종 기타를 쳐주며 즐거움을 나누기도 하고 작년 가족의 날 행사에 즐거워하는 거주인들을 보고 그들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 12월에 있을 이번 가족의 날에는 장기자랑으로 기타 공연을 할까 생각하고 있다.

우리들을 2년 뒤에는 떠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처럼 대해주시는 직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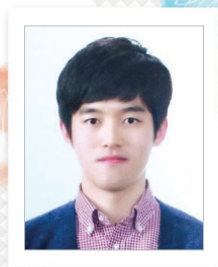


분이 있기에 종종 힘든 일, 괴로운 일이 있어도 견딜 수 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1년 동안 마냥 즐거웠던 것도 아니다. 처음 해보는 익숙하지 않은 일에 혼 나기도 하고 서러움을 느끼기도 했고 건강하지 않은 몸이기에 위축된 정신으로 처음 보는 직원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조차 힘든 시기도 있었다. 그러나 항상 처음만 같은 사람은 없듯이 시간과 노력이 사람을 변하게 하고 적응하게 한다.

장애인복지시설에 근무하면서 재미있는 일들도 많았고 유익한 정보도 많이 얻었다. 후원 사업을 통한 장애인의 복지환경 향상, 다양한 장애의 특징, 대처법 등은 장애가 있는 형을 가진 나에게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많은 정보를 얻게 했다. 시설에서 지내면서 형에 대한 마음과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생겨 남은 복무기간 동안도 거주인들과 여러 가지 추억을 만들고 싶다.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소집해제 후에는 적금으로 모은 돈으로 형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여행을 하는 것이 내 첫 번째 계획이다. 항상 시설에 갇혀 있던 형에게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면서 가족과의 추억을 만들어 주고 싶다. 10년간 형에게 무시했던 날들은 되돌릴 수 없겠지만 뜻 깊은 추억을 만들어 그것을 계기로 형을 가족의 일원으로써 동떨어진 존재가 아닌 진정한 형으로 맞이하고 싶다.



같이 걸어가는 가치



문 종 혁 (대법원 전산정보관리국)

핸드폰 알람이 울린다. 익숙한 멜로디는 사랑이 묻어 있는 엄마의 잔소리 같이 항상 나를 일으켜 세워주지만 귀찮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 난 잠이 깬고 시간을 봤다. 7시 20분... 여느 때와 같은 월요일 아침은 항상 몸이 무겁다. 그렇게 출근 준비를 마친 나는 출근행렬에 몸을 싣는다. 경기도 분당구 야탑동에 우뚝 서 있는 중후한 건물, 내가 1년 반 동안 몸을 담은 대법원 전산정보센터이다. 그렇게 사무실에 도착한 나는 출석부를 정리하고 아침조회를 기다린다. 8시 55분 “계장님 안녕하세요 다 모였습니다.” 우리 국에는 총 4명의 사회복무요원이 있고 대표를 맡은 나는 동료들이 다 모이면 계장님께 말씀을 드린다. 그렇게 시작되는 아침조회는 간단히 안부를 묻고 공지사항을 전파해준다. “병무청에서 체험수기를 공모하는데 생각있는 사람 없니?” 계장님이 말씀하셨다. 평범한 행정업무를 보는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 느낌을 받았다. 동료들도 멀찍이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표정들을 짓고 있었다. 그 때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다. “수상과 관련 없이 이것도 복무하면서 하나의 추억이고 너희들의 복무생활을 정리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소소하지만 작은 나의 이야기 담아보고 싶었다.



“계장님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3년의 겨울 추억 그리고 사회복지무요원으로 마지막 겨울을 앞두고 있는 지금, 나를 되돌아보며 미래를 향한 새로운 꿈을 품어본다.

3년 전의 겨울, 혹독함

사계절 중에 겨울은 가장 춥고 척박하고 생명력 없다. 22년 내 인생에서 고2 겨울은 가장 춥고 척박하고 생명력이 없는 계절이었다.

새벽, 한 건물에 불이 켜진다. 분주한 움직임... 건물에서 학생무리들이 운동장으로 모인다. 그 때 위에서 들리는 목소리 “몸 풀어라” 그러자 무리들은 운동장을 뛰기 시작했다. 한참 시간이 지난 후 땀으로 목욕이라도 한 듯이 학생들은 거침 숨을 몰아쉬며 땀을 흘리고 있었다. 흔한 겨울 동계훈련을 보내는 축구부의 모습이랄까 이때 나는 계속된 경쟁과 훈련의 반복으로 무더지고 막혀있었다. 훈련이 끝나고 코치님이 말씀하셨다.



라이벌 학교와의 친선경기, 그렇게 긴장감이 흘렀다. 몇 시간 후 서울에 있는 한 고등학교 운동장에는 유니폼을 입은 여러 학생들이 몸을 풀고 있었다. 컨디션이 좋았다. 그리고 날씨도 좋았다. “아 날씨 좋다!” 전혀 긴장되지 않았다. 시작을 알리는 호루라기 소리 경기는 팽팽하게 진행됐다. 그 때 공이 왔고 나는 힘차게 볼을 몰고 갔다. 그리고 잠시 후 나는 누워있었고 다리는 부러져있었다. 그렇게 겨울이 왔다. 몇 달 후 나는 병원에 목발을 짚고 갔다. 두 차례의 수술, 그 동안 고 3인 나는 누워만 있었고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다.

“재활 시작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재활기간, 하지만 그 역시도 수술 후유증으로 복귀할 수 없었다. 우울했다. 힘들었다. 짜증났다.

여름이 다가올 때쯤 나는 학교에 나가기 시작했다.

반년 간 많은 것들이 바뀌어있었다. 함께 동고동락했던 동료들은 전국대회 입상과 서울시 리그 1위라는 꽃길을 걷고 있었다. 축하를 해줘야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대비되었다.

학교에 나가기 싫었고 나를 보며 반가워하던 친구들의 인사도 냉랭하게 받았다. 그 해 겨울은 너무나 길게만 느껴졌고 힘들었다.

2년 전의 겨울, 자양분

언제부터인가 겨울이란 나에게 창피했던 과거가 더 이상 아니었다.

나를 봄으로 이끌어 줄 자양분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눈발이 휘날리는 겨울. “모두 기상!” 정신없이 자고 있던 뺨뺨머리들은 눈도 제대로 못 뜬 채 침상을 정리하고 연병장으로 집합했다.

나는 운동선수 시절 다쳤던 기록으로 4급을 받았고 기초 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논산훈련소에 왔다. 축구를 그만두고 성격의 변화가 있었고 까칠해졌고 이기적이었다.

“지금부터 아침 구보를 시작 할 것이다. 열외자 앞으로 나와”

많은 인원이 앞으로 나간다. 혼한 공익 중대의 모습이랄까. 소대장 분대장들은 그 모습을 보고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봤다. 너무 싫었다. 군대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공익요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정말 싫었다. 그렇게 시작된 구보에서 뛰는 것에 자신이 있던 나는 앞으로 치고 나가기 시작했다. 공익이라는 부정적인 인식과 나는 저들과 다르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렇게 목적지에 도착해서 한참을 기다리고 있던 나는 저 멀리서 몸집이 크거나 작은 동료들이 분대장들과 발을 맞춰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왼발 왼발 왼발” 목적지에 도착하자, 소대장 하고 분대장들은 격려의 박수와 칭찬을 해줬다. 이상했다. 멋도 없었다. 왜 박수와 격려를 받는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나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있었다. 훈련 2주차, 동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 그건 편견이었다. 분명 어느 집단에서든 물을 흐리는 사람이 있다. 단지 그게 부각됐을 뿐이다. 내가 본 동료들은 강인했고 멋진 사람들이었다. “퇴소를 명 받았습시다! 이에 신고합니다!” 그렇게 짧은 한 달간 훈련소 생활이 끝났다. 내세를 건 없지만 정말 열심히 훈련



받았고 나한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준 기회였다.

그리고 다짐했다.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보내자’

1년 전의 겨울, 봄을 준비하는 성실함

이제 알 것 같았다.

‘겨울은 시련이 아니다.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 줄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위한 초석이었음’

“저 ... 안녕하십니까 ! 오늘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출근하게 된 문종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지난 날 사회를 알아가던 시기에 어설피름이 많았던 알바 경험은 몇 번 있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운동선수였던 나는 여러 사람과 만날 기회가 적었고 혹여 실수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다. 그 때 “애 좀 봐라.” 담당 실무관님은 코웃음을 치면서 말씀하셨다. 반응이 당황스러웠다. 머리가 빠르게 굴러갔다. 그 순간. “군기 꼭 잡혀 나왔네 마음에 든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그렇게 막내로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몇 달 후, 나는 담당 실무관님 과로 배정이 되었다. 민원은 없지만 가장 일이 많고 국내외 사법부와 관련된 다양한 방문객들의 방문행사를 준비를 해야 하는 과였다. 방문행사는 다른 비슷한 행정업무와는 별개로 우리 전산 정보 센터만의 특별한 행사였다. 사법정보화시스템 전산장비 데이터 센터 전자 소송 기록보존소 등을 체험하러 매해 여러 각국에서 방문을 해주셨다. “종혁아 여기 입간판 세워야겠다.” “테이블 각이 안 맞잖아” “무선마이크가 없어 빨리 가지고와” 오늘은 오전 오후로 행사가 있는 날이다. 오전에는 법원 내부 인사 분들이 오시고 오후엔 태국 법관들이 오신다. 설 틈이 없었다. 그렇게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고 행사가 끝이 났다. 너무 힘이 들었다. 시간을 보니 퇴근시간이 지났다. 다른 선임들은 벌써 퇴근을 했고 웬지 나만 손해 보는 느낌이었다. 그 때 옆에서 태국 법관님이 오시더니 조그마한 빨간 눈이 달린? 코끼리 고리를 주시고는 어설피름게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를 하고 돌아가셨다. 그 분은 회의실에서 가방을 나두고 오신 걸 내가 가져다 드린 분이셨다. 솔직히 기괴한 코끼리여서 가지고 다니기는 힘들겠지만 너무 기분이 좋았다. 그렇게 새내기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첫해를 맞이했고 어느새 1년

차 사회복지복무요원이면서 복무인원 중에서 선임되었다. 돌아보면 1년 동안 사회복지복무요원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근무를 했던 것 같다. 그리고 담당 실무관님께 가장 듣고 싶은 말을 들었다.

“중혁아 난 너를 보면서 사회복지복무요원에 대한 편견이 깨졌다.”

다가올 겨울, 새로운 출발

가치

사회복지복무요원은 사회에서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역할을 맡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작은 역할일지라도 그건 가치가 있다. 그렇게 사회복지복무요원으로서의 생활은 가치를 크고 중요한 것에만 두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인관관계

중오지 필찰언(衆惡之 必察焉), 중호지 필찰언(衆好之 必察焉),

내 핸드폰 메모에 있는 문구이다.

여러 사람이 그를 미워하더라도 반드시 살펴보고,

여러 사람이 그를 좋아하더라도 반드시 살펴봐야한다.

사회복무 요원으로서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생각 그건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던 편견이었음을 알았을 때 이 문구가 와 닿았다. 겪어보지 않고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꿈

축구선수로서의 꿈을 잃고 방황하던 나에게 사회복지복무요원으로서의 생활은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얻을 수 있는 기회였다. 그리고 늦게나마 공부를 시작하고 세상을 넓게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지게 되었다. 나의 꿈 ! 못 다한 학업에



대한 열정에 불을 당겨 사회가 요구하는 건강한 장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부푼 꿈을 되새기며 의지를 다져본다.

작은 가치도 소중히 생각하고 깊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난,
나의 꿈을 가슴에 안고 그 꿈을 펼칠 날을 위해 파이팅 한다.



꿈키움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삶!

꿈발에서의 소중한 시간들을 보내며...



이 동 재 (순천상사지역아동센터)

갈아탈 버스 시간에 맞추어 환승장소에 도착하여,
무사히 64번 버스를 타고 오솔길을 굽이돌며 바깥 풍경을 바라보다보면
어느새 센터가 있는 마을에 도착하게 된다.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두려움도 잠시, 시골의 흙내음을 맡으며
오늘도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다짐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논밭을 일구는 농부의 마음처럼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1300여 세대를 책임지고 있는 면내 유일한 방과 후
활동기관인 상사지역아동센터는 언제나 아이들로 넘쳐난다. 정원 25명을 초과
하는 것은 제법 있는 일인데, 학년별 1개 반만 있는 관내 유일한 초등학교와
부설 병설유치원을 합한 100여명의 새싹들이 모두 함께할 수는 없지만 소중한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의미있는 일임에 틀림없다. 마을
회관이었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센터는 사무실이 좁은 탓에 아동
학습실에 내 자리를 두고, 15인치 구형 모니터와 윈도우XP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어서 때로는 짜증이 나기도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는 일상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행복한 삶이다. 마치 농작물을 자식이라 표현하며 땀흘리며 일하는 농부의 마음처럼.

“함께해요, 꿈을 키우는 꿈 밭!”

기관 근무를 시작하며 센터장님과 면담을 시작할 때, ‘꿈키움’의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잠깐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이내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작은 기관이라 후원도 부족하고, 도심과 많이 떨어져 있어 자원봉사자들도 많지 않은 센터는 이용아동들 또한 결손가정이 많았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에 속해있는 다양한 아이들을 보며 안타깝기도 했지만 이 아이들이 더욱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이끌어야겠다는 다짐 또한 할 수 있었다. 넓은 산과 들, 논과 밭을 보면서 아이들을 꿈밭에서 키워야겠다는 센터장님께서 정하신 표어가 내 마음 깊은 곳을 자극했다.

“선생님, 제가 신발정리 할게요!”

복무 초기, 야외 체육활동프로그램이 끝나고 실내로 들어오는 중 맨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아이에게 신발 정리를 부탁했다.

“왜 제가 해야되요?”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했다.

“선생님이 하세요”

라는 표현을 하며 뺨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요즈음 아이들의 마음은 생각 보다 딱딱하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기본 규칙과 지켜야 할 예절들을 교육시켰다. ‘신발은 신발장에 넣기, 읽은 책은 책꽂이에 두기, 두 손으로 받기, 양치 잘 하기’ 등 기본적인 교육이지만,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아 막대사탕 한 통으로 아이들을 유도했는데 역시 스펀지처럼 잘 흡수하여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었고 이제는

“제가 먼저 할게요!”

라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어 뿌듯했다.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과의 생활이 적응될 즈음, 두명의 아이가 서로 다투어 꾸짖을 일이 있었다. 서로에게 잘못된 점을 말해주고 포옹하며 화해하게 하고 잘 끝나는 듯 했는데 한 아이가 그 일을 마음에 담아두었는지 며칠 뒤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선생님은 저 미워하죠?”

서로에게 잘못된 점을 이야기해줄 때 자기에게 더 많이 말을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당황했지만, 이 일을 계기로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초등학생 심리백과 책을 구매해서 읽게 되면서 어떤 상황에 어떻게 지도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지 깨닫게 되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유난히도 맑았던 어느날, 학교가 끝난 아이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사랑합니다~”

라며 인사를 했다. 재미있는 미술프로그램이 있는 날도 아닌데, 느낌이 이상해서 왜 그러냐며 물어봤더니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사감운동을 학교에서 응용해 인사법으로 실시하게 되었다고 했다. 학교에서도 하고 있으니 여기서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생각해 볼 틈도 없이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나 또한 어색한 그 표현을 함께 사용해야 했다는 사실은 생각도 하지 못했던 것이 흠이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말이 선뜻 나오지 않아 아이들이 올 시간에 맞추어 화장실도 가 보고, 쓰레기를 버리러 센터 밖을 나서기도 했지만 이내 아이들의 불평에 이기지 못하고 ‘사랑합니다’라는 생각만 해도 낮간지러운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표현을 사용하면서 센터에서 뿐 아니라 일상에서 변화가 찾아왔다. 부정적인 말로 욕하기보다 긍정적인



말로 축복하게 되었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더 생겼다. 센터 아이들이 ‘사랑스러워졌고’ 이곳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것에 더욱 ‘감사했다’

스승의 날 받은 편지

5월 15일, 오후 프로그램이 강사의 사정으로 진행되지 못해서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편지쓰기를 했던 것처럼 센터 선생님들께 편지쓰기를 해보려고 했다. 학교 선생님들께는 편지를 쓰더라도, 센터 선생님들께는 안 쓸 것이라는 추측과 함께 내가 받으면 기분 좋을만한 편지지를 출력하려고 고르고 있는데 때마침 센터에 도착한 아이들이 “여기요!”라고 하며 두 손을 내밀었다. ‘공익셈에게’ 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편지의 내용들은 ‘거울을 깬 때 치워주셔서 감사해요’ ‘모르는 문제 알려줘서 고마워요’ ‘옆집으로 넘어간 공 빼줘서 멋져요’ 등의 시시콜콜한 사건과 이야기였는데, 부족하지만 나도 선생님이라고 고사리손으로 뽀뽀뽀뽀 적어준 편지들을 보며 너무 행복했다. 한명 한명 아이들을 안아주면서 부끄럽지 않은 선생님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되자

옆 마을 주민께서 한번 키워보라고 살아있는 중병아리 4마리를 가져다주신 적이 있었다. 토목공학의 전공을 살려(?) 텃밭 옆에 닭장을 짓고 잡식인 닭을 위해 사료와 함께 센터에서 나오는 음식물로 정성껏 키웠다. 안타깝게도 암탉이 달걀을 낳을 즈음, 근처에서 시끄럽고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들어와 다른 곳으로 보내게 되었다. ‘왜 안잡아먹어요?’ 라는 말이 하고 싶었는데, 아이들의 말은 정반대였다.

“잡아먹는 것 아니죠?”

라고 말하는 아이의 모습은 진심 그 자체였다. 많이 정들었었다며 맨손으로 닭 4마리를 모두 한번씩 쓰다듬고, 선생님과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한 다음에야

닭들을 떠나보냈다. 입맛을 다시며 보냈던 나와 매우 비교가 되었는데, 철없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다가도 나의 모습과 비교해보면 참으로 순수했고, 그 모습을 본받아겠다고 생각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자

한 아이가 선생님은 꿈이 뭐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다. 할 말이 없어서 너는 꿈이 뭐냐고 물었다. 웃으면서 단번에

“수의사요! 동물이 너무 좋거든요”

라고 답했다. 그러자 너도나도 무엇이 되고 싶은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와 그 이유를 말했다. 대통령, 과학자 같은 직업군 보다는 의사, 교사 등 다소 세속화(?)된 직업군이 많았지만, 아이들은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그 꿈을 위해 노력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난 꿈을 찾는데 그다지 노력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꿈과 목표를 위해 노력하지 못한 것 같았다. 선생님의 역할을 해 준 아이들 덕분에 다시금 반성하며 사회복무 기간동안 나의 꿈을 키우기 위해 2주에 책 1권씩 읽는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실천하고 있다.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되자

헬렌켈러가 위인이 되기까지는 설리번 선생님의 노력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존경하는 사람들이 한명쯤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까맣게 잊어버린다. 남에게 상처주는 말은 잘 하지만, 그 상처를 보듬어주는 일에는 어색하기 그지없다. 하지만 우리도 설리번 선생님이 될 수 있다. 어떤 분야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따뜻하게 대하면 된다. 귀가 잘 들리지 않아서 여러번 대답해야 하더라도 내 할머니라고 생각하고, 몸이 불편해 잘 걷지 못하더라도 내 삼촌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잘 들으라고 하면 말을 가져와야 들 수 있다고 하는 엉뚱한 아이들은 내 동생이라 생각한다면 된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나’에서 ‘우리’로 변하게 되고, 더 진실하게 사람을 대할 수 있을 것이다. 삼성의 이견희와 애플의 스티브잡스만 존경



하는 인물이 아니다. 나도 그 누군가의 존경하는 인물이 될 수 있다.

피하지 못하면, 즐기자!

아직도 우리 사회는 사회복지요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많다. ‘방위, 공익’ 등의 구닥다리 같은 용어가 ‘사회복지요원’이라는 정식 명칭보다 아직도 많이 쓰이고 있고, 봉사활동은 해 본 적도 없으면서 우리가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잊은 채 ‘남자가 군대를 안갔다왔으면 사람도 아니지’ 라는 쓴소리를 듣기도 한다. 만일 내가 현역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했다면 나 또한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애써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지만 생각보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요원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사회복지요원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 분야에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다면 언젠가는 우리도 청춘의 시기에 나라를 위해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줄 것이다. 설령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스스로가 사회복지요원으로, 빛과 소금으로 이 땅의 약자들과 함께하는 동안 진정한 대한민국의 멋진 가치관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자, 카르페디엠!





향기로 피어나다

2015 사회복무요원 체험수기집

발 행 인 병무청장 박 창 명

편 집 인 사회복무국장 최 철 준

발 행 일 2015년 9월

발 행 처 병무청 사회교육복무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2동

Tel. 042)481-3043 Fax. 042)481-3040

www.mma.go.kr

디자인 및 인쇄 디자인문영 042)472-5081

발간등록번호 11-1300000-000143-10



향기로 피어나다

2015 사회복무요원 체험수기집



그 날 이후로, 도시락을 배달할 때에도 종종 고맙다는 말씀을 듣게 되면 딱 하루
산타클로스가 되었던 그 겨울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리 대단치 않은 일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이 일이 귀찮고 힘들게 느껴지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시락을
갖다드릴 때마다 그 보답으로 미소를 지어주시고,
고마워하시는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언제라도 힘이 나면서 걸음이 빨라집니다.

- 체험수기 중에서 -



병 무 청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www.mma.go.kr